

보험동향 2018년 봄호

Ⅰ 총괄	전용식 (연구위원)
Ⅱ 경제금융 동향	경제총괄 조영현 (연구위원) 세계경제 최예린 (연구위원) 국내경제 김유미 (연구위원) 국내금융 이해은 (연구위원)
Ⅲ 국내보험 동향	생명보험 김세중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위원) 손해보험 김진억 (수석담당역) 김유미 (연구위원)
Ⅳ 해외보험 동향	총괄 김세중 (연구위원) 미 국 최예린 (연구위원) 영 국 권오경 (연구위원) 일 본 이소양 (연구위원) 중 국 이소양 (연구위원)

■ 목차

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1
2. 국내경제 / 23
3. 국내금융 / 42

II. 국내보험 동향

1. 보험 총괄 / 52
2. 생명보험 / 58
3. 손해보험 / 77

III. 해외보험 동향

1. 미국 / 101
2. 영국 / 108
3. 일본 / 114
4. 중국 / 119

부록. 통계표 / 130

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2017년 4/4분기 세계경제 성장률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승하며 경기회복세가 지속됨
- 2017년 4/4분기 미국(2.5%)과 중국(1.6%), 일본(1.6%), 유로지역(2.4%)의 경제성장률은 모두 전분기 대비 하락(미국 0.7%p, 중국 0.2%p, 일본 0.8%p, 유로지역 0.2%p)함
 - 미국은 순수출 감소, 중국은 고정자산투자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함
 - 일본은 내수 중심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택투자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함
- 2017년 4/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의 경우, 미국과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0.1 상승한 100.1을 기록했으며 일본은 100.1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고 중국은 0.1 하락한 99.2를 기록함
- 2017년 4/4분기 전년동기 대비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 둔화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4%p 하락한 4.7%를 기록함
- 2017년 4/4분기 전년동기 대비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3.7%를 기록함
- 국제유가(두바이 61.1달러/배럴, WTI 57.4달러/배럴)와 원자재 가격(CRB 상품지수 187.2)은 동반 상승함
- 2017년 4/4분기 미국의 국채금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상승하였으며, 영국도 중앙은행(BOE)의 금리인상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함
- 세계경제는 미국의 세제 개편 등 확장적 재정정책 및 세계 실업률 하락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 2017년 4/4분기 미국, 중국, 일본과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모두 하락함

- 미국 경제성장률은 순수출 감소로 전분기 대비 0.7%p 하락한 2.5%(연율)를 기록함(〈표 5〉 참조)
- 중국의 실질 GDP는 고정자산투자 감소로 전분기보다 0.2%p 하락한 1.6%를 나타냄(〈표 10〉 참조)
-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내수 중심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택투자 감소로 전분기 대비 0.8%p 하락한 1.6%(연율)를 기록함(〈표 15〉 참조)
-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의 감소로 전분기 대비 0.4%p 하락한 2.4%(연율)를 기록함(〈표 19〉 참조)

〈표 1〉 세계경제성장률¹⁾

(단위: %)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 ¹⁾	n.a.		n.a.		3.2	n.a.		n.a.		3.8
선진국 ¹⁾	1.6		2.1		1.7	2.3		2.8		2.3
신흥국 ¹⁾	4.4		4.2		4.4	5.3		5.3		4.8
미국 ²⁾	0.6	2.2	2.8	1.8	1.5	1.2	3.1	3.2	2.5	2.3
중국 ³⁾	1.3	1.9	1.8	1.7	6.7	1.4	1.9	1.8	1.6	6.9
일본 ⁴⁾	2.7	1.3	0.9	1.1	0.9	1.9	2.4	2.4	1.6	1.7
유로지역 ⁵⁾	2.1	1.4	1.6	2.6	1.8	2.5	3.0	2.8	2.4	2.3

주: 1) 국가별 분기 성장률은 계절조정계열된 전분기 대비 연율임. 단, 중국은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고 연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91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일본 외 39개국 / 신흥국: 러시아, 중국, 브라질 외 152개국 / 유로: 리투아니아 포함 19개국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8, 4)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8, 2)

3) 중국 국가통계국(2018, 1)

4) 일본 내각부(2018, 3)

5) Eurostat(2018, 3)

■ 2017년 4/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¹⁾는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로 지역의 상승세로 전분기 대비 0.1 상승한 100.1을 기록함

- 미국과 유로지역은 전분기보다 0.1 상승하여 각각 99.8, 100.6을 기록함
- 일본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와 동일한 100.1로 3분기 동안 변화가 없음
-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0.1 하락하여 99.2를 나타냄

〈표 2〉 OECD 경기선행지수¹⁾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 ²⁾	99.4	99.4	99.6	99.7	99.5	99.8	99.9	100.0	100.1	99.9
선진국 ³⁾	99.6	99.5	99.6	99.8	99.6	99.9	100.0	100.1	100.1	100.0
미국	99.1	99.0	99.1	99.4	99.1	99.7	99.7	99.7	99.8	99.7
유로지역	100.1	99.9	99.8	99.9	99.9	100.1	100.3	100.5	100.6	100.4
일본	99.7	99.6	99.6	99.9	99.7	100.0	100.1	100.1	100.1	100.1
중국	99.4	99.5	99.6	99.5	99.5	99.4	99.3	99.3	99.2	99.3

주: 1) 2007년 1월=100, 월간자료를 분기는 3개월, 연간은 12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OECD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3) OECD 국가

자료: OECD

■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신흥국의 무역규모 증가율 둔화로 인해 4/4분기 4.7%를 기록하며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함

- 선진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7%p 상승한 4.9%를 기록함
-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4.5%로 전분기보다 2.0%p 하락함

1) 2007년 1월=100을 기준으로 6개월 후의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지수가 전월보다 올라가면 경기 상승, 내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함

〈표 3〉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1),2)}

(단위: %)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	0.7	1.9	1.2	2.2	1.5	3.9	4.3	5.1	4.7	4.5
선진국	1.5	1.6	1.6	1.8	1.6	2.2	3.6	4.2	4.9	3.8
신흥국	-0.5	2.2	0.6	2.7	1.3	6.4	5.3	6.5	4.5	5.7

주: 1) 선진국은 미국, 일본, 유로지역 19개국과 기타 국가로 구성되고, 신흥국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국가로 구성됨

2) 전년동기 대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2017년 4/4분기 전년동기 대비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동반 상승으로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3.7%를 기록함

○ 선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신흥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5.0%를 나타냄

○ 두바이 현물지수와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현물지수는 전분기보다 각각 8.9, 7.7 상승한 61.1, 57.4이고, CRB 상품지수²⁾는 7.8 상승하여 187.2를 기록함

〈표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

구분	소비자물가 상승률 ¹⁾ (%)					구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²⁾				
	2017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	4.0	3.7	3.6	3.7	3.9	두바이 현물지수	52.7	48.8	52.2	61.1	53.7
선진국	1.9	1.6	1.7	1.7	1.7	WTI 현물지수	52.5	47.9	49.7	57.4	51.9
신흥국	5.4	5.0	4.8	5.0	5.3	CRB 상품지수 ²⁾	189.9	179.5	179.4	187.2	184.0

주: 1)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2) 1967=100 기준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한국은행; Bloomberg

2) 국제적인 상품가격 조사회사인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만든 지수로, 1956년에 첫 발표된 가장 오래된 상품지수임. CRB 지수는 2005년에 결정된 비중에 따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를 비롯해 천연가스, 금, 구리, 니켈, 설탕, 커피, 옥수수, 밀, 오렌지주스, 돼지고기 등 19개의 원자재 선물가격 평균을 상품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농산물 비중이 가장 큼

가. 미국경제

- 2017년 4/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수출 감소로 인해 전분기보다 0.7%p 하락한 2.5%를 기록함
 - 민간소비(3.8%)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상승하고 민간투자(3.5%)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하락함
 - 수입 증가율(14%)이 수출 증가율(7.1%)을 크게 앞서 순수출이 감소함
- 2017년 4/4분기 주요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소매판매 증가율(2.5%)과 소비자신뢰지수(126.0) 모두 전분기 대비 상승함
 - 산업생산 증가율(2.0%)과 설비가동률(77.5), 경기선행지수(106.5)는 전분기보다 상승한 반면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58.7)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함
 - 실업률(4.1%)은 전분기보다 하락하고, 취업자 수(66만 2천 명)는 전분기보다 다소 증가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2.1%)과 생산자물가 상승률(3.5%)은 모두 상승함
- 2017년 12월 FOMC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4/4분기 국채금리(3년물 1.81%, 10년물 2.37%)는 전분기보다 상승함

〈경제성장〉

- 2017년 4/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수출 감소로 인해 전분기보다 0.7%p 하락한 2.5%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자동차 및 관련 부품 등 재화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분기보다 1.6%p 상승한 3.8%를 기록함³⁾
 - 민간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3.8%p 하락한 3.5%를 나타냄
 - 수출입 모두 증가하였으나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5%p 상승하고,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4.7%p 상승하여 순수출이 감소함
 - 정부지출은 전분기보다 2.2%p 상승한 2.9%를 기록함

3) 남정옥·김성택(2018. 1. 27), “미국 '17년 4분기 GDP 실적 평가 및 전망”, 국제금융센터

〈표 5〉 미국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질 GDP	0.6	2.2	2.8	1.8	1.5	1.2	3.1	3.2	2.5	2.3
민간소비	1.8	3.8	2.8	2.9	2.7	1.9	3.3	2.2	3.8	2.7
재화	2.1	6.0	3.2	4.7	3.7	0.7	5.4	4.5	7.5	3.8
서비스	1.7	2.8	2.7	2.1	2.3	2.5	2.3	1.1	2.1	2.2
민간투자	-4.0	-2.7	2.4	8.5	-1.6	-1.2	3.9	7.3	3.5	3.2
설비	-4.0	3.3	3.4	0.2	-0.6	7.2	6.7	4.7	6.6	4.7
주택	13.4	-4.7	-4.5	7.1	5.5	11.1	-7.3	-4.7	13.0	1.8
수출	-2.6	2.8	6.4	-3.8	-0.3	7.3	3.5	2.1	7.1	3.4
수입	-0.2	0.4	2.7	8.1	1.3	4.3	1.5	-0.7	14.0	3.9
정부지출	1.8	-0.9	0.5	0.2	0.8	-0.6	-0.2	0.7	2.9	0.1

주: 전분기 대비 연율화한 수치임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8, 2), BEA

〈소비부문〉

- 2017년 4/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 대비 모두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1.4%p 상승한 2.5%를 나타냄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 대비 5.7 상승한 126.0을 기록함
- 2017년 4/4분기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과 주택가격지수는 모두 전분기 대비 상승함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6.7%p 상승한 7.2%를 나타냄
 - 주택가격지수는 전분기보다 1.5 상승한 204.1을 기록함

〈표 6〉 미국의 주요 소비부문 지표

구분	2016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0.1	1.5	0.9	1.3	2.9	1.4	0.3	1.1	2.5	4.6	2.6	-0.1
소비자신뢰지수 ²⁾	96.0	94.8	100.7	107.8	99.8	117.5	118.1	120.3	126.0	120.5	124.3	130.8
신규주택착공호수 ³⁾ (%)	2.6	0.4	-0.7	8.6	6.3	-0.9	-5.7	0.5	7.2	2.6	9.9	-7.0
주택가격지수 ⁴⁾	183.2	188.2	191.3	191.9	188.7	193.9	198.9	202.6	204.1	199.9	205.1	n.a.

주: 1) 계절조정, 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2) Conference Board 1985=100

3) 계절조정, 전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4)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절조정, 2000. 1=100

자료: U.S. Census Bureau; Bloomberg; S&P Dow Jones Indices

〈생산부문〉

■ 2017년 4/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 설비가동률, 경기선행지수는 상승하고 제조업 구매자관리 지수(PMI)⁴⁾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함

-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3%p 상승한 2.0%를 나타냄
- 설비가동률은 전분기보다 1.3 상승한 77.5를 기록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인 58.7임
-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 대비 2.1 상승한 106.5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지속함

〈표 7〉 미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6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산업생산 증가율 ¹⁾ (%)	-0.3	-0.2	0.2	0.2	-1.2	0.4	1.4	-0.3	2.0	2.0	-0.3	1.1
설비가동률 ²⁾	75.8	75.7	75.8	75.8	75.7	75.8	76.6	76.2	77.5	76.5	77.4	78.1
ISM제조업PMI	49.5	51.4	51.4	53.2	51.4	56.6	55.8	58.7	58.7	57.4	59.1	60.8
경기선행지수 ³⁾	99.2	99.7	100.3	100.8	100.0	102.2	103.3	104.4	106.5	104.1	108.0	108.7

주: 1) 전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2) 2007=100

3) 2016=100

자료: Bloomberg

4)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는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지수임

〈고용 및 물가〉

- 2017년 4/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하고, 취업자 수는 전분기 대비 증가함
 -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2%p 하락한 4.1%를 기록하여 1960년대 이후 최저 수준과 유사하며, 포괄적 실업률은 8.0%로 전분기 대비 0.5%p 하락함⁵⁾
 - 비농업취업자는 66만 2,000명으로 전분기보다 23만 7,000명이 증가하고,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3만 9,000명으로 전분기보다 10,000명 감소함
- 2017년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 대비 상승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 대비 0.2%p 상승한 2.1%이며,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0.1%p 상승한 1.8%를 기록함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전분기 대비 0.7%p 상승하였고,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1%로 0.3%p 상승함

〈표 8〉 미국의 주요 고용 및 물가 지표

(단위: %, 만 명)

구분	2016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실업률 ¹⁾	4.9	4.9	4.9	4.7	4.9	4.7	4.3	4.3	4.1	4.4	4.1	4.1
포괄적 실업률(u-6) ²⁾	9.8	9.7	9.7	9.3	9.6	9.1	8.5	8.5	8.0	8.5	8.2	8.2
비농업취업자 증감 ³⁾	59.5	49.3	76.4	49.2	234.4	53.2	56.9	42.5	66.2	218.8	239	313
실업수당 청구자 수 ⁴⁾	27.2	26.8	25.8	25.3	26.3	24.6	24.2	24.9	23.9	24.4	23.5	22.1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1.1	1.0	1.1	1.8	1.3	2.5	1.9	1.9	2.1	2.1	2.1	2.2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2.2	2.2	2.2	2.1	2.2	2.2	1.8	1.7	1.8	1.9	1.8	1.8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1.8	-1.9	-1.3	1.0	-1.0	3.5	3.0	2.8	3.5	3.2	3.0	2.7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1.6	1.6	1.3	1.6	1.5	1.7	1.9	1.8	2.1	1.9	1.9	1.9

주: 1) 16세 이상, 계절조정,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2)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16세 이상, 계절조정,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3) 전분기 대비 증감,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4) 해당 기간의 청구자 수 평균

5) 1982~84=100, 전년동기(월) 대비

6) 1982=100, 전년동기(월) 대비

자료: Bloomberg

5) IMF(2018, 4), *World Economic Outlook*

〈국채금리〉

- 2017년 4/4분기 국채금리(3년물, 1.81%, 10년물, 2.37%)는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31bp 상승한 1.81%,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13bp 상승한 2.37%임
 - 2017년 12월 FOMC는 정책금리를 25bp 인상하고 이와 같은 통화정책이 견조한 고용시장을 뒷받침할 것이라 명시함⁶⁾
 - FOMC는 고용시장에 대해 “허리케인으로 고용자 수는 감소했다”에서 “허리케인에 의한 영향을 평균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일자리 증가는 견조했다”고 평가를 수정하고 전반적인 경제활동 평가에서 “허리케인 피해에도 불구하고”와 같은 표현을 삭제함

〈표 9〉 미국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국채 3년물	1.02	0.91	0.84	1.23	1.00	1.51	1.46	1.50	1.81	1.57	2.14	2.35
국채 10년물	1.92	1.74	1.56	2.13	1.84	2.44	2.26	2.24	2.37	2.33	2.58	2.86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6) 김윤경 · 권도현 · 김효진(2017. 12. 14), “[12월 FOMC] 견고한 고용시장 등으로 금리인상”, 국제금융센터

나. 중국경제

- 2017년 4/4분기 중국의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수출 증가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하락으로 전분기보다 0.2%p 하락한 1.6%를 기록함
- 2017년 4/4분기 중국의 주요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소매판매 증가율(9.9%)은 전분기 대비 하락한 반면, 소비자신뢰지수(122.6)는 전분기 대비 상승함
 - 산업생산 증가율(6.2%)과 구매자관리지수(51.7)는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함
 -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1.8%)은 소폭 상승한 반면, 생산자물가 상승률(5.9%)은 하락함
- 2017년 4/4분기 국제금리는 전분기 대비 상승하였고,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전분기보다 하락함

〈경제성장〉

- 2017년 4/4분기 중국의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수출 증가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하락으로 전분기보다 0.2%p 하락한 1.6%를 기록함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증가율보다 0.7%p 하락한 7.2%를 기록함
 - 제조업 투자 부진 영향으로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하락하였으며 이는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임⁷⁾
 - 수출 증가율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전분기보다 3.2%p 상승한 9.6%를 나타냄⁸⁾
 - 2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에서 벗어나 대(對) 선진국과 신흥국 수출 모두 증가함
 - 수입 증가율은 13.1%로 전분기 대비 1.3%p 하락함

7) 김성택·남경옥(2017. 12. 20), “17년 중국경제 동향 및 ’18년 전망”, 국제금융센터

8) 자본시장연구원(2018. 3), 『자본시장리뷰 2018년 봄호』

〈표 10〉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실질 GDP ¹⁾	1.3 (6.7)	1.9 (6.7)	1.8 (6.7)	1.7 (6.8)	6.7	1.4 (6.9)	1.9 (6.9)	1.8 (6.8)	1.6 (6.8)	6.9	n.a.	n.a.
고정자산투자 ²⁾	10.5	9.7	8.1	8.2	9.0	9.1	8.7	7.9	7.2	8.1	7.9 ³⁾	
수출 증가율 ⁴⁾	-11.9	-6.3	-6.9	-5.2	-7.6	6.5	8.1	6.4	9.6	7.7	11.2	44.5
수입 증가율 ⁴⁾	-13.9	-6.9	-4.1	2.3	-5.6	25.3	14.1	14.4	13.1	16.7	36.8	6.3

주: 1) 전분기 대비, 괄호 안은 전년동기 대비

2) 도시지역 기준

3) 1~2월 누적치

4) 전년동기(월) 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2018. 1); Bloomberg

〈소비부문〉

■ 2017년 4/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하락하고,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4%p 하락한 9.9%를 나타냄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6.6 상승한 122.6을 기록함

〈표 11〉 중국의 주요 소비 관련 지표

구분	2016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10.5	10.2	10.5	10.6	10.4	10.9	10.8	10.3	9.9	10.4	n.a.	n.a.
소비자신뢰지수	102.8	101.2	105.7	108.1	104.4	112.0	114.8	116.0	122.6	116.3	122.3	n.a.

주: 1) 전년동기(월) 대비

2) ECI(Entrepreneurs Confidence Index): 0부터 200까지 값을 갖는데 100~200일 경우 중국 기업가들(건설, 도매 등 8개 섹터 21,000개 기업)이 기업경기가 긍정적인 것으로, 0~100일 경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생산부문〉

- 2017년 4/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과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는 모두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함
 - 전년동기 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1%p 하락한 6.2%를 기록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51.7로 전분기보다 0.1 하락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는 2016년보다 1.3 상승했지만, 4/4분기 중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둔화됨⁹⁾

〈표 12〉 중국의 주요 생산 관련 지표

구분	2016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산업생산 증가율 ¹⁾ (%)	6.8	6.1	6.1	6.1	6.2	7.6	6.9	6.3	6.2	6.6	n.a.	n.a.
제조업PMI ²⁾	49.5	50.1	50.2	51.4	50.3	51.6	51.4	51.8	51.7	51.6	51.3	50.3

주: 1) 전년동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년동월 대비

2)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50을 기준으로 하며 50 초과는 제조업이 전년 대비 확대를 의미하며 50 미만은 전년 대비 축소를 의미하고 50은 변화 없음을 나타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고용¹⁰⁾ 및 물가〉

- 2017년 4/4분기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승,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하락함¹¹⁾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계절적 영향으로 인한 식품가격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 0.2%p 상승한 1.8%를 기록함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건설 관련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분기보다 0.3%p 하락하여 5.9%를 기록함

9) 김성택·남경옥(2017. 12. 20), “17년 중국경제 동향 및 ’18년 전망”, 국제금융센터

10) 중국 고용의 경우 통계청이 실업률을 집계하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실업자가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하므로 통계 자료가 정확하지 않음. 또한 중국 고용지표 발표가 불규칙하여 본고에서는 생략함

11) 자본시장연구원(2018. 3), 『자본시장리뷰 2018년 봄호』

〈표 13〉 중국의 주요 물가 지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1	2.1	1.7	2.2	2.0	1.4	1.4	1.6	1.8	1.6	1.5	2.9
생산자물가 상승률	-4.8	-2.9	-0.8	3.3	-1.3	7.4	5.8	6.2	5.9	6.3	4.3	3.7

주: 전년동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월별통계는 전년동월 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국채금리 및 환율〉

■ 2017년 4/4분기 국채금리는 전분기 대비 상승하였고,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전분기 대비 하락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19bp 상승한 3.95%, 국채 10년물 금리는 2bp 상승한 4.8%임
-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전분기보다 0.87% 하락한 6.613위안/달러임

〈표 14〉 중국의 국채금리와 환율 지표

(단위: %, 위안)

구분	2016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국채 3년물	3.90	3.34	2.86	3.25	3.34	4.16	4.16	3.76	3.95	4.01	4.20	4.11
국채 10년물	3.83	3.68	3.24	3.48	3.56	4.25	4.50	4.06	4.08	4.22	4.31	4.31
위안/달러	6,540	6,533	6,667	6,833	6,644	6,889	6,862	6,671	6,613	6,758	6,429	6,322

주: 금리는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다. 일본경제

- 2017년 4/4분기 일본경제는 민간소비 증가 등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2%p 하락한 0.4%를 기록함
- 2017년 4/4분기 일본의 주요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광공업생산 증가율(1.8%)은 전분기 대비 대폭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1.4%)과 소비자신뢰지수(44.7)는 모두 전분기보다 상승함
 - 전년동기 대비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2.5%)과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0.3%)은 동반 하락함
 - 실업률(2.7%)은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하고 유효구인배율(1.60배)은 전분기 대비 상승함
 -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0.6%)은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 2017년 4/4분기 국채금리(3년물 -0.13%, 10년물 0.05%)는 소폭 변화하여 전분기와 유사함

〈경제성장〉

- 2017년 4/4분기 일본경제는 민간소비 증가 등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2%p 하락한 0.4%를 기록함¹²⁾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1.1%p 상승한 0.5%를 기록함
 - 임금 및 고용여건 개선, 주가 상승 등 소비심리 회복으로 전기 대비 증가 전환함
 - 설비투자 증가율은 1%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함
 - 주택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9%p 하락한 -2.6%를 기록함
 - 공공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2.4%p 상승한 -0.2%를 나타냄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3%p 상승한 2.4%를 기록하였고,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4.1%p 상승한 2.9%를 기록함
 - 수출은 세계경기 회복과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자본재 수출이 호조를 보임
 -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1%p 하락한 0.0%를 기록함

12) 손영환(2018. 2. 14), “일본 '17년 4분기 성장률 연율 0.5%로 둔화”, 국제금융센터

〈표 15〉 일본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질 GDP	-0.3 (-1.1)	1.4	0.7 (2.7)	0.3 (1.3)	0.2 (0.9)	0.3 (1.1)	0.9	0.5 (1.9)	0.6 (2.4)	0.6 (2.4)	0.4 (1.6)	1.7
민간소비	-0.6	0.0	0.2	-0.1	0.4	0.0	0.1	0.3	0.9	-0.6	0.5	1.1
설비투자	0.3	3.4	-0.4	0.4	-0.2	1.5	0.6	0.2	1.2	1.0	1.0	3.0
주택투자	-0.2	-1.0	1.4	2.1	2.5	0.8	5.6	1.2	0.9	-1.7	-2.6	2.6
공공투자	-0.9	-1.7	-0.1	2.4	0.2	-1.9	-0.1	-0.2	4.8	-2.6	-0.2	1.2
수출	-0.7	2.9	0.0	-0.5	2.3	2.7	1.3	2.0	0.0	2.1	2.4	6.8
수입	-0.7	0.8	-1.7	-0.9	0.2	0.6	-1.9	1.7	1.9	-1.2	2.9	3.6
정부지출	0.9	1.5	1.1	-1.1	0.4	-0.2	1.3	0.1	0.2	0.1	0.0	0.1

주: 전분기 대비이며, 괄호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 대비 연율
 자료: 일본 내각부(2018. 3)

〈소비 및 생산부문〉

- 2017년 4/4분기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1.8%로, 전분기보다 1.4%p 상승함
- 2017년 4/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는 모두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5%p 상승한 1.4%임
 - 소비자신뢰지수는 44.7로 전분기보다 1 상승함
- 2017년 4/4분기 전년동기 대비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과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은 동반 하락함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0.1%p 하락한 -2.5%를 나타냄
 -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2.5%p 하락한 0.3%를 기록함

〈표 16〉 일본의 주요 소비 및 생산 지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광공업생산 증가율 ¹⁾	-0.9	0.2	1.6	1.9	-0.2	0.2	2.1	0.4	1.8	4.7	-6.6	n.a.
소매판매 증가율 ²⁾	-1.3	0.0	0.5	1.5	-0.6	-0.2	0.7	-0.1	1.4	1.9	-1.8	n.a.
소비자신뢰지수 ³⁾	41.3	41.2	42.1	42.2	41.7	43.4	43.4	43.7	44.7	43.8	44.7	44.3
주택착공호수 증가율 ⁴⁾	5.5	4.9	7.1	7.9	6.4	3.2	1.1	-2.4	-2.5	-0.3	-13.2	n.a.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⁵⁾	4.4	-5.2	3.9	0.4	1.7	-1.2	-3.4	2.8	0.3	-1.1	-20.1	n.a.

주: 1)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2) 전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3) 기준치=50, 기간 중 평균

4) 전년동기(월) 대비

5)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분기 대비,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내각부; 총무성

〈고용 및 물가〉

■ 2017년 4/4분기 전분기 대비 실업률은 소폭 하락하고 유효구인배율¹³⁾은 상승함

○ 실업률은 2.7%를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0.1%p 하락함

○ 유효구인배율은 1.60배로 전분기 대비 높아지며 상승세를 지속함

■ 2017년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함

○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0.1%를 나타냄

〈표 17〉 일본의 주요 고용 및 물가 지표

(단위: %, 배, %)

구분	2016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실업률	3.2	3.1	3.0	3.1	3.1	2.9	2.9	2.8	2.7	2.8	2.4	2.5
유효구인배율 ¹⁾	1.30	1.35	1.37	1.40	1.40	1.44	1.49	1.52	1.60	1.50	1.59	1.58
소비자물가 상승률 ²⁾	0.0	-0.4	-0.5	0.3	-0.1	0.3	0.4	0.6	0.6	0.5	1.4	1.5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 ²⁾	0.6	0.5	0.2	0.1	0.3	-0.1	-0.2	0.0	0.1	-0.1	0.1	0.3

주: 1) 구인 수/구직자 수, 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2) 2015=100, 전년동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년동월 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일본 후생노동성; 총무성; Bloomberg

13) 유효구인배율 = 구인자 수 / 구직자 수

〈국채금리〉

■ 2017년 4/4분기 국채금리는 일본은행(BOJ)의 기존 통화정책¹⁴⁾ 유지 결정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2bp 하락한 -0.13%,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분기와 같은 0.05%임
- 일본은행(BOJ)은 2018년 1월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설 수 있으나, 금년 중 개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힘¹⁵⁾

〈표 18〉 일본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국채 3년물	-0.13	-0.24	-0.24	-0.19	-0.20	-0.18	-0.15	-0.11	-0.13	-0.14	-0.10	-0.11
국채 10년물	0.07	-0.11	-0.12	0.00	-0.04	0.08	0.04	0.05	0.05	0.06	0.08	0.07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14) 단기금리 -0.1%, 장기(10년)금리 0%대로 국채수익률 곡선을 관리하는 정책임

15) 손영환(2018. 1. 23), “BOJ: 성장 및 물가 전망치 유지”, 국제금융센터

라. 유로지역¹⁶⁾경제

- 2017년 4/4분기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p 하락한 0.6%를 기록함
- 2017년 4/4분기 유로지역 주요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경기체감지수(114.3)와 산업생산 증가율(1.5%)은 전분기보다 상승함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의 전년동기 대비 실업률(5.6%)과 북유럽(6.1%)과 동유럽(5.3%), 남유럽(14.2%) 국가의 실업률은 모두 전분기 대비 하락함
 - 주요국(2.0%)의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하고, 북유럽(1.2%)국가는 하락, 동유럽(2.0%) 국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승, 남유럽(1.3%) 국가는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 2017년 4/4분기 유로지역 주요국 평균 국채금리(독일 3년물 -0.62%, 독일 10년물 0.38%, 영국 3년물 0.52%, 영국 10년물 1.28%)는 전분기 대비 소폭 변화함

〈경제성장〉

- 2017년 4/4분기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의 경우, 독일, 이탈리아, 영국은 하락하고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며 전분기 대비 0.1%p 하락한 0.6%를 기록함(〈표 19〉, 〈표 22〉 참조)
 -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스페인은 0.7%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프랑스는 0.2%p 상승한 0.7%를 기록한 반면 독일, 이탈리아, 영국은 전분기보다 0.1%p 하락하여 각각 0.6%, 0.3%, 0.4%를 기록함
 - 4/4분기 유로지역 고용 개선 및 가계와 기업심리 개선 등으로 인한 소비와 투자 증가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함¹⁷⁾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0.2%를 기록함
 - 고정자본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1%p 상승한 0.9%를 나타냄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3%p 상승한 1.9%를 기록함
 - 수입 증가율의 경우 전분기 대비 0.5%p 상승한 1.1%를 나타냄
 -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1%p 하락한 0.3%를 기록함

16) 유로지역(Euro Area) 19개국

17) 자본시장연구원(2018. 3), 『자본시장리뷰 2018년 봄호』

〈표 19〉 유로지역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¹⁾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질 GDP	0.4 (1.7)	2.1	0.5 (2.1)	0.4 (1.4)	0.4 (1.6)	0.6 (2.6)	1.8	0.6 (2.5)	0.7 (3.0)	0.7 (2.8)	0.6 (2.4)	2.3
민간소비	0.5	1.8	0.7	0.3	0.3	0.5	2.0	0.5	0.5	0.3	0.2	1.6
고정자본투자	1.4	3.3	0.5	2.4	0.7	0.8	4.6	0.2	1.7	-0.2	0.9	3.5
수출	1.1	6.4	0.4	1.3	0.4	1.6	3.4	1.3	1.2	1.6	1.9	4.9
수입	1.8	6.7	0.4	2.0	0.6	1.8	4.8	0.2	1.8	0.6	1.1	4.4
정부지출	0.4	1.3	0.8	0.3	0.2	0.3	1.8	0.2	0.4	0.4	0.3	1.2

주: 1) 전분기 대비이며, 괄호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 대비 연율
 자료: Eurostat(2018, 3)

〈소비 및 생산부문〉

■ 2017년 4/4분기 유로지역 ESI(경기체감지수)는 114.3으로 전분기 대비 2.8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0.4%를 기록함

○ 소비자신뢰지수는 4/4분기 -0.2로 상승세를 지속함

■ 2017년 4/4분기 유로지역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2%p 상승한 1.5%를 나타냄

〈표 20〉 유로지역의 주요 소비 및 생산 지표¹⁾

구분	2016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유로 지역 ESI ²⁾	103.4	103.7	103.7	106.4	104.3	107.5	109.5	111.5	114.3	110.7	114.9	114.1
소매판매 증가율 ³⁾ (%)	0.5	0.3	0.6	1.0	1.7	0.2	0.8	0.5	0.4	2.3	-0.1	n.a.
소비자신뢰지수 ⁴⁾	-8.3	-7.9	-8.3	-6.6	-7.8	-5.5	-2.7	-1.5	-0.2	-2.5	1.4	0.1
산업생산 증가율 ⁵⁾ (%)	1.2	-0.4	0.4	1.0	1.6	0.1	1.2	1.3	1.5	2.9	-1.0	n.a.

주: 1) 전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2)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 40%, 서비스업 30%, 소비자 신뢰 20%, 건설업 5%, 소매거래 5%임

3) 계절조정 2005=100

4)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5) 비계절조정 2005=100

자료: Bloomberg

〈고용 및 물가¹⁸⁾〉

■ 2017년 4/4분기 유럽 주요국과 나머지 지역의 실업률은 전분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¹⁹⁾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의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2%p 하락한 5.6%를 기록함
- 북유럽의 실업률(6.1%)은 전분기보다 0.2%p 하락하였고 동유럽의 실업률(5.3%)은 0.4%p, 남유럽의 실업률(14.2%)은 0.2%p 하락함

■ 2017년 4/4분기 주요국과 동유럽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 대비 상승한 반면, 북유럽은 하락, 남유럽은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함

- 유럽 주요국의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2.0%를,²⁰⁾ 동유럽은 전분기보다 0.4%p 상승한 2.0%를 기록함
- 북유럽의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3%p 하락한 1.2%이고, 남유럽은 1.3%를 기록하며 전분기와 동일함

〈표 21〉 유럽 권역별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분기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주요국 ¹⁾	북유럽 ²⁾	동유럽 ³⁾	남유럽 ⁴⁾	주요국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2017년 2/4	5.9	6.4	5.8	14.8	1.8	1.4	1.3	1.7
2017년 3/4	5.8	6.3	5.7	14.4	1.8	1.5	1.6	1.3
2017년 4/4	5.6	6.1	5.3	14.2	2.0	1.2	2.0	1.3

주: 1) 주요국: 독일, 프랑스, 영국

2)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3)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4)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5) 전년동기 대비

자료: Eurostat(2018, 4)

18) 유로지역 19개국 분류가 아닌 유럽 권역별 분류 데이터를 사용함

19) ECB(2018, 3), *ECB Staff Macroeconomic Projections for the Euro Area*

20) ECB(2018, 4), *Annual Report 2017*

〈표 22〉 주요 유로지역 국가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독일	실질 GDP	0.4	1.7	0.6	0.5	0.3	0.4	1.9	0.9	0.6	0.7	0.6	2.2
	민간소비	0.6	1.7	0.6	0.2	0.4	0.6	2.1	0.8	0.9	-0.2	0.0	1.9
	고정자본투자	2.5	1.5	1.2	-1.2	0.5	0.0	3.1	2.6	1.5	0.4	0.0	3.3
	수출	-0.5	5.2	1.0	1.3	-0.2	1.3	2.6	1.7	1.0	1.8	2.7	4.7
	수입	0.7	5.6	1.7	-0.2	0.7	2.5	3.9	0.4	2.4	1.1	2.0	5.1
프랑스	실질 GDP	0.2	1.1	0.6	-0.1	0.2	0.5	1.2	0.7	0.6	0.5	0.7	1.8
	민간소비	0.2	1.4	1.3	0.3	-0.2	0.7	2.2	0.2	0.3	0.5	0.2	1.1
	고정자본투자	1.2	1.0	1.1	0.1	0.3	0.5	2.8	1.7	0.9	0.9	1.1	3.5
	수출	0.7	4.3	0.4	-0.2	1.0	1.0	1.8	-0.7	2.2	1.0	2.5	3.1
	수입	2.6	5.7	0.5	-1.0	2.8	0.8	4.2	1.2	0.0	2.2	0.3	4.0
이탈리아	실질 GDP	0.2	1.0	0.3	0.1	0.2	0.4	0.9	0.5	0.4	0.4	0.3	1.5
	민간소비	0.4	1.9	0.2	0.2	0.3	0.3	1.4	0.6	0.1	0.4	0.1	1.3
	고정자본투자	0.4	2.1	1.0	-0.2	2.0	2.5	3.2	-2.1	1.5	3.2	1.7	3.7
	수출	1.8	4.4	-0.7	1.8	0.9	1.9	2.4	1.9	0.2	2.0	2.0	5.4
	수입	2.3	6.8	-0.7	2.0	1.0	2.3	3.5	0.2	2.0	1.9	1.0	5.3
스페인	실질 GDP	0.9	3.4	0.7	0.8	0.7	0.7	3.3	0.8	0.9	0.7	0.7	3.1
	민간소비	0.5	3.0	1.0	0.6	0.8	0.4	3.0	0.4	0.8	0.7	0.6	2.4
	고정자본투자	0.8	6.5	0.6	1.6	-0.3	0.8	3.3	2.8	0.6	1.4	0.7	5.0
	수출	0.8	4.2	1.4	2.1	-0.5	1.5	4.8	2.4	1.0	0.6	0.3	5.0
	수입	-0.2	5.9	0.8	1.9	-1.7	0.6	2.7	3.7	0.5	1.0	0.0	4.7
영국	실질 GDP	0.7	2.3	0.2	0.5	0.5	0.7	1.9	0.2	0.3	0.5	0.4	1.7
	민간소비	0.4	2.6	0.7	1.0	0.8	0.3	2.9	0.4	0.3	0.4	0.3	1.7
	고정자본투자	0.1	2.8	0.7	2.0	1.1	0.7	1.8	0.8	1.2	0.7	1.1	3.9
	수출	1.9	5.0	-1.5	2.8	-1.8	5.2	2.3	0.0	1.7	0.2	-0.2	5.0
	수입	3.2	5.1	0.2	1.0	3.3	-1.0	4.8	1.0	0.5	1.0	1.5	3.5

주: 전분기 대비

자료: Eurostat(2018, 3)

〈국채금리〉

- 2017년 4/4분기 영국의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독일의 국채금리는 하락함
- 독일의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5bp 하락한 -0.62%, 10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7bp 하락한 0.38%를 기록함
 - 영국의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18bp 상승한 0.52%, 10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10bp 상승한 1.28%임
 - 2017년 11월 영국중앙은행(BOE)은 계속된 파운드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승하자 10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함²¹⁾

〈표 23〉 유로지역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독일국채 3년물	-0.44	-0.53	-0.66	-0.68	-0.58	-0.71	-0.67	-0.57	-0.62	-0.64	-0.47	-0.33
독일국채 10년물	0.32	0.12	-0.07	0.19	0.14	0.36	0.31	0.45	0.38	0.37	0.55	0.72
영국국채 3년물	0.60	0.57	0.16	0.23	0.39	0.22	0.21	0.34	0.52	0.32	0.62	0.80
영국국채 10년물	1.56	1.37	0.72	1.25	1.22	1.28	1.06	1.18	1.28	1.20	1.33	1.56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21) 김위대(2017. 12. 19), “2018년 유럽 권역별 경제 전망”, 국제금융센터

2. 국내경제

- 2017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8%, 전분기 대비 -0.2%를 기록함
 - 민간소비(3.4%)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설비투자(8.6%)와 건설투자(3.8%)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0.6%)이 감소함
- 2017년 4/4분기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소매판매는 소비심리 지속, 물가안정과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실질 구매력이 증가하여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함
 -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 등으로 8.6% 증가하였으며, 건설투자는 정부의 주택안정화정책과 토목건설 부진 심화 등으로 3.8% 증가에 그침
 - 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생산(0.9%)의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광공업 생산(-3.8%)이 수출 부진, 자동차 생산 및 부품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하여 0.7% 감소함
 - 총취업자 수는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어 전년동기 대비 1.0% 증가에 그쳤으며, 고용률은 전분기 대비 0.4%p 감소한 61.0%, 실업률은 0.2%p 감소한 3.2%를 기록함
 -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 하락, 도시가스요금 인하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5% 상승하였고,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분기 대비 1.2 상승한 110.5를 기록함
 -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IT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8.4%(1,435억 달러) 증가하였고 수입은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로 11.6%(1,234억 달러) 증가에 그쳐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3.1%, 실질소득은 1.6% 증가하여 9분기만에 증가 전환함
- 2017년 4/4분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전분기 대비 0.4 하락한 100.7, 100.4를 기록함
- 2017년 4/4분기 국내경제는 민간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와 추석명절 장기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투자와 생산이 크게 위축되었고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어 성장세가 둔화됨

가. 경제성장

■ 2017년 4/4분기 국내총생산은 민간소비, 지식생산물투자의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설비투자, 건설투자의 증가세 둔화와 수출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2.8% 증가하였고, 전분기 대비로는 0.2% 감소함

○ 민간소비는 준내구재(의류 등)와 비내구재(식료품, 도시가스 등)를 중심으로 3.4% 증가함 (〈표 25〉 참조)

○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 8.6% 증가하였고 건설투자는 건물 및 토목건설 중심으로 3.8% 증가함(〈표 26〉 참조)

○ 지식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3.5% 증가함

○ 수출은 추석명절 장기연휴에 따른 통관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²²⁾ 0.6% 감소하였고, 수입은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4.1% 증가함

■ 2017년 연간 국내총생산은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건설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 전환하여 전년 대비 3.1% 증가함

○ 건설투자(7.6%)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설비투자(14.6%)가 큰 폭으로 증가 전환하여 민간소비(2.6%)와 수출(1.9%) 부진을 상쇄함

○ 지출항목별 연간 성장기여도는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가 각각 1.2%p, 순수출이 -1.7%p 등으로 나타남

〈표 24〉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감률

(단위: %)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질 GDP	3.0 (0.6)	3.5 (0.8)	2.7 (0.4)	2.6 (0.7)	2.9	2.9 (1.0)	2.8 (0.6)	3.8 (1.4)	2.8 (-0.2)	3.1
민간소비	2.4	3.6	2.8	1.4	2.5	2.1	2.4	2.6	3.4	2.6
설비투자	-3.6	-1.6	-2.5	3.3	-1.0	16.1	17.9	16.3	8.6	14.6
건설투자	8.4	9.4	11.0	11.9	10.3	11.3	8.5	8.0	3.8	7.6
지식생산물투자	2.0	4.0	4.0	3.8	3.5	3.2	2.2	2.9	3.5	3.0
수출	1.7	3.0	4.2	1.3	2.6	3.7	0.3	4.4	-0.6	1.9
수입	3.4	5.1	7.0	3.5	4.7	10.1	6.6	7.4	4.1	7.0

주: 2008 SNA, 2010년 연쇄가격 기준, 원계열 전년동(분)기 대비 증감률, 괄호는 계절조정계열 전분기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22) 국회예산처(2018. 3), 『2018 경제전망』

나. 경제동향

〈소비 및 투자〉

- 2017년 4/4분기 소매판매는 소비심리의 지속적인 개선 및 물가안정과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증가하여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하였고, 2018년 1월과 2월에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2%, 6.3% 증가함²³⁾
 - 1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및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관련 가전제품 판매가 확대되어 전월동기 대비 1.2% 증가하였고²⁴⁾ 2월에는 평창올림픽 개최로 인한 야외 활동 증가의 영향으로 주요 유통업체 매출 확대로 전년동월 대비 6.3% 증가함²⁵⁾
 - 2017년 4/4분기 내구재 판매는 승용차 판매 축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3% 증가함
 - 1월에는 승용차 등 내구재(15.6%)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3.3%)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1%) 판매가 감소함
 - 2월에는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0.8%)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 전환하였고, 내구재(0.7%)와 준내구재(1.6%) 판매도 전년동월 대비 증가함
- 2017년 연간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 대비 2.0%p 감소한 1.9%를 기록함
 - 화장품 등 비내구재(1.7%)의 성장이 둔화되고 의복 등 준내구재(-1.1%) 판매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1.9% 증가에 그침

23) 한국은행(2018. 2),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3. 2), “18. 1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2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3. 30), “18. 2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표 25〉 소비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4/4	연간	1/4	2/4	3/4	4/4 ²⁾	연간 ²⁾	1월 ²⁾	2월 ²⁾
민간소비	1.4	2.5	2.1	2.4	2.6	3.4	2.6	-	-
소매판매	2.2	3.9	1.6	1.0	3.2	2.1	1.9	1.2	6.3
내구재	0.3	4.6	3.4	3.8	12.0	2.3	5.4	15.6	0.7
승용차	-3.4	2.8	2.8	-5.6	16.1	-5.9	0.9	20.3	-0.3
준내구재	0.1	2.3	-1.8	-2.3	-0.8	0.6	-1.1	-3.3	1.6
비내구재	4.3	4.2	2.2	1.1	0.9	2.8	1.7	-3.1	10.8

주: 1) 전년동기(월) 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최근 경제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소비 관련 지수 기준연도를 '10년에서 '15년으로 개편함(2018. 2)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7년 4/4분기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계류 투자의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8.6% 증가함

○ 2017년 4/4분기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7.4%)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항공기 등의 운송장비(-10.8%) 투자가 크게 감소하여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에 그침

- 1월과 2월에는 기계류와 자동차, 선박 등의 운송장비 투자를 중심으로 각각 전년동월 대비 21.6%, 9.7% 증가함²⁶⁾

○ 2017년 4/4분기 설비투자의 선행지수인 국내기계수주²⁷⁾는 제조업 평균가동률 하락²⁸⁾으로 전년동기 대비 4.2% 증가에 그침

- 1월에는 공공 및 전자·영상·음향·통신업 등 민간부문에서 증가하여 국내기계수주는 전년동월 대비 20.9% 증가함

- 2월에는 공공 및 운수업 등 민간부문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 대비 10.9% 감소함²⁹⁾

■ 2017년 연간 설비투자는 항공기 등의 운송장비(-4.4%) 투자가 감소하였으나 특수산업용 기계 등의 기계류(22.4%) 투자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14.6% 증가함

26) 통계청 보도자료(2018. 3. 2), “2018년 1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18. 3. 30), “2018년 2월 산업활동동향”

27) 기계수주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민간수요(제조업, 비제조업), 공공수요로 분류됨

28) 제조업 평균가동률(%), 통계청: ('17. 1/4) 73.5, ('17. 2/4) 72.0, ('17. 3/4) 73.0, ('17. 4/4) 71.8

2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3. 2), “18. 1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3. 30), “18.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 국내기계수주는 공공부문에서 감소하였으나, 전자·영상·음향·통신 등 민간부문에서 증가하여 전년 대비 19.2% 증가함

〈표 26〉 투자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4/4	연간	1/4	2/4	3/4	4/4 ²⁾	연간 ²⁾	1월 ²⁾	2월 ²⁾
설비투자	3.3	-1.0	16.1	17.9	16.4	8.6	14.6	-	-
설비투자지수	5.9	-1.3	18.2	17.8	20.6	2.0	14.1	21.6	9.7
기계류	12.0	-2.2	24.8	34.5	25.5	7.4	22.4	26.8	12.1
운송장비	-6.1	0.9	2.6	-13.5	8.4	-10.8	-4.4	6.4	3.4
국내기계수주 ³⁾	16.7	4.7	21.1	23.7	31.3	4.2	19.2	20.9	-10.9
건설투자	11.9	10.3	11.3	8.5	8.0	3.8	7.6	-	-
건설기성(불변)	17.7	15.4	17.7	13.6	12.7	-0.5	10.1	15.3	0.9
건축	28.7	25.7	26.6	22.9	21.7	5.6	18.2	19.5	4.3
토목	-1.9	-2.6	-1.1	-6.9	-8.9	-14.8	-8.4	3.4	-8.6
국내건설수주(경상)	26.4	8.1	1.2	17.9	-10.2	-15.0	-3.1	39.3	-38.9
건축	40.7	14.4	-7.7	8.4	-8.3	-15.5	-6.5	-12.1	-36.6
토목	-7.8	-10.5	29.7	63.3	-17.3	-13.0	9.7	266.1	-42.6

주: 1) 전년동기(월) 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선박제외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7년 4/4분기 건설투자는 정부의 주택안정화정책과 토목건설 부진 심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어 전년동기 대비 3.8% 증가에 그침³⁰⁾

- 건설기성(불변)³¹⁾은 3/4분기까지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감소세로 전환, 4/4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0.5% 감소함

- 1월에는 신규주택 완공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15.3% 증가하였으나 건설경기선행지표의 부진 등으로 지속가능성이 낮아 보임³²⁾
- 2월에는 신규주택 수주 부진 등의 영향으로 건축이 감소하면서 전년동월 대비 0.9% 증가에 그침³³⁾

30) 국회예산처(2018. 3), 『2018 경제전망』

31) 건설기성은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공사대금의 청구나 수취 여부와는 무관하며 공사비 중 지가를 제외하고 발주자공급 원자재비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임(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용어설명(<http://www.kostat.go.kr>))

32) 통계청 보도자료(2018. 3. 2), “2018년 1월 산업활동동향”

3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3. 30), “18.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경상)는 건축과 토목부문의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 감소함

- 1월에는 주택, 학원·병원 등의 건축부문(-12.1%)이 감소하였으나, 발전·통신, 항만·공항 등의 토목부문(266.1%)이 증가하여 전년동월 대비 39.3% 증가함³⁴⁾

- 2월에는 주택, 사무실·점포 등의 건축부문(-36.6%)과 발전·통신 등의 토목부문(-42.6%)이 모두 감소하여 전년동월 대비 38.9% 감소함³⁵⁾

■ 2017년 연간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7.6% 증가에 그침

○ 건설기성은 건축공사 실적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하였으나 국내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3.1% 감소함

〈산업생산〉

■ 2017년 4/4분기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광공업 생산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0.7% 감소하였으며, 1월과 2월에는 각각 전년동월 대비 4.4% 증가, 0.8% 감소함

○ 2017년 4/4분기 광공업 생산은 수출 부진, 부분파업·휴무 등에 따른 자동차 생산 및 부품수요 감소와 조선업 업황 부진에 따른 기계장비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3.8% 감소함³⁶⁾

- 1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 기저효과와 신차효과 등에 따른 자동차 생산 증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 및 PC용 메모리반도체 수출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생산 증가의 영향으로 전월동기 대비 4.3% 증가함³⁷⁾

- 2월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 생산 감소 등으로 전월동기 대비 6.4% 감소함

○ 2017년 4/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의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증가세가 확대되어 전년동기 대비 0.9% 증가함

- 1월에는 전문·과학·기술업, 수출입 관련 운수·창고업, 증시 호조에 따른 금융·보험업 등의 생산이 증가로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동기 대비 3.6% 증가함³⁸⁾

34) 통계청 보도자료(2018. 3. 2), “2018년 1월 산업활동동향”

35) 통계청 보도자료(2018. 3. 30), “2018년 2월 산업활동동향”

3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1. 31), “12월 산업활동동향”

3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3. 2), “18. 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3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3. 2), “18. 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 2월에는 평창올림픽 개최로 인한 야외 활동 확대 및 주요 유통업체 매출 증가로 인해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동기 대비 2.2% 증가함³⁹⁾

〈표 27〉 산업 생산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4/4	연간	1/4	2/4	3/4	4/4 ²⁾	연간 ²⁾	1월 ²⁾	2월 ²⁾
전산업 생산 ³⁾	3.3	3.1	3.9	2.5	3.9	-0.7	2.3	4.4	-0.8
광공업	3.7	2.3	4.7	2.2	4.6	-3.8	1.9	4.3	-6.4
제조업	3.8	2.4	4.8	1.9	4.6	-4.8	1.6	3.7	-7.2
자동차	2.2	-2.3	-0.5	-1.1	11.7	-17.9	-2.9	1.5	-19.7
ICT	5.3	7.0	11.4	0.1	1.6	2.3	3.6	0.6	3.0
서비스업	1.8	2.6	2.2	1.7	2.5	0.9	1.9	3.6	2.2
도매 및 소매업	1.7	2.6	0.9	0.1	2.2	-0.2	0.7	0.6	2.6
운수업	-0.1	2.2	0.5	0.9	2.8	1.9	1.6	2.8	-0.2
숙박 및 음식점업	-1.4	2.3	-1.0	-1.6	-2.4	-2.5	-1.9	-1.1	-5.0
금융 및 보험업	4.1	4.1	4.8	4.9	4.5	6.3	5.1	12.5	7.2
부동산 및 임대업	1.8	0.6	3.3	2.5	3.7	-4.6	1.2	3.9	0.9

주: 1) 전년동기(월) 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농림어업 제외

4) 최근 경제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광공업·서비스업 지수 기준 연도를 '10년에서 '15년으로 개편함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고용 및 물가〉

- 2017년 4/4분기 총취업자 수는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행정을 제외한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로 전년동기 대비 1.0% 증가에 그쳤으며, 고용률은 61.0%, 실업률은 3.2%를 기록함⁴⁰⁾

- 1월 총취업자 수는 제조업·건설업 고용 개선 등으로 4개월 만에 증가폭이 확대되어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하였으나 2월에는 경제활동참여가 큰 폭으로 축소되어 전년동월 대비 0.4% 증가에 그침⁴¹⁾

3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3. 30), “'18.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40) 기획재정부(2018. 1. 10), 『'17. 12월 고용동향』

4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2. 14), “'18. 1월 고용동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3. 14), “'18. 2월 고용동향”

- 2017년 4/4분기 고용률은 인구 감소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4%p 감소한 61.0%를 기록하였으며, 1월과 2월에는 각각 59.5%, 59.2%를 나타냄
- 2017년 4/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 대비 0.2%p 하락한 3.2%를 기록하였으며, 1월에는 졸업 시즌, 인구변화 등의 영향으로 청년실업률이 상승⁴²⁾하여 3.7%, 2월에는 4.6%을 기록함

■ 2017년 연간 취업자 수는 주택건설 호조, 수출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하반기 이후 관광객 감소 영향이 누적되고 자영업 과당경쟁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어 전년 대비 1.2% 증가에 그쳤으며, 고용률은 60.8%, 실업률은 3.7%를 기록함⁴³⁾

- 고용률은 경력단절여성 지원 강화 등으로 여성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0.2%p 상승한 60.8%를 기록하였으나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높은 청년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함
 - 20대 후반 인구 증가에 따른 구직활동이 확대되는 가운데 신규채용이 위축되어 청년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건설업, 일용직·영세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제조업 등의 일자리가 감소하여 일자리의 질이 다소 미흡함

■ 2017년 4/4분기 산업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광공업의 경우 수출 증가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SOC 및 기타서비스업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0.9% 증가에 그침⁴⁴⁾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하였고, 1월과 2월에는 각각 전년동월 대비 10.5%, 4.3% 증가함
- 광공업 취업자 수⁴⁵⁾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설비투자의 증가세 지속으로 전년동기 대비 0.9% 증가하였으며, 1월과 2월에는 각각 전년동월 대비 2.4%, 0.3% 증가함
-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건설업 및 사업·개인·공공서비스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여 전년동기 대비 0.9% 증가에 그침
 - 1월과 2월에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도소매업 중심의 고용원

4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2. 14), "18. 1월 고용동향"

4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1. 10), "17. 12월 고용동향"

4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1. 10), "17. 12월 고용동향"

45) 제조업 포함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고용둔화 추세가 지속되어 전년동월 대비 각각 0.7%, 0.2% 증가함⁴⁶⁾

■ 2017년 연간 산업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건설업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상반기에는 제조업의 고용이 부진했고 하반기에는 관광객 감소 영향 누적으로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세가 둔화됨

○ 건설업의 경우 '14~'15년 아파트 분양 확대에 따른 준공물량 확대 등⁴⁷⁾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6.4% 증가함

〈표 28〉 고용 관련 지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총취업자 ¹⁾	1.0	0.9	1.4	1.4	1.0	1.0	1.2	1.3	0.4
청년취업자 ¹⁾	0.4	1.1	0.4	0.8	-0.2	-1.1	0.0	0.8	1.1
고용률 ²⁾	60.9	60.6	59.6	61.3	61.4	61.0	60.8	59.5	59.2
실업률 ³⁾	3.2	3.7	4.3	3.8	3.4	3.2	3.7	3.7	4.6
청년 ⁴⁾ 실업률 ³⁾	8.3	9.8	10.7	10.3	9.3	9.0	9.8	8.7	9.8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1.6	-4.8	-2.5	0.1	1.5	2.2	0.5	10.5	4.3
광공업	-2.5	-0.3	-2.5	-0.4	0.8	0.9	-0.3	2.4	0.3
제조업	-2.6	-0.4	-2.6	-0.4	0.7	0.9	-0.4	2.4	0.3
SOC ⁵⁾ 및 기타서비스업	1.9	1.5	2.5	1.9	1.1	0.9	1.6	0.7	0.2
건설업	4.3	0.8	7.6	8.8	4.4	4.7	6.4	5.2	3.4
도·소매, 음식, 숙박	1.3	0.6	2.1	0.8	-0.2	-0.2	0.6	-1.0	-1.9
전기, 운수, 통신, 금융	0.3	0.3	-0.6	-1.3	-1.8	-0.9	-1.1	0.9	2.8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2.3	2.7	2.7	2.2	2.1	1.5	2.1	0.8	0.1

주: 1) 전년동기(월) 대비 증감률

2)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으로 정의됨

3)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으로 정의됨

4) 청년은 15~29세 기준임

5) SOC는 전기, 가스, 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6) 고용통계 모수추정의 근간이 되는 추계인구 작성 방법이 등록센서스 기반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등록기반 인구를 적용하여 시계열 보정함(2018. 2. 14)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4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11. 15), "17. 10월 고용동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12. 13), "17. 11월 고용동향"

4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1. 10), "17. 12월 고용동향"

■ 2017년 4/4분기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가격 하락, 도시가스요금 인하⁴⁸⁾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에 그침⁴⁹⁾

○ 2017년 4/4분기 상품물가는 농산물가격 하락과 도시가스요금 인하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공업제품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함

- 1월에는 보험서비스료 동결, 석유류 가격 상승폭 둔화와 축산물 가격 안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0.5% 상승하였고, 2월에는 한파에 따른 채소류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1% 상승함⁵⁰⁾

○ 2017년 4/4분기 서비스물가는 공공서비스물가가 안정되고 집세 상승세가 둔화되어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하였으며, 1월과 2월에는 각각 전년동월 대비 1.4%, 1.7% 상승함

■ 2017년 연간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측의 압력으로 전년 대비 1.9% 상승함⁵¹⁾

○ 상품물가는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로 전환함

- 농축수산물은 조류독감(AI)에 따른 축산물 가격 상승, 여름철 폭우·폭염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5% 상승함

- 공업제품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7.7%)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1.4% 상승함

- 전기·수도·가스의 경우 전기요금(-11.6%), 도시가스요금(-8.2%) 인하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4% 하락함

○ 서비스물가는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2.0% 상승함

- 집세의 경우 신규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어 전년 대비 1.6% 상승에 그침

- 개인서비스의 경우 보험서비스료 인상(전년 대비 19.5%)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5% 상승함

48)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11월부터 8.2% 인하함

49) 한국은행(2018. 2), 『통화신용정책보고서』

5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2. 1), “2018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3. 6), “2018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

5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12. 29), “2017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

- 2017년 4/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분기 대비 1.2 상승한 110.5를 나타내며 기준치(100)를 상회함
- 1월에는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 상승과 환율 하락 등이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달보다 0.7 하락한 109.9를 기록함⁵²⁾
 - 2월에는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통화긴축 속도가 빨리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전달보다 1.7 하락한 108.2를 기록함⁵³⁾
 - 2017년 연간 소비자심리지수는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⁵⁴⁾ 상승세가 지속되어 전년보다 6 상승한 105.1을 기록함

〈표 29〉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소비심리¹⁾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소비자심리지수 ²⁾	96.9	99.1	94.3	106.4	109.3	110.5	105.1	109.9	108.2
소비자물가 상승률 ³⁾	1.5	1.0	2.1	1.9	2.3	1.5	1.9	1.0	1.4
〈품목 성질별 물가지수 상승률〉									
상품	0.7	-0.6	2.0	1.8	2.9	1.0	1.9	0.5	1.1
농축수산물	7.5	3.8	6.1	6.1	8.4	1.4	5.5	-0.6	3.5
공업제품	0.4	-0.5	2.1	1.3	0.9	1.5	1.4	1.0	0.8
전기·수도·가스	-8.7	-9.2	-6.9	-2.4	8.0	-3.3	-1.4	-1.5	-1.5
서비스	2.1	2.3	2.1	2.0	1.9	1.9	2.0	1.4	1.7
집세	1.7	1.9	1.7	1.8	1.6	1.4	1.6	1.2	1.1
공공서비스	0.9	1.5	1.0	1.0	1.0	0.8	1.0	0.5	0.5
개인서비스	2.7	2.7	2.7	2.5	2.3	2.5	2.5	2.0	2.4

주: 1) 전년동기(월) 대비

2)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2016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함

3)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새로운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소급 변경됨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대외거래〉

- 2017년 4/4분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4%(1,435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증가세가 다소 축소된 11.6%(1,234억 달러) 증가에 그쳐 무역수지는 201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함⁵⁵⁾

52) 국회예산처(2018. 2), 『NABO 경제동향&이슈』

53) 국회예산처(2018. 3), 『NABO 경제동향&이슈』

54) 국회예산처(2018. 3), 『2018 경제전망』

-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받고 있는 반도체를 비롯한 IT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다소 축소됨
 - 수출의 경우 경공업제품(-6.8%)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식료 및 직접소비재(1.4%), 중화학 공업품(8.4%), 원료 및 연료(26.3%)의 증가세가 둔화됨
 - 1월에는 선진국·개도국 동반 성장, 세계 제조업 경기 회복세 지속, 유가 및 주력품목 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22.3% 증가함⁵⁶⁾
 - 2월에는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2.5일), 중국 춘절 연휴(2.15~21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및 IT·반도체 경기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함⁵⁷⁾
 - 수입의 경우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의 증가율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14.6%, 9.6%, 7.1%로 증가세가 둔화됨
 - 1월과 2월에는 생산설비 투자 및 국내 생산 확대 등에 따른 반도체 제조용 장비, 컴퓨터 기억장치의 수입 증가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21.3%, 14.9% 증가함
- 2017년 연간 수출은 15.8%(5,737억 달러) 증가하였고, 수입은 17.8%(4,784억 달러)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95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연간 수출의 경우 '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61년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수출 증가율은 '11년(19.0%) 이후 6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함⁵⁸⁾
 - 국제유가 회복·수급 개선으로 수출단가가 12.8% 상승하였고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물량도 2.7% 증가하여 견조한 성장세를 보임
 - 연간 수입의 경우 신규 발전설비 가동, 국제유가 상승 및 국내 반도체 생산설비 등의 투자가 확대되어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이 각각 22.0%, 16.2% 증가 전환됨

55) 한국은행(2018. 2), 『통화신용정책보고서』

5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8. 2. 1), "2018년 1월 수출입 동향"

5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8. 3. 1), "2018년 2월 수출입 동향"

5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8. 1. 1), "2017년(연간, 12월) 수출입 동향 및 2018년 수출입 전망"

〈표 30〉 주요 품목별 수출입 증감률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수출	식료 및 직접소비재	10.6	8.0	9.5	4.8	8.8	1.4	5.9	23.1	-6.7
	원료 및 연료	5.0	-16.4	58.5	15.2	28.6	26.3	30.7	29.4	11.1
	경공업 제품	1.2	0.2	1.9	-3.9	15.0	-6.8	1.5	15.3	-4.9
	중화학 공업품	1.5	-5.7	12.8	18.8	24.6	8.4	16.0	22.1	4.0
	전체	1.8	-5.9	14.7	16.7	24.0	8.4	15.8	22.3	3.9
	금액	1,323.6	4,954.3	1,320.6	1,470.5	1,510.5	1,435.4	5,737.0	4,923.4	4,485.5
수입	소비재	2.5	1.0	8.0	5.3	16.5	7.1	9.2	23.9	18.0
	원자재	3.8	-12.8	36.2	22.9	16.6	14.6	22.0	19.9	16.3
	자본재	5.1	-2.0	16.2	19.5	20.4	9.6	16.2	22.3	11.5
	전체	4.1	-6.9	24.1	18.6	17.9	11.6	17.8	21.3	14.9
	금액	1,105.9	4,061.9	1,164.3	1,178.0	1,208.5	1,234.0	4,784.8	5,321.7	4,900.8
무역수지		217.7	892.3	156.9	291.8	302.6	201.8	953.0	35.5	32.4

주: 1) 전년동기(월) 대비 증감률

2) 금액은 천만 달러에서 반올림함

자료: 관세청, 「수출입동향」

■ 2017년 4/4분기 지역별 수출은 對 중국, 對 아세안, 對 일본이 증가하였고 수입은 전 지역에서 증가함

○ 수출의 경우, 對 미국은 자동차 판매 부진, 對 중동은 건설수주 하락으로 인한 일반기계 수출 부진으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 석유화학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對 아세안과 對 중국은 증가세를 지속함⁵⁹⁾

- 1월에는 對 아세안(37.3%)이 글로벌 IT경기 호황 및 유가 상승 등으로 중간재 수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對 중남미(34.4%)는 선박 ·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였고 對 중국(24.5%)은 정부의 IT 지원정책⁶⁰⁾으로 반도체 · 컴퓨터 수출이 증가함⁶¹⁾
- 2월에는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對 미국(-11.1%), 對 중동(-9.6%), 對 중남미(-3.9%)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현지 제조업 경기 호조로 인한 중간재 수출 증가, 국제유가 상승 및 인프라 사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對 중국(3.7%), 對 아세안(4.8%), 對 일본(21.2%)의 수출은 증가함⁶²⁾

59)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8. 2), 『2017년 4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018년 1분기 전망』

60) 중국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중국 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추진 중에 있음(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8. 2. 1), 『18년 1월 수출입동향』)

6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8. 2. 1), 『18년 1월 수출입동향』

- 수입의 경우 동남아(15.2%), 중동(14.1%), EU(10.6%) 등 전 지역에서 수입이 증가함
 - 1월에는 호주(-10.1%)를 제외한 EU(35.8%), 미국(24.2%), 중동(23.6%) 등 주요 지역에서 수입이 증가함
 - 2월에는 동남아(8.3%), 일본(0.3%) 등의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대다수의 지역에서 증가세를 이어감

■ 2017년 연간 기준으로 전 세계 120개국에서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선진국의 투자 확대에 의한 세계교역량 증가 등으로 각 지역으로의 수출·수입이 증가함⁶³⁾

〈표 31〉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

구분		비중 ¹⁾	2016	2017					2018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수출	중국	24.8	-9.3	17.5	7.4	15.5	16.3	14.2	24.5	3.7
	ASEAN	16.6	-0.4	31.5	27.1	33.4	20.2	27.8	37.3	4.8
	미국	12.0	-4.8	-2.1	0.0	19.5	-2.7	3.2	4.4	-11.1
	EU	9.4	-3.1	8.0	35.9	24.0	-2.0	15.9	10.5	17.8
	중동	4.2	-13.8	2.0	-4.8	0.7	-22.2	-7.0	4.4	-9.6
	중남미	4.9	-17.1	11.6	6.6	23.8	-0.1	10.5	34.4	-3.9
	일본	4.7	-4.8	18.6	11.3	8.6	3.3	10.1	21.6	21.2
	전체	100.0	-5.9	14.7	16.7	24.0	8.4	15.8	22.3	3.9
수입	중국	20.5	-3.6	15.6	14.0	12.6	8.5	12.5	15.0	15.0
	동남아	15.4	-1.3	16.6	21.1	20.8	15.2	18.3	21.0	8.3
	중동	14.7	-21.0	65.7	26.6	21.8	14.1	29.6	23.6	25.7
	EU	12.0	-9.3	8.8	4.6	17.8	10.6	10.4	35.8	19.9
	일본	11.5	3.5	25.1	20.9	12.5	8.1	16.1	19.2	0.3
	미국	10.6	-1.8	19.2	26.0	20.9	4.5	17.4	24.2	17.6
	호주	4.0	-7.7	33.0	44.6	32.9	1.6	26.3	-10.1	29.2
	전체	100.0	-6.9	24.1	18.6	17.9	11.6	17.8	21.3	14.9

주: 1) 2016년 전체 수입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

2) 증감률은 전년동기(월) 대비

자료: 관세청, 「수출입동향」

6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8. 3. 1), 『18년 2월 수출입동향』

63) 국회예산처(2018. 3), 『2018 경제전망』

〈가계소득〉

- 2017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한 444만 5천 원을 기록하였으며, 물가지수를 감안한 실질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하여 9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함
 - 비중이 가장 큰 근로소득은 경기회복 지연, 구조조정 본격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어 전년동기 대비 0.9% 증가에 그친 293만 2천 원을 기록함⁶⁴⁾
 - 사업소득은 주택 임대소득자 증가 및 메르스 사태로 인한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94만 3천 원을 기록함
 -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수급 대상 증가 등의 영향으로 10.1% 증가한 46만 8천 원을 기록함

6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2. 25), “16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동향 분석”

〈표 32〉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¹⁾

(단위: %, %p, 만 원)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	431.2	439.9	459.3	434.7	453.7	444.5
	증가율	0.2	0.6	0.8	0.9	2.1	3.1
	실질 증가율 ²⁾	-1.2	-0.4	-1.2	-1.0	-0.2	1.6
근로소득	금액	290.6	294.8	302.2	287.8	306.7	293.2
	증가율	0.4	1.0	0.0	0.5	1.6	0.9
사업소득	금액	86.9	85.9	85.6	89.1	91.6	94.3
	증가율	2.2	1.5	0.9	4.1	6.2	8.5
재산소득	금액	1.7	1.6	2.2	1.7	1.9	1.8
	증가율	-4.4	-18.4	15.2	12.9	34.4	9.5
이전소득	금액	42.5	44.7	49.5	44.0	45.0	46.8
	증가율	2.9	2.1	5.3	-1.6	1.0	10.1
처분가능 소득	금액	354.1	358.8	-	-	-	-
	증가율	0.4	0.7	-	-	-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246.8	255.0	-	-	-	-
	증가율	-3.2	-0.5	-	-	-	-
	실질 증가율 ²⁾	-4.6	-1.5	-	-	-	-
흑자액	금액	107.3	103.8	-	-	-	-
	증가율	9.7	3.8	-	-	-	-
평균소비성향 ³⁾		69.7	71.1	-	-	-	-
흑자율 ⁴⁾		30.3	28.9	-	-	-	-

주: 1) 전년동(분)기 대비

2) 실질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실질 증감률은 전년동(분)기 대비 증감률임.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새로운 물가지수를 적용한 실질금액 자료가 소급 변경됨

3) 평균소비성향은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4) 흑자율은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5) 2017년부터 가계동향조사가 가계수지(소득 및 지출) 통계에서 가계지출 통계로 특화되어 연간 주기 공표 통계로 개편됨. 단, 가계소득통계는 분기 발표함. 이에 따라 가계소득계간보합동향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은 이를 기초해 작성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다. 경기동향

■ 2017년 4/4분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⁶⁵⁾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⁶⁶⁾는 각각 전분기 대비 0.4 하락한 100.7, 100.4를 기록함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건설수주액과 구인구직비율의 하락폭 축소, 소비자기대지수와 코스피지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재고순환지표와 기계류내수출하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전분기 대비 0.4 하락한 100.7을 기록함

- 1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재고순환지표와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하락하였으나,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구인구직비율 등이 상승하여 전월 대비 0.1 상승한 100.8을 기록함

- 2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기계류내수출하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건설수주액,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전월 대비 0.2 하락한 100.6을 기록함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소매판매액지수와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광공업생산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이 하락하여 전분기 대비 0.4 하락한 100.4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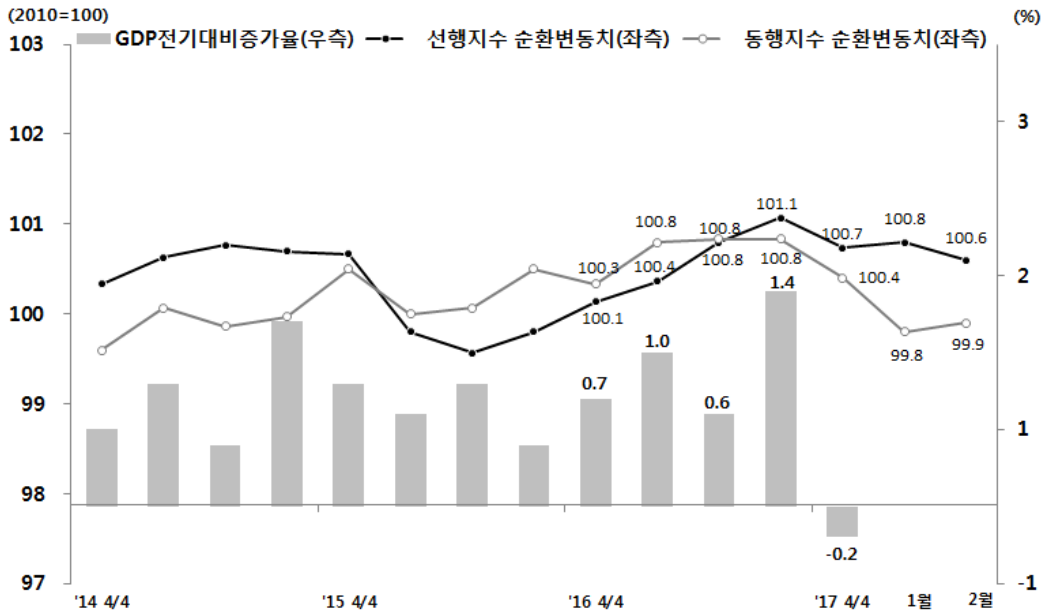
- 1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와 내수출하지수는 하락하였으나,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등이 상승하여 전월과 동일한 99.8을 기록함

- 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매판매액지수와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하락하였으나, 건설기성액, 수입액 등이 상승하여 전월 대비 0.1 상승한 99.9를 기록함

65)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구인구직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66)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등 7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그림 1〉 GDP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주: 2018년 4/4분기, 1월과 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7년 4/4분기 제조업 재고율⁶⁷⁾은 제조업 출하지수 하락(전분기 대비 0.1), 재고지수 상승(1.6)으로 전분기 대비 2.8%p 상승한 105.9%를 기록함⁶⁸⁾

○ 1월 제조업 재고율은 전월 대비 0.2%p 상승한 109.4%임

- 1월 제조업 출하는 통신·방송장비, 화학제품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이 늘어 전월 대비 1.1% 증가하였으며, 재고는 전자부품,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화학제품 등이 늘어 전월 대비 0.9% 증가함⁶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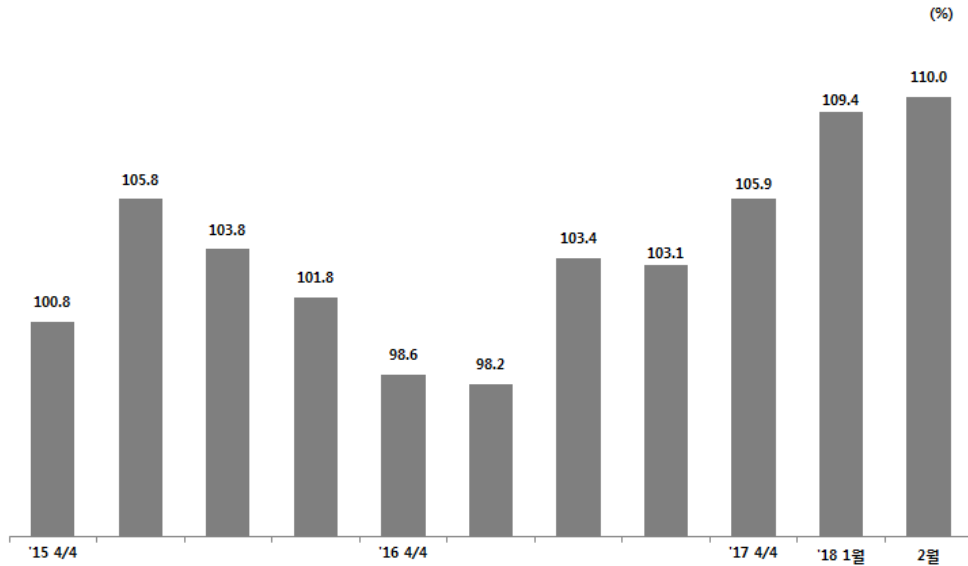
○ 2월 제조업 재고율은 전월 대비 0.6%p 상승한 110.0%를 나타냄

- 2월 제조업 출하는 기타운송장비, 반도체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통신·방송장비 등이 늘어 전월 대비 0.5% 증가하였으며, 재고는 통신·방송장비, 금속가공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1차금속 등이 늘어 전월 대비 1.1% 증가함⁷⁰⁾

67) 재고율(재고-출하비율)은 출하액 대비 재고액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임. 경기가 호황일 경우 제품 판매 증가로 재고는 줄고 출하는 증가하게 되어 재고-출하비율은 하락하게 됨. 반면 경기가 불황에 진입할 경우 판매(출하)는 감소하기 시작하고 재고는 증가하므로 재고율지수는 상승함

68) 통계청 보도자료(2018. 1. 31), “2017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69) 통계청 보도자료(2018. 3. 2), “2018년 1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제조업 재고율^{1),2)}

주: 1)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 비율 =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2) 최근 경제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소비 관련 지수 기준연도를 '10년에서 '15년으로 개편함(2018. 2)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70) 통계청 보도자료(2018. 3. 30), “2018년 2월 산업활동동향”

3. 국내금융

- 2018년 1/4분기 국고채(3년, 5년, 10년 만기) 평균 금리는 각각 2.24%, 2.49%, 2.70%로 2017년 4/4분기(2.09%, 2.30%, 2.49%)보다 상승함
 - 정책금리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1.50%로 동결됨
 - 국고채 금리 상승의 원인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 때문임
- 2018년 1/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1,072.3원으로 전분기(1,105.7원) 대비 하락하였고, 종합주가지수는 2,472.91로 전분기(2,497.37) 대비 하락함
 - 달러화 약세,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으로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임
 -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우려, 글로벌 증시 하락 등으로 종합주가지수는 하락세를 보임
- 2018년 1/4분기 평균 KOSPI 보험지수는 21,023.69로 전분기(21,561.79) 대비 하락하였고, 평균 보험 주가이익률(PER)은 12.31로 전분기(12.17) 대비 상승한 반면, 주가자산비율(PBR)은 0.86으로 전분기(0.89) 대비 하락함

〈금리〉

- 2018년 1/4분기 정책금리는 1.50%로 동결됨(〈표 33〉 참고)
 - 2018년 2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점검 필요성 및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향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부의 정책방향,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등이 정책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또한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 및 소비 증가세로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1/4분기 평균 CD(91일) 금리는 전분기 대비 15bp 상승한 1.65%임(〈표 33〉 참고)
 - 1월 평균 CD(91일) 금리는 1.66%, 2월과 3월은 1.65%로 매월 하락세를 보임

■ 2018년 1/4분기 국고채 3년, 5년, 10년 평균 금리는 모두 전분기 대비 상승하여 각각 2.24%, 2.49%, 2.70%임(〈표 33〉 참고)

○ 1월 국고채 3년, 5년, 10년 금리는 국내 경기 개선,⁷¹⁾ 주요국 통화정책⁷²⁾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전월 평균 금리(2.10%, 2.30%, 2.47%)보다 상승한 2.19%, 2.44%, 2.63%를 기록함

○ 2월 평균 국고채 금리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1월 평균 금리보다 상승한 2.28%, 2.54%, 2.77%를 나타냄

○ 3월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 동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으로 3년물 2.27%, 5년물 2.50%, 10년물 2.71%로 소폭 하락함

〈표 33〉 금리 및 스프레드

(단위: %, %p)

구분	2017 1/4	2017 2/4	2017 3/4	2017 4/4	2018 1/4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정책금리	1.25	1.25	1.25	1.50	1.50	-	0.25
CD(91일)	1.49	1.40	1.39	1.50	1.65	0.15	0.16
국고채(3년)	1.67	1.68	1.77	2.10	2.24	0.15	0.57
국고채(5년)	1.86	1.88	1.97	2.31	2.49	0.19	0.63
국고채(10년)	2.17	2.20	2.28	2.49	2.70	0.20	0.53
회사채(3년, AA-)	2.15	2.21	2.31	2.65	2.79	0.14	0.64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0.48	0.53	0.54	0.55	0.54	-0.01	0.06

주: 금리는 분기 평균값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주요국의 국채금리는 미국의 경제성장 전망치 상향 조정⁷³⁾과 인플레이션 기대 등으로 상승세였지만, 3월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하락세를 보임(〈그림 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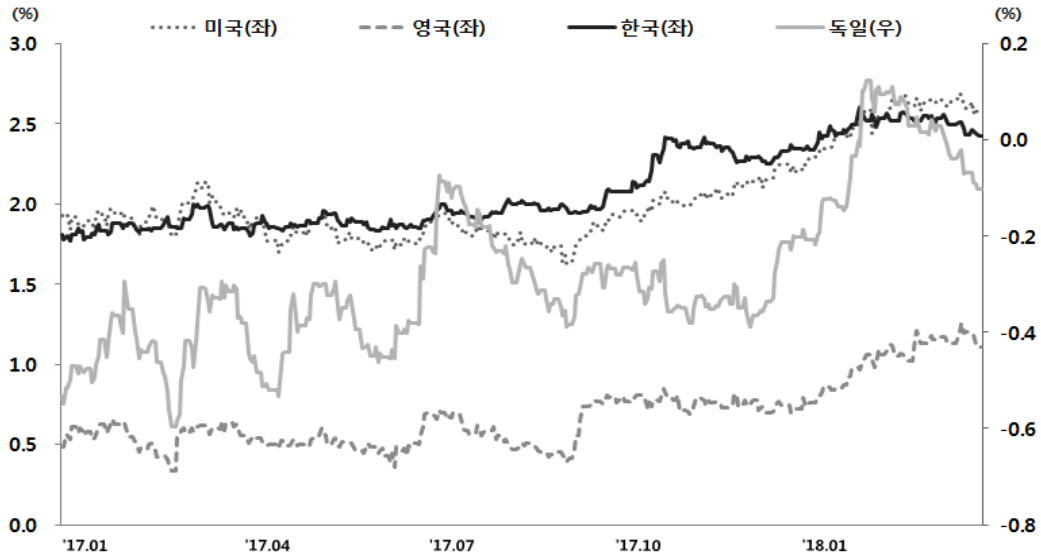
○ 특히 독일 국채금리는 사회민주당 연정 찬반 투표 및 이탈리아 총선 등 유로존 내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로 3월 이후로 하락세를 보임

71) 경제성장률(전년동기 대비): (17. 2/4) 2.7% → (3/4) 3.8% → (4/4) 3.0%

72) BOJ의 장기국채 매입 축소 계획 발표 및 ECB 위원의 매파적 발언의 영향

73) IMF 2018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3% → 2.7%

〈그림 3〉 주요국의 국고채 5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 회사채(3년 만기, AA-) 금리는 2018년 1/4분기 평균 2.79%로 전분기 대비 14bp 상승함(〈표 33〉 참고)

- 1월 평균 회사채 금리는 2.72%, 2월과 3월은 각각 2.82%, 2.83%를 기록함
- 신용 스프레드(회사채와 국고채 간 금리차이)는 전분기 대비 1bp 축소된 평균 54bp임

〈환율〉

■ 2018년 1/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분기 대비 33.4원 하락한 평균 1,072.3원임(〈표 34〉 참고)

- 1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ECB·BOJ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의 약달러 선호 발언 등으로 최저치⁷⁴⁾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19.1원 하락한 1,066.7원임
- 2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도, 미국 임금상승률 상승,⁷⁵⁾ 신임 의장 취임에 따른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 기대 등으로 1월보다 12.9원 상승한 1,079.6원을 기록함

74) 2018년 1월 25일 종가는 1,058.63원으로 2014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75) 1월 임금상승률이 전년동월 대비 2.9%를 보이며, 2009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3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상승하였으나,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확대되며 1,071.9원을 기록함

〈표 34〉 주요국 환율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2017				2018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원/달러	1,154.3	1,129.4	1,132.2	1,105.7	1,072.3	1,066.7	1,079.6	1,071.9
엔/달러	113.7	111.0	111.0	112.9	108.5	111.1	108.2	106.0
달러/유로	1.065	1.101	1.175	1.177	1.228	1.218	1.234	1.234
위안/달러	6.889	6.862	6.671	6.613	6.359	6.429	6.322	6.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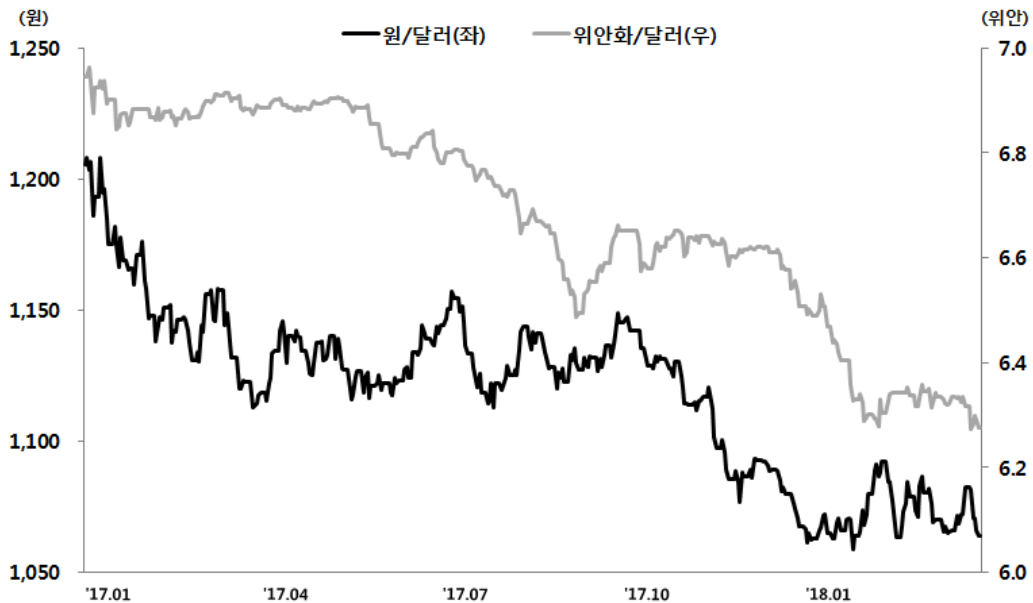
주: 환율은 분기 또는 월 평균 값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Bloomberg

- 2018년 1/4 분기 위안/달러 환율은 전분기 대비 0.254위안 하락한 평균 6.359위안을 기록함
- 중국 위안화는 4월 미국 환율보고서에 대한 경계심 및 통상압박 부담과 더불어 기준환율 산정방식(경기대응조정 요인 배제) 변경, 위안화의 국제화⁷⁶⁾ 등으로 2015년 10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함

76)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뱅크는 위안화를 준비통화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2018년 3월 26일 중국 상하이선물거래소 산하 상하이 국제에너지거래소(INE)는 위안화로 결제하는 원유 선물거래를 시작함

〈그림 4〉 위안/달러와 원/달러 환율 비교



자료: Bloomberg

■ 2018년 1/4분기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 강세,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보임(〈표 34〉 참고)

- 1월 엔/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감 등으로 전월 대비 하락한 111.1엔을 기록하였으며, 달러/유로 환율은 유로존의 경제지표 개선,⁷⁷⁾ 그리스의 금년 구제금융 종료 가능성 등으로 상승하여 1.218달러를 기록함
- 2월 엔/달러 평균 환율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안전통화 수요 증가, BOJ의 초장기 국채매입 축소 등으로 전월 대비 하락한 108.2엔을,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달러화 약세, 독일의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등으로 1.234달러로 전월보다 상승함
- 3월 엔/달러 평균 환율은 국제 무역분쟁 확산 우려, 일본 총리의 사학 스캔들 등으로 하락하여 106.0엔을 기록하였으며,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독일의 대연정 성사 등 상승요인이 있었으나, 유로존 경제지표 악화⁷⁸⁾ 등의 하락요인으로 전월과 같은 1.234달러임

77) 유로존 2017년 4분기 성장률: +2.5%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유로존 2018년 1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1.2%(YoY), 종합PMI는 58.6으로 상승

78) 유로존 3월 종합PMI(55.3)를 비롯하여 소비자신뢰, 경기체감 등 심리지표 부진

〈주가〉

■ 2018년 1/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전분기 평균 2,497.37보다 하락한 평균 2,472.91임(〈그림 5〉참고)

- 1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기업실적 개선, 미국 증시 상승 등으로 사상 최고치⁷⁹⁾를 기록하며 전월 평균주가지수 2,467.73보다 상승한 2,520.94를 나타냄
- 2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2,439.10으로 미국 등 글로벌 증시 하락,⁸⁰⁾ 외국인 순매도⁸¹⁾ 등의 영향으로 1월에 비해 하락함
- 3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2,451.57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우려 완화, 남북 정상회담 일정 확정 등에 따른 북한 리스크 완화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상승함

〈그림 5〉 주가지수



주: 증권시장의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반영하는 지표로 우리나라는 상장된 보통주 전 종목을 대상으로 1980년 1월 4일을 기준일로 하며, 당일의 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시계열에 의한 연속지수를 산출하고 있음
자료: 한국거래소

79) 2018년 1월 29일 2,598.19를 기록함

80) 월초 대비 미국 Dow 8.9%, 유로 STOXX 7.0%, 일본 Nikkei 9.9%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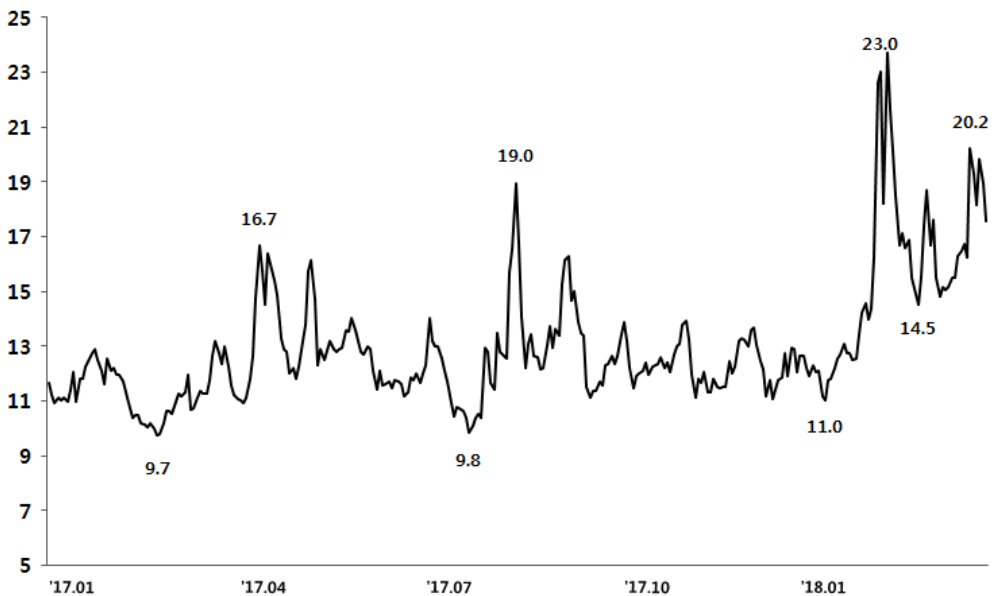
81) 2018년 2월 외국인 주식투자 순매도는 약 1조 5,600억 원임

■ 2018년 1/4분기 변동성지수(VKOSPI)는 미국 증시 급락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 우려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6> 참고)

○ 2월에는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국내 변동성지수는 2년여 만에 최고치인 23.0을 기록함

○ 3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언급하며 무역전쟁을 선포한 23일 20.2까지 상승 후 여전히 17~18대를 오가며 높은 수준을 유지함

〈그림 6〉 변동성지수(VKOSPI)



주: VKOSPI는 주식시장 변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KOSPI200 옵션가격을 이용하여 옵션투자자들이 예상하는 KOSPI200 지수의 미래 변동성을 측정한 지수임

자료: 한국거래소

〈보험주가〉

■ 2018년 1/4분기 평균 KOSPI 보험지수는 전분기 평균 21,561.79보다 하락한 21,023.69임 (<그림 7> 참고)

○ 장기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부진한 4/4분기 실적, IFRS 17 등 제도변화에 따른 적정자본수준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보험지수가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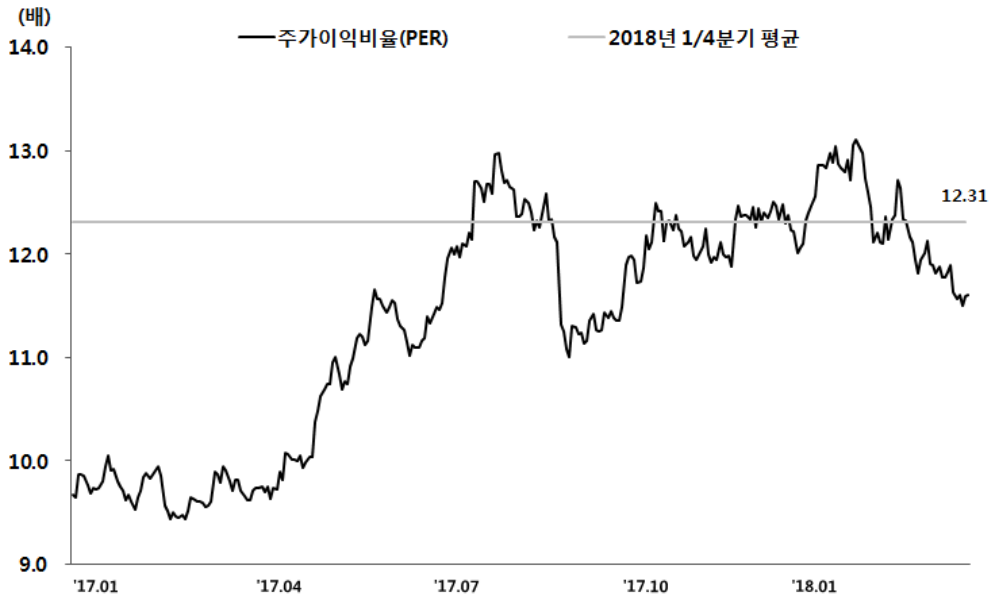
〈그림 7〉 KOSPI 보험지수



주: KOSPI 보험지수는 총 14개의 보험회사(생명보험 5개사, 손해보험 8개사, 재보험 1개사)를 구성종목으로 하여 산출하는 주가지수임
 자료: 한국거래소

- 2018년 1/4분기 평균 보험 주가이익률(PER)은 12.31로 전분기 평균 12.17에 비하여 상승한 반면, 주가자산비율(PBR)은 0.86로 전분기 평균인 0.89에 비하여 하락함(〈그림 8〉, 〈그림 9〉참고)
- 주가이익률(PER)은 당기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감소하여 상승한 반면, 주가자산비율(PBR)은 보험지수의 하락으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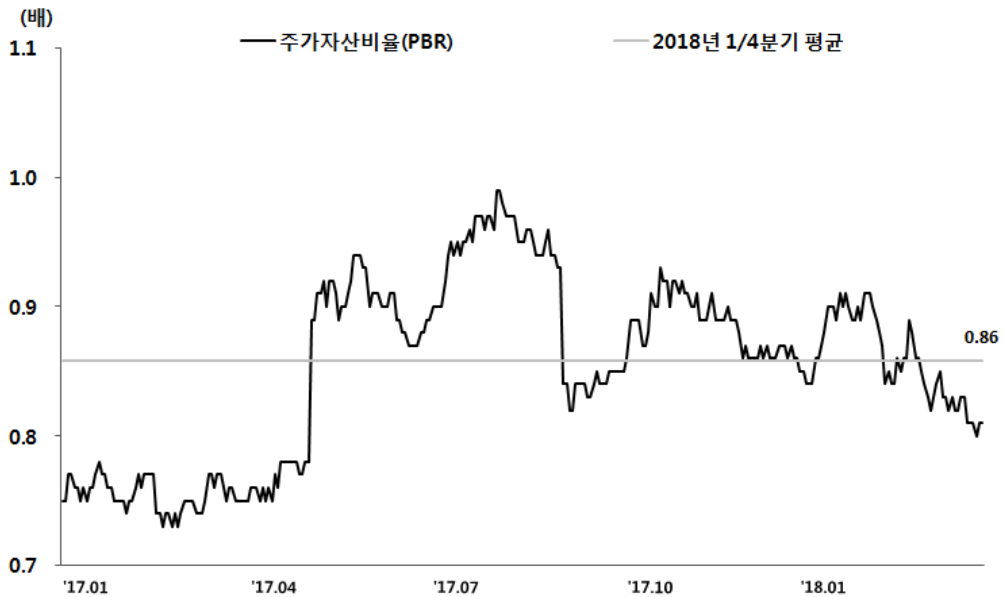
〈그림 8〉 보험 주가이익비율(PER)



주: 직선은 2018년 1/4분기 평균 주가이익비율임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9〉 보험 주가자산비율(PBR)



주: 직선은 2018년 1/4분기 평균 주가자산비율임

자료: 한국거래소

Ⅱ. 국내보험 동향

- 2017년 4/4분기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1.6% 감소한 58조 7,075억 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10.3%p 상승한 69.0%, 손해보험 손해율은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2.6%p 하락한 81.2%를 기록함
 -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증가하여 전분기 대비 1.7% 증가한 1,109조 9,268억 원, 총부채는 전분기 대비 2.0% 증가한 1,003조 2,794억 원을 기록한 반면, 총자본은 전분기 대비 1.4% 감소한 106조 6,470억 원임
 - 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생명보험의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1조 312억 원 증가한 3,668억 원 (재보험회사 및 보증보험회사 제외)으로 나타남
- 2017년 연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1.0% 감소한 202조 3,069억 원임
 - 연간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 대비 9.9%p 상승한 69.7%, 손해보험 손해율은 전년 대비 1.5%p 하락한 80.1%를 기록함
 - 연간 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1.9% 증가한 7조 926억 원임
 - 연간 총자산은 전년 대비 7.3% 증가하였으며, 총부채, 총자본은 각각 전년 대비 7.2%, 8.5% 증가함
- 2017년 4/4분기 보험산업 연간 기준 환산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1.83%p 상승한 7.44%를 나타냈으며,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0.19%p 상승한 0.79%를 나타냄
 - 생명보험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1.92%p 상승한 5.71%,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0.20%p 상승한 0.59%를 나타냄
 - 손해보험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1.42%p 상승한 11.90%,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0.17%p 상승한 1.40%를 나타냄
- 2017년 4/4분기 말 전속설계사 수는 생명보험의 경우 전분기 대비 2,157명 감소한 10만 7,037명, 손해보험의 경우 전분기 대비 212명 감소한 7만 9,647명을 나타냄
 - 교차모집설계사 수는 생명보험이 전분기 대비 154명 증가한 1만 5,384명, 손해보험이 전분기 대비 890명 증가한 8만 1,011명임

1. 보험 총괄

가. 수입(원수)보험료

- 2017년 4/4분기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감소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1.6% 감소한 58조 7,075억 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¹⁾는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의 감소세로 전년동기 대비 8.3% 감소한 32조 2,415억 원을 나타냄(〈표 7〉 참조)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²⁾는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전 종목에서 증가세를 보여 전년동기 대비 8.0% 증가한 26조 4,660억 원을 기록함(〈표 18〉 참조)
 - 2017년 보험산업 연간 수입보험료는 202조 3,0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113조 9,7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한 반면,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88조 3,3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함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1),2)}

(단위: 조 원,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보험	35.2 (0.9)	119.8 (2.2)	28.6 (-1.4)	27.4 (-3.3)	25.7 (-5.8)	32.2 (-8.3)	114.0 (-4.9)
손해보험	24.5 (7.4)	84.5 (5.3)	20.6 (4.0)	21.0 (2.2)	20.3 (3.2)	26.5 (8.0)	88.3 (4.5)
합계	59.7 (3.4)	204.3 (3.5)	49.2 (0.8)	48.4 (-1.0)	46.1 (-2.1)	58.7 (-1.6)	202.3 (-1.0)

주: 1) 특별계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2)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1) 보험회사가 회계연도 동안 받아들인 보험료로 순보험료(=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합으로 구성됨
- 2) 원수보험료(Direct Premiums Written)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받아들인 보험료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의 합계임

나. 지급률(손해율) 및 사업비율

- 2017년 4/4분기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수입보험료 기준)은 전년동기 대비 10.3%p 상승한 69.0%, 사업비율은 2.0%p 상승한 13.5%, 해지율은 전년동기와 동일한 8.5%임
 - 2017년 연간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 대비 9.9%p 상승한 69.7%, 사업비율은 14.5%로 전년 대비 1.6%p 상승함
- 2017년 4/4분기 손해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 대비 2.6%p 하락한 81.2%, 사업비율은 2.5%p 상승한 23.2%, 합산비율은 0.1%p 하락한 104.4%를 기록함
 - 2017년 연간 손해보험 손해율은 80.1%로 전년 대비 1.6%p 하락하였으나, 사업비율은 21.0%로 1.3%p 상승하였고, 합산비율은 0.3%p 하락한 101.1%임

〈표 2〉 지급률 · 손해율 및 사업비율

(단위: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보험 ¹⁾	지급률	58.7	59.8	69.5	67.7	72.9	69.0	69.7
	사업비율	11.5	12.9	14.2	14.5	15.9	13.5	14.5
	해지율	8.5	8.5	2.4	4.5	6.5	8.5	8.5
손해보험 ²⁾	손해율	83.8	81.7	79.9	78.7	80.7	81.2	80.1
	사업비율	20.7	19.7	20.3	19.9	20.4	23.2	21.0
	합산비율	104.5	101.4	100.3	98.6	101.0	104.4	101.1

주: 1)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 계약액 + 신계약액), 해지율은 누계치임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여기서 순사업비는 지급경비(급여와 임금, 손해조사비, 모집비, 수급비 등)에서 수입경비(출재보험 수수료, 출재이익 수수료 등)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보유보험료는 수입보험료에서 출재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 · 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 2017년 4/4분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설계사 수는 전분기 대비 모두 감소함

- 생명보험 전속설계사 수는 전분기 대비 2,157명 감소한 10만 7,037명이며, 교차모집설계사 수는 전분기 대비 154명 증가한 1만 5,384명임
- 손해보험 전속설계사 수는 전분기 대비 212명 감소한 7만 9,647명이며, 교차모집설계사 수는 전분기 대비 890명 증가한 8만 1,011명임

〈표 3〉 보험산업 설계사 수

(단위: 명)

구분		2016	2017			
		4/4	1/4	2/4	3/4	4/4
생명 보험	전속설계사	111,813	111,124	111,393	109,194	107,037
	교차설계사	12,764	13,774	14,701	15,230	15,384
손해 보험	전속설계사	81,331	80,135	79,685	79,859	79,647
	교차설계사	77,661	78,674	86,201	80,121	81,011

자료: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재무성과

- 2017년 4/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 대비 1.7% 증가한 1,109조 9,268억 원을 나타냄
 - 생명보험 총자산은 전분기 대비 1.3% 증가한 832조 8,269억 원, 손해보험 총자산은 전분기 대비 2.9% 증가한 277조 999억 원임
 - 2017년 말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7.3% 증가하였으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총자산은 각각 전년 대비 6.5%, 10.0% 증가함
- 2017년 4/4분기 보험산업 총부채 규모는 전분기 대비 2.0% 증가한 1,003조 2,794억 원을 기록했으며, 총자본 규모는 전분기 대비 1.4% 감소한 106조 6,470억 원임
 - 전분기 대비 총부채는 생명보험 1.6%, 손해보험 3.4% 증가한 반면, 총자본은 생명보험 1.8%, 손해보험 0.6% 감소함
 - 2017년 말 보험산업 총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7.2% 증가하였으며, 총자본은 8.5% 증가함

〈표 4〉 보험산업 재무상태표^{1),2)}

(단위: 조 원,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보험	총자산	782.2 (0.9)	782.2 (7.9)	793.5 (1.5)	813.2 (2.5)	822.4 (1.1)	832.8 (1.3)	832.8 (6.5)
	총부채	716.4 (2.2)	716.4 (8.4)	725.5 (1.3)	741.1 (2.1)	749.6 (1.2)	761.4 (1.6)	761.4 (6.3)
	총자본	65.8 (-11.7)	65.8 (2.8)	68.1 (3.5)	72.1 (5.9)	72.8 (0.9)	71.4 (-1.8)	71.4 (8.6)
손해보험	총자산	252.0 (1.9)	252.0 (11.5)	255.4 (1.3)	264.3 (3.5)	269.4 (1.9)	277.1 (2.9)	277.1 (10.0)
	총부채	219.5 (3.8)	219.5 (11.6)	222.7 (1.4)	229.4 (3.0)	233.9 (2.0)	241.9 (3.4)	241.9 (10.2)
	총자본	32.5 (-9.3)	32.5 (10.8)	32.6 (0.5)	34.9 (7.0)	35.4 (1.5)	35.2 (-0.6)	35.2 (8.4)
합계	총자산	1,034.2 (1.1)	1,034.2 (8.8)	1,048.9 (1.4)	1,077.5 (2.7)	1,091.7 (1.3)	1,109.9 (1.7)	1,109.9 (7.3)
	총부채	935.9 (2.6)	935.9 (9.1)	948.2 (1.3)	970.5 (2.3)	983.5 (1.3)	1,003.3 (2.0)	1,003.3 (7.2)
	총자본	98.3 (-10.9)	98.3 (5.3)	100.7 (2.5)	107.0 (6.3)	108.2 (1.1)	106.6 (-1.4)	106.6 (8.5)

주: 1) 특별계정이 포함되어 있음

2) 괄호 안의 수치는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7년 4/4분기 보험산업 전체 당기순이익은 생명보험산업의 증가로 3,668억 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산업은 전년동기 대비 1조 344억 원 증가한 1,056억 원이며, 손해보험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2,612억 원임

○ 2017년 연간 보험산업 전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1.9% 증가한 7조 926억 원임

〈표 5〉 보험산업 당기순이익^{(1),(2)}

(단위: 조 원,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 보험	당기순이익 ⁽²⁾	-0.9 (881.4)	2.5 (-31.5)	1.6 (18.6)	1.4 (44.5)	0.8 (-23.7)	0.1 (-111.4)	3.9 (59.1)
	보험영업이익	-7.2 (14.0)	-22.4 (7.0)	-5.1 (-1.8)	-4.9 (-2.3)	-5.6 (12.2)	-5.9 (-18.0)	-21.5 (-4.0)
	투자영업이익	4.9 (-4.7)	21.4 (-0.2)	6.0 (4.8)	5.6 (6.3)	5.4 (0.4)	4.9 (-0.1)	22.0 (2.9)
	영업외이익	1.1 (6.9)	4.1 (6.9)	1.1 (0.7)	1.2 (18.4)	1.2 (25.3)	1.2 (7.5)	4.7 (12.5)
	연간 기준 당기순이익 ⁽⁵⁾	2.5 (-31.5)	2.5 (-31.5)	6.3 (18.6)	6.0 (29.6)	5.1 (12.4)	3.9 (59.1)	3.9 (59.1)
손해 보험	당기순이익 ⁽²⁾	0.3 (40.0)	2.5 (32.8)	1.1 (57.0)	1.1 (32.5)	0.8 (-0.5)	0.3 (-1.2)	3.2 (25.3)
	보험영업이익	-1.1 (0.6)	-2.7 (-15.5)	-0.5 (-24.3)	-0.3 (-52.8)	-0.7 (64.2)	-1.1 (0.2)	-2.6 (-7.0)
	투자영업이익	1.5 (5.7)	6.2 (4.8)	1.9 (22.8)	1.6 (1.5)	1.7 (13.4)	1.7 (9.8)	7.0 (11.8)
	영업외이익	0.0 (-123.1)	-0.2 (36.3)	-0.1 (2.1)	0.0 (-135.7)	0.0 (-86.4)	-0.1 (-4,004.0)	-0.1 (-28.4)
	연간 기준 당기순이익 ⁽⁵⁾	2.5 (32.8)	2.5 (32.8)	4.3 (57.0)	4.3 (43.7)	3.9 (28.4)	3.2 (25.3)	3.2 (25.3)
당기순이익 합계 ^{(3),(4)}		-0.7 (-804.7)	5.0 (-9.2)	2.6 (31.6)	2.5 (39.0)	1.6 (-14.0)	0.4 (-155.2)	7.1 (41.9)
연간 기준 당기순이익 합계 ^{(5),(6)}		5.0 (-9.2)	5.0 (-9.2)	10.6 (31.6)	10.2 (35.1)	9.0 (18.8)	7.1 (41.9)	7.1 (41.9)

주: 1)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25개,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17개 국내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함

2)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비용이 차감된 수치임

4)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합계를 의미함

5)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값임

6)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누적 당기순이익 합계를 의미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7년 4/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ROE)은 전년동기 대비 1.83%p 상승한 7.44%를 기록함

- 생명보험산업은 전년동기 대비 1.92%p 상승한 5.71%를 나타냄
- 손해보험산업은 전년동기 대비 1.42%p 상승한 11.90%를 나타냄

■ 2017년 4/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산이익률(ROA)은 전년동기 대비 0.19%p 상승한 0.79%를 기록함

- 생명보험산업은 전년동기 대비 0.20%p 상승한 0.59%를 나타냄
- 손해보험산업은 전년동기 대비 0.17%p 상승한 1.40%를 나타냄

〈표 6〉 보험산업 자본 및 자산이익률^{1),2)}

(단위: %)

구분		2016	2017			
		4/4	1/4	2/4	3/4	4/4
자본 이익률 (ROE)	생명보험	3.79	9.41	8.63	7.33	5.71
	손해보험	10.48	16.68	16.07	14.49	11.90
	합계	5.61	11.42	10.70	9.33	7.44
자산 이익률 (ROA)	생명보험	0.39	0.97	0.90	0.77	0.59
	손해보험	1.23	1.97	1.93	1.74	1.40
	합계	0.60	1.22	1.16	1.01	0.79

주: 1)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25개,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17개 국내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함

2)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연 기준 환산)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3) 자산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연 기준 환산) / 기중자산, 기중자산 = ((전회계연도 말 자산 + 당기 말 자산)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2.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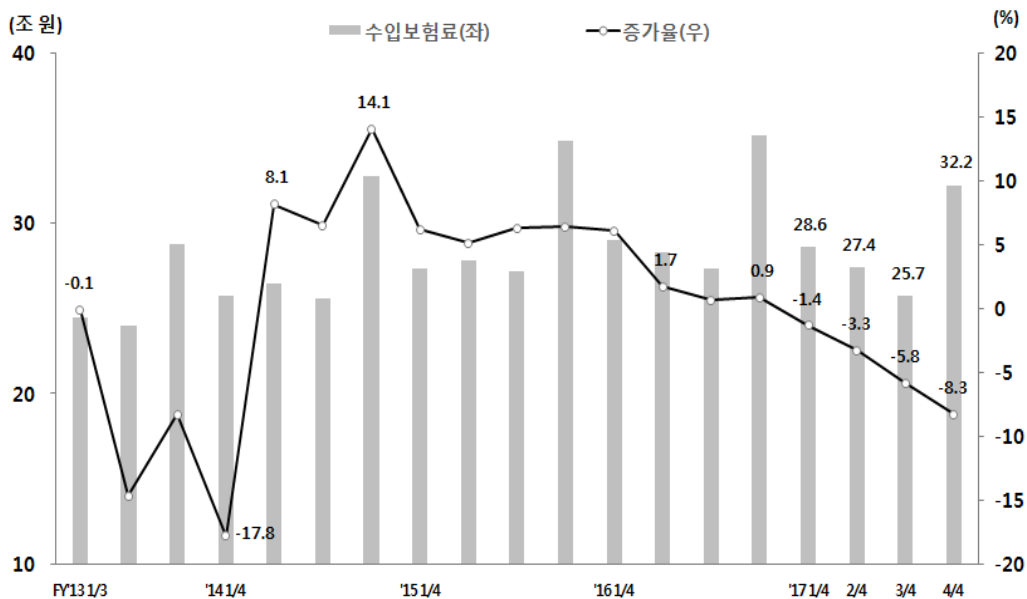
가. 수입보험료

〈종목별 수입보험료〉

■ 2017년 4/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8.3% 감소한 32조 2,415억 원을 기록함(〈그림 1〉 참조)

○ 2017년 연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4.9% 감소한 113조 9,735억 원을 나타냄

〈그림 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7년 4/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사망보험과 변액보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의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5.3% 감소한 23조 3,145억 원을 기록함(〈표 7〉 참조)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9조 9,875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과 신지급여력제도 등을 대비한 보장성보험 확대 전략에 따른 것임
 - 하지만, 초회보험료는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³⁾ 등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신뢰도 하락⁴⁾으로 전년동기 대비 32.1% 감소함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주가지수 상승으로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 증가와 보험회사의 영업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한 4조 8,966억 원을 기록함
- 생존보험⁵⁾ 수입보험료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소극적 판매로 전년동기 대비 10.2% 감소한 4조 6,058억 원을 나타냄
 - 초회보험료와 계속보험료는 각각 전년동기 대비 46.0%, 5.0% 감소함
- 생사혼합보험⁶⁾ 수입보험료는 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경쟁력 약화와 세제혜택 축소⁷⁾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2.4% 감소한 3조 8,246억 원임
- 2017년 연간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부진과 사망보험의 성장세 둔화로 전년 대비 3.9% 감소한 98조 3,022억 원을 시현함

■ 2017년 4/4분기 단체보험⁸⁾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의 부진으로 전년동기 대비 15.4% 감소한 8조 9,270억 원을 기록함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15.7% 감소한 8조 7,491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1.3% 감소한 1,780억 원으로 나타남
- 2017년 연간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0.4% 감소한 15조 6,713억 원임

3)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해지하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연금전환 특약)이 있는 종신보험 상품을 의미함

4) 생명보험협회 민원공시; 매일일보(2018. 4. 2), “불완전판매로 신뢰도 추락한 보장성보험…2년새 52조나 하락”; 브릿지경제(2017. 11. 15), “올 들어 종신보험 민원 증가세…3분기 평균 13.2건”

5) 피보험자가 생존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이 있음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때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기간 중 미리 정해진 시점(보험기간의 만료 시를 포함)에 생존하고 있을 때에는 생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양로보험이 이에 해당함. 만기생존 시 생존보험금의 합계가 납입보험료보다 크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됨

7) 2017년 4월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저축성보험 보험료 납입 유형에 따라 일시납은 1억 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됨

8) 단체보험에는 일반단체보험,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음

〈표 7〉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2016	2017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수입보험료	214,279 (-13.2)	54,189 (-5.0)	48,844 (-8.8)	47,178 (-9.9)	46,058 (-10.2)	196,269 (-8.4)
	초회보험료 ²⁾	34,489 (-44.5)	10,219 (-11.6)	5,001 (-41.5)	4,037 (-47.7)	3,513 (-46.0)	22,770 (-34.0)
	계속보험료	179,790 (-2.6)	43,970 (-3.3)	43,844 (-2.6)	43,141 (-3.0)	42,545 (-5.0)	173,500 (-3.5)
사망	수입보험료	386,607 (7.3)	99,001 (2.6)	100,051 (4.4)	99,955 (3.3)	99,875 (2.5)	398,882 (3.2)
	초회보험료	19,126 (-5.7)	3,897 (-47.8)	3,574 (-15.9)	2,940 (-28.0)	2,257 (-32.1)	12,668 (-33.8)
	계속보험료	367,480 (8.1)	95,103 (6.8)	96,477 (5.3)	97,015 (4.6)	97,618 (3.7)	386,214 (5.1)
생사 혼합	수입보험료	228,294 (6.8)	58,554 (-11.9)	50,646 (-9.6)	44,188 (-21.8)	38,246 (-22.4)	191,634 (-16.1)
	초회보험료	55,353 (28.2)	16,753 (-24.9)	10,786 (-17.4)	5,678 (-54.3)	3,014 (-60.1)	36,231 (-34.5)
	계속보험료	172,941 (1.4)	41,801 (-5.2)	39,860 (7.3)	38,510 (-2.7)	35,232 (-15.6)	155,403 (-10.1)
변액 보험	수입보험료	194,062 (-6.0)	49,794 (3.2)	47,414 (-1.3)	50,063 (0.6)	48,966 (2.0)	196,237 (1.1)
	초회보험료	12,815 (-0.1)	5,455 (-15.5)	2,972 (-13.3)	5,893 (34.6)	5,243 (-11.2)	19,563 (52.7)
	계속보험료	181,247 (-6.4)	44,339 (-3.8)	44,443 (-2.2)	44,169 (-2.7)	43,723 (-1.4)	176,674 (-2.5)
개 인 계	수입보험료	1,023,242 (-0.4)	261,538 (-2.5)	246,956 (-2.6)	241,383 (-5.5)	233,145 (-5.3)	983,022 (-3.9)
	초회보험료	121,784 (-12.0)	36,325 (-16.5)	22,332 (-21.6)	18,548 (-35.5)	14,027 (-33.4)	91,232 (-25.1)
	계속보험료	901,458 (1.4)	225,214 (0.2)	224,623 (-0.2)	222,835 (-1.7)	219,118 (-2.6)	891,790 (-1.1)
일반 단체	수입보험료	7,619 (-1.5)	2,149 (1.4)	1,923 (1.1)	1,798 (0.2)	1,780 (-1.3)	7,649 (0.4)
	초회보험료	1,375 (7.4)	598 (8.4)	350 (14.5)	250 (-3.1)	231 (-11.0)	1,430 (3.9)
	계속보험료	6,243 (-3.3)	1,551 (-1.1)	1,573 (-1.5)	1,547 (0.7)	1,548 (0.3)	6,219 (-0.4)
퇴직 연금	수입보험료	167,252 (22.1)	22,326 (13.6)	25,112 (-9.8)	14,135 (-11.8)	87,491 (-15.7)	149,064 (-10.9)
	초회보험료	31,542 (-27.4)	4,949 (12.5)	5,357 (5.2)	2,236 (-32.1)	16,641 (-11.3)	29,184 (-7.5)
	계속보험료	135,710 (45.1)	17,378 (14.0)	19,755 (-13.2)	11,898 (-6.5)	70,849 (-16.6)	119,880 (-11.7)
단 체 계 ³⁾	수입보험료	174,871 (20.8)	24,475 (12.4)	27,035 (-9.1)	15,932 (-10.6)	89,270 (-15.4)	156,713 (-10.4)
	초회보험료	32,917 (-26.4)	5,547 (12.0)	5,707 (5.7)	2,487 (-30.0)	16,873 (-11.3)	30,613 (-7.0)
	계속보험료	141,954 (41.9)	18,928 (12.6)	21,328 (-12.4)	13,446 (-5.8)	72,397 (-16.3)	126,099 (-11.2)
합계	수입보험료	1,198,112 (2.2)	286,014 (-1.4)	273,991 (-3.3)	257,315 (-5.8)	322,415 (-8.3)	1,139,735 (-4.9)
	초회보험료	154,701 (-15.5)	41,872 (-13.6)	28,039 (-17.2)	21,035 (-34.9)	30,899 (-22.9)	121,845 (-21.2)
	계속보험료	1,043,411 (5.5)	244,142 (1.1)	245,951 (-1.4)	236,281 (-2.0)	291,516 (-6.4)	1,017,890 (-2.4)

주: 1) 괄호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1회 납입 보험료를 의미함

3) 단체보험에는 일반단체보험,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2년 이후 퇴직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퇴직연금 의무 가입의 실시로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에 포함시켜 작성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시장점유율〉

- 2017년 4/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의 경우 상위 3사는 전년동기 대비 하락한 반면, 국내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상승함
 -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 대비 2.6%p 하락한 44.8%를 기록함
 - 국내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0.8%p, 1.7%p 상승한 39.9%, 15.3%를 나타냄
 - 2017년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은 상위 3사와 국내 중·소형사의 비중이 전년 대비 하락한 반면, 외국사 비중은 상승함
- 2017년 4/4분기 초회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또한 상위 3사는 전년동기 대비 하락한 반면, 국내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상승함
 - 상위 3사의 초회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 대비 0.2%p 하락한 25.2%를 기록함
 - 국내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초회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일부 회사의 변액보험 판매 증가로 각각 전년동기 대비 0.1%p씩 상승한 59.8%, 14.9%를 기록함
 - 2017년 연간 초회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은 일부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 확대로 외국사 비중이 22.3%에서 29.3%로 상승하였고, 상위 3사와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9.9%, 40.8%로 나타남
- 2017년 4/4분기 생명보험 허핀달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79 하락한 1,013을 기록함
 - 2017년 연간 생명보험 허핀달지수는 전년 대비 33 하락한 994를 나타냄

〈표 8〉 생명보험 시장점유율¹⁾

(단위: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수 입 보 험 료	점 유 율 ²⁾	상위 3사	47.4	46.2	45.5	44.8	46.7	44.8	45.4
		국내 중·소형사 ³⁾	39.1	37.2	34.7	35.8	34.7	39.9	36.4
		외국사 ⁴⁾	13.6	16.6	19.8	19.4	18.6	15.3	18.1
		허핀달지수 ⁵⁾	1,092	1,027	1,003	970	1,031	1,013	994
초 회 보 험 료	점 유 율	상위 3사	25.4	29.6	32.2	29.9	32.3	25.2	29.9
		국내 중·소형사 ³⁾	59.7	48.1	32.5	33.2	39.3	59.8	40.8
		외국사 ⁴⁾	14.8	22.3	35.2	36.9	28.4	14.9	29.3

주: 1) 퇴직보험·연금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각 회사점유율 = 각 회사 수입보험료 / 전체 수입보험료, 상위 3사, 국내 중·소형사, 외국사 점유율은 회사 분류에 따라 각 회사 점유율을 합한 값임

3) 국내 중·소형사(13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이며, 동양생명은 2015년 10월 중국 안방보험에 인수·합병됨에 따라 2015년 4/4분기부터 외국사에 포함됨

4) 외국사는 ABL 등을 포함한 9개사임

5)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 제곱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지수가 1,800 이상인 경우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시장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 2017년 4/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개인보험 대부분 종목의 보험금 지급률 상승으로 전년동기 대비 10.3%p 상승한 69.0%를 기록함
 -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지급률은 수입보험료가 감소한 반면 지급보험금은 증가함에 따라 각각 전년동기 대비 12.0%p, 16.0%p 상승한 91.7%, 84.0%를 기록함
 - 사망보험과 변액보험 지급률도 지급보험금이 증가하여 각각 전년동기 대비 5.9%p, 6.3%p 상승한 54.2%, 77.9%를 기록함
 - 2017년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 대비 9.9% 상승한 69.7%임
- 2017년 4/4분기 생명보험산업 전체 사업비율은 전년동기 대비 2.0%p 상승한 13.5%이며, 해지율은 전년동기와 같은 8.5%를 기록함
 - 2017년 연간 생명보험산업 사업비율은 전년 대비 1.6%p 상승한 14.5%이며, 해지율은 전년과 동일한 8.5%를 나타냄

〈표 9〉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단위: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전체 보험금 지급률 ¹⁾	58.7	59.8	69.5	67.7	72.9	69.0	69.7
개인	63.3	59.0	64.9	65.0	69.9	71.5	67.7
생존	79.7	71.4	76.9	81.1	90.3	91.7	84.7
사망	48.3	48.1	51.4	48.4	53.5	54.2	51.9
생사혼합	68.0	56.3	67.7	71.0	78.1	84.0	74.2
변액	71.6	70.2	75.3	76.8	76.3	77.9	76.6
단체	48.1	64.7	119.0	93.1	117.9	62.5	82.2
일반단체	105.2	108.5	89.8	101.4	110.2	101.6	100.2
퇴직연금	47.1	62.7	121.8	92.5	118.9	61.7	81.3
사업비율 ²⁾	11.5	12.9	14.2	14.5	15.9	13.5	14.5
해지율 ³⁾	8.5	8.5	2.4	4.5	6.5	8.5	8.5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2)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3)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해지율은 누계치임. 여기서 효력상실액이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일정한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고 이 때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을 의미함. 그리고 해지액이란 보험가입자가 중도 해지 시 보험료 적립금에서 보험회사의 운영비 및 해지공제액 등을 제하고 돌려받는 금액을 의미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판매채널별 초회보험료 비중⁹⁾〉

■ 2017년 4/4분기 판매채널별 초회보험료 비중의 경우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의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됨

- 임직원, 설계사와 대리점 비중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7.6%p, 1.2%p, 0.4%p 상승한 53.3%, 16.4%, 6.6%를 기록함
- 방카슈랑스 비중은 주력 상품인 저축성보험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 대비 9.6%p 축소된 23.1%를 나타냄
- 2017년 연간 판매채널별 초회보험료 비중의 경우도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의 비중이 전년 대비 확대된 반면, 방카슈랑스 비중은 축소됨

〈표 10〉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초회보험료 비중

(단위: %, 억 원)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임직원	45.7	20.5	12.6	19.8	11.0	53.3	24.3
설계사	15.2	16.4	16.2	17.8	26.4	16.4	18.4
대리점	6.2	6.3	6.6	6.9	9.5	6.6	7.2
중개사	0.0	0.1	0.2	0.1	0.2	0.0	0.1
방카슈랑스	32.7	56.6	64.3	55.2	52.5	23.1	49.7
기타	0.2	0.2	0.2	0.3	0.5	0.5	0.3
합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0,065	154,701	41,872	28,039	21,035	30,899	121,845

주: 1) 합계의 하단 수치는 전체 초회보험료 규모임

2) 현재 온라인 채널 초회보험료 비중은 이용 가능한 자료가 없어 제시하지 못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9) 판매채널은 크게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로 구분되며, 최근 온라인 채널 등 새로운 채널도 등장하였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표 10〉과 같이 판매채널을 구분하여 초회보험료(1회 납입보험료) 비중을 제시함

〈모집조직〉

■ 2017년 4/4분기 생명보험 모집조직은 임직원 수, 전속설계사 수는 전분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대리점 수는 증가함

- 임직원 수는 전분기 대비 300명 감소한 2만 5,391명임
- 전속설계사수는 전분기 대비 2,157명 감소한 10만 7,037명을 나타냈으며, 교차설계사 수는 전분기 대비 154명 증가한 1만 5,384명을 기록함
- 전체 대리점 수는 전분기 대비 137개 증가한 6,450개임
 - 개인대리점 수는 3,526개로 전분기 대비 2개 감소한 반면, 법인대리점 수는 2,924개로 전분기 대비 139개 증가함

〈표 11〉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2016	2017			
	4/4	1/4	2/4	3/4	4/4
임직원(명)	26,890	26,304	25,993	25,691	25,391
설계사(명)					
- 전속설계사	111,813	111,124	111,393	109,194	107,037
- 교차설계사	12,764	13,774	14,701	15,230	15,384
대리점(개)	6,324	6,474	6,569	6,313	6,450
- 개인	3,413	3,476	3,553	3,528	3,526
- 법인	2,911	2,998	3,016	2,785	2,924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재무성과

〈자산〉

- 2017년 4/4분기 말 생명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분기 대비 1.3% 증가한 832조 8,269억 원을 기록함
 - 일반계정 자산은 전분기 대비 1.4% 증가한 687.2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특별계정 자산은 전분기 대비 0.5% 증가한 145.6조 원을 나타냄
 - 2017년 말 생명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년 대비 6.5% 증가함

〈표 12〉 생명보험산업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자산¹⁾

(단위: 조 원,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자산	금액	782.2	782.2	793.5	813.2	822.4	832.8	832.8
	증가율	0.9	7.9	1.5	2.5	1.1	1.3	6.5
일반계정 자산	금액	649.7	649.7	653.9	669.4	677.5	687.2	687.2
	증가율	1.0	8.1	0.6	2.4	1.2	1.4	5.8
특별계정 자산	금액	132.4	132.4	139.6	143.8	144.8	145.6	145.6
	증가율	-0.1	7.0	5.4	3.0	0.7	0.5	10.0

주: 1) 분기 수치는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며, 연간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가율임

2) 일부 수치가 반올림으로 인해 동일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으나 증가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부채·자본〉

- 2017년 4/4분기 말 생명보험산업 총부채는 전분기 대비 1.6% 증가한 761조 3,800억 원이며, 총자본은 전분기 대비 1.8% 감소한 71조 4,469억 원임
 - 총부채 가운데 책임준비금과 특별계정부채는 보장성보험과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 증가로 인해 각각 전분기 대비 1.4%, 3.5% 증가함
 - 총자본 가운데 특히 자본잉여금은 전분기 일부 보험회사의 자본확충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분기 대비 12.4% 감소하였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매도가능 증권평가손실 증가로 전분기 대비 5.4% 감소함
 - 2017년 말 생명보험산업 총부채는 전년 대비 6.3%, 총자본은 8.6% 증가함

〈표 13〉 생명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¹⁾

(단위: 조 원,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자산	금액	782.2	782.2	793.5	813.2	822.4	832.8	832.8
	증가율	0.9	7.9	1.5	2.5	1.1	1.3	6.5
총부채	금액	716.4	716.4	725.5	741.1	749.6	761.4	761.4
	증가율	2.2	8.4	1.3	2.1	1.2	1.6	6.3
책임준비금	금액	548.2	548.2	557.3	565.9	573.6	581.7	581.7
	증가율	2.0	8.4	1.7	1.5	1.4	1.4	6.1
계약자 지분조정	금액	10.1	10.1	10.6	11.7	11.7	11.5	11.5
	증가율	-18.4	6.9	5.2	9.6	0.5	-1.9	13.7
기타부채	금액	19.5	19.5	16.7	17.9	18.4	17.2	17.2
	증가율	8.1	9.9	-14.6	7.6	2.7	-6.6	-11.9
특별계정부채	금액	138.6	138.6	140.8	145.5	145.8	151.0	151.0
	증가율	4.1	8.3	1.6	3.3	0.2	3.5	9.0
총자본	금액	65.8	65.8	68.1	72.1	72.8	71.4	71.4
	증가율	-11.7	2.8	3.5	5.9	0.9	-1.8	8.6
자본금	금액	10.4	10.4	10.7	10.3	10.3	10.3	10.3
	증가율 ²⁾	0.1	0.2	2.6	-3.8	0.0	0.0	-1.3
자본잉여금	금액	6.1	6.1	6.6	7.5	8.0	7.0	7.0
	증가율	0.8	1.2	8.4	13.8	7.2	-12.4	15.9
이익잉여금	금액	29.2	29.2	30.1	31.5	32.1	31.5	31.5
	증가율	-3.4	4.7	3.1	4.5	2.1	-2.1	7.7
자본조정	금액	-3.1	-3.1	-3.1	-3.1	-3.1	-3.1	-3.1
	증가율	0.0	21.1	0.1	0.0	0.0	0.0	0.1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금액	23.3	23.3	23.8	26.0	25.5	24.1	24.1
	증가율	-25.0	4.1	2.5	9.2	-2.1	-5.4	3.7

주: 1) 분기 수치는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며, 연간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가율임

2) 일부 수치가 반올림으로 인해 동일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으나 증가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총수익 · 총비용〉

- 2017년 4/4분기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A)은 보험영업 적자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1조 344억 원 증가한 1,056억 원을 기록함
 - 책임준비금 전입액을 감안한 보험영업 적자는 금리 상승에 따른 책임준비금전입액 축소로 전년동기 대비 1,292억 원 감소한 5조 9,026억 원을 기록함
 - 투자영업이익은 당기손익인식증권의 평가이익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56억 원 감소한 4조 9,254억 원을 기록함
 - 영업외이익은 특별계정수수료 수입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839억 원 증가한 1조 2,072억 원임
- 2017년 연간 기준 당기순이익(B)은 전년 대비 59.1% 증가한 3조 9,150억 원을 기록함
 - 이는 책임준비금전입액 축소로 인한 보험영업 적자 감소와 배당 및 이자수익 증가 등으로 인한 투자영업이익 증가에 기인함

〈표 14〉 생명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1),2)}

(단위: 십억 원,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수익	보험영업	20,470	85,204	21,784	20,538	19,713	19,046	81,081
	투자영업	5,884	29,325	13,255	5,070	6,499	10,940	35,763
	영업외	1,273	4,960	1,291	1,346	1,406	1,350	5,393
	소계	27,627	119,489	36,330	26,954	27,618	31,336	122,237
총비용	보험영업 ³⁾	27,665	107,592	26,891	25,443	25,292	24,949	102,575
	투자영업	953	7,949	7,221	-529	1,063	6,014	13,769
	영업외	150	820	221	185	185	143	734
	소계	28,768	116,362	34,332	25,099	26,540	31,106	85,113
수지차	보험영업	-7,195	-22,389	-5,107	-4,905	-5,579	-5,903	-21,493
	투자영업	4,931	21,376	6,034	5,599	5,435	4,925	21,995
	영업외	1,123	4,110	1,070	1,161	1,221	1,207	4,659
	소계	-1,140	3,127	1,997	1,855	1,077	230	5,160
법인세		-212	667	423	453	244	124	1,245
당기순이익(A) ⁴⁾		-929 (881.4)	2,461 (-31.5)	1,574 (18.6)	1,402 (44.5)	834 (-23.7)	106 (-111.4)	3,915 (59.1)
연간 기준 당기순이익(B) ⁵⁾		2,461 (-31.5)	2,461 (-31.5)	6,296 (18.6)	5,951 (29.6)	5,079 (12.4)	3,915 (59.1)	3,915 (59.1)

주: 1)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2) 괄호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3) 책임준비금전입액을 감안한 수치이고, 책임준비금전입액은 책임준비금(부채)에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반대의 경우 책임준비금환입액)을 의미하며, 손익계산서의 보험영업비용(반대의 경우 수익) 항목임

4) 당기순이익 = 총수익 - 총비용 - 책임준비금전입액 - 법인세

5)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기준 환산한 수치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자산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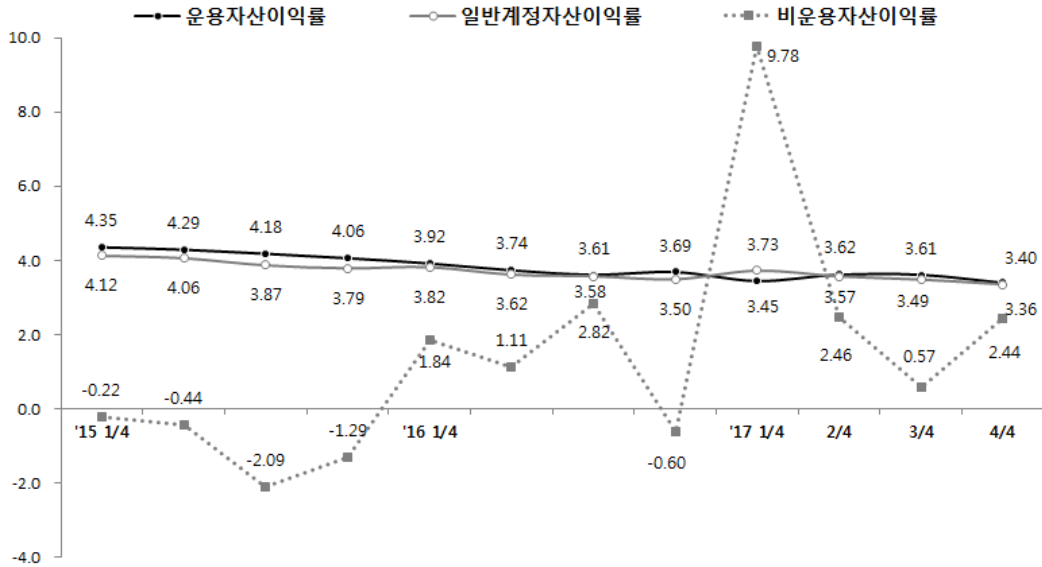
- 2017년 4/4분기 생명보험산업 일반계정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0.14%p 하락한 3.36%를 기록함
 - 운용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0.29%p 하락한 3.40%임
 - 특히, 매도가능증권 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0.47%p 하락한 2.94%를 기록하였으며, 대출채권 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0.04%p 상승한 4.70%를 기록함
 - 부동산 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1.69%p 하락한 3.77%를 나타냄
 - 비운용자산 이익률¹⁰⁾은 전년동기 대비 3.04%p 상승한 2.44%를 기록함
- 2017년 4/4분기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의 경우 유가증권이 72.9%, 대출채권이 18.6%, 부동산이 2.0%, 현금과 예금이 2.0%를 차지하였으며, 비운용자산 비중은 4.5%를 나타냄¹¹⁾
 - 현금과 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비중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0.3%p, 0.2%p씩 하락한 반면, 대출채권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0.5%p 상승함

10) 비운용자산 중 파생상품자산, 보증금, 미수수익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이익률이 집계됨

11) 일반계정 자산은 크게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별 비중은 전체 일반계정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그림 2〉 자산운용 이익률 추이^{1),2),3)}

(단위: %)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 기준 환산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분기별 누적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15〉 생명보험 일반계정자산 포트폴리오 및 이익률¹⁾

(단위: %, 억 원)

구분	2016		2017							
	4/4		1/4		2/4		3/4		4/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	3.50	100.0	3.73	100.0	3.57	100.0	3.49	100.0	3.36
운용자산 계	95.8	3.69	95.3	3.45	95.9	3.62	95.9	3.61	95.5	3.40
현금과 예금	2.3	2.23	2.0	-0.65	1.8	1.00	1.6	1.49	2.0	0.86
유가증권	73.1	3.44	73.0	3.23	73.9	3.41	74.0	3.38	72.9	3.14
○ 당기손익인식증권 ²⁾	1.7	2.25	1.8	3.60	2.1	4.21	1.6	4.14	1.5	3.76
- 주식	0.1	5.50	0.1	35.94	0.1	46.34	0.1	35.57	0.0	86.14
- 채권 등	0.6	2.10	0.5	2.38	0.5	3.46	0.5	3.48	0.5	2.44
- 수익증권	1.0	1.38	1.2	1.32	1.5	1.38	1.0	1.64	1.0	1.64
○ 매도가능증권	51.7	3.41	47.3	3.13	47.4	3.36	47.2	3.33	50.4	2.94
- 주식	3.9	2.12	4.3	6.82	4.8	4.36	5.0	3.31	4.9	2.45
- 채권 등	44.0	3.50	39.1	2.55	38.6	2.99	38.0	3.09	41.2	2.72
- 수익증권	3.7	3.57	3.9	5.40	4.0	6.15	4.1	5.92	4.2	5.84
○ 만기보유증권	18.2	3.76	22.3	3.06	22.9	3.34	23.6	3.39	19.5	3.66
- 채권 등	18.2	3.76	22.3	3.06	22.9	3.34	23.6	3.39	19.5	3.66
- 수익증권	0.0	-	0.0	-	0.0	-	0.0	-	0.0	-
○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1.5	2.51	1.5	8.63	1.5	5.04	1.5	3.79	1.5	2.82
대출채권	18.1	4.66	18.2	4.59	18.1	4.71	18.3	4.73	18.6	4.70
부동산	2.2	5.46	2.2	5.17	2.1	4.18	2.0	4.26	2.0	3.77
비운용자산 계	4.2	-0.60	4.7	9.78	4.1	2.46	4.1	0.57	4.5	2.44
일반계정자산 규모	6,497,345		6,539,108		6,693,783		6,775,454		6,872,177	
일반계정자산 비중	(83.1)		(82.4)		(82.3)		(82.4)		(82.5)	
총자산 규모	7,821,621		7,935,396		8,131,676		8,223,727		8,328,269	

주: 1)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 기준 환산

2) FY2011 1/4분기 이후 단기매매증권에서 당기손익인식증권으로 계정 명칭이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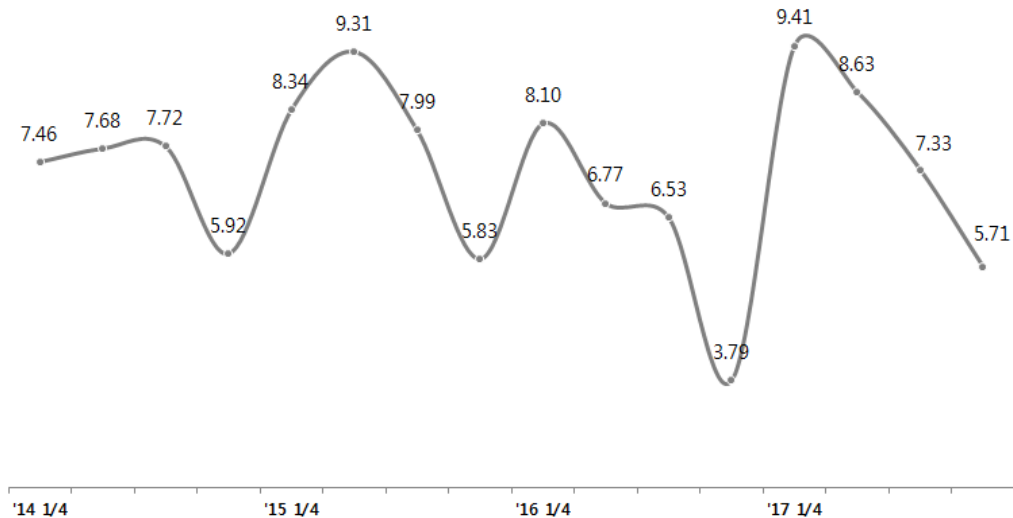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본이익률(ROE)¹²⁾〉

- 2017년 4/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1.92%p 상승한 5.71%를 기록함
- 이는 생명보험산업의 연간 기준 당기순이익(B)(〈표 14〉 참조)이 전년동기 대비 59.1% 증가했기 때문임

〈그림 3〉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추이

(단위: %)



주: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7년 4/4분기 생명보험산업 회사 그룹별¹³⁾ 자본이익률의 경우 대형사와 외국사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반면, 중·소형사는 하락함
- 대형사, 외국사의 자본이익률이 각각 전년동기 대비 1.39%p, 7.36%p 상승한 4.88%, 11.48%를 기록함
- 중·소형사의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0.17%p 하락한 4.15%을 나타냄

12)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은 기중자본 대비 누적 당기순이익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은 25개 생명보험회사임

13) 2015년 회계연도부터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방카사로 분류되었던 회사 분류를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로 분류하여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거 통계치도 동일한 분류에 따라 수정함

〈표 16〉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¹⁾

(단위: %)

구분	2016	2017			
	4/4	1/4	2/4	3/4	4/4
대형사	3.49	9.73	8.32	6.77	4.88
중·소형사	4.32	4.82	5.65	4.74	4.15
외국사	4.12	14.93	14.21	12.90	11.48
전체	3.79	9.41	8.63	7.33	5.71

주: 1)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연 기준 환산)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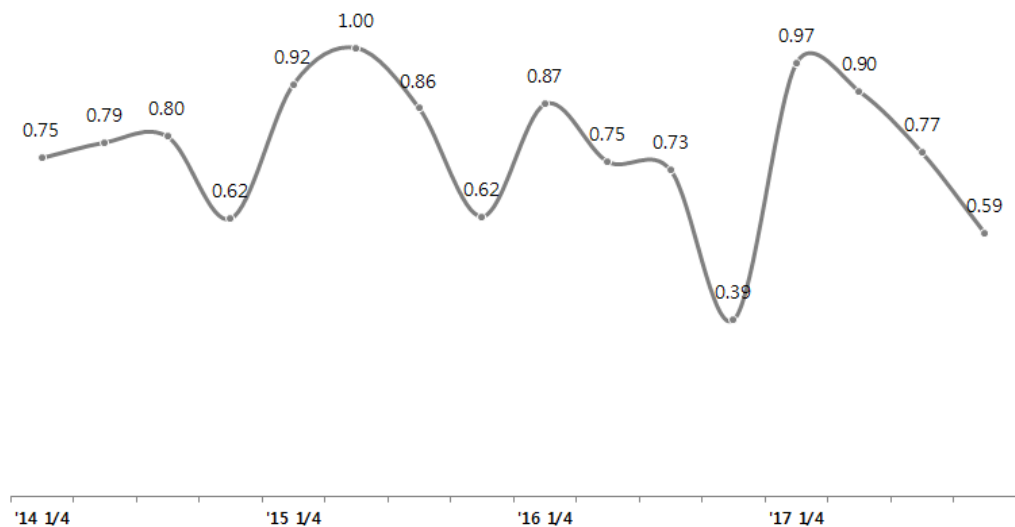
〈자산이익률(ROA)¹⁴⁾〉

- 2017년 4/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0.20%p 상승한 0.59%를 기록함
- 대형사, 외국사의 자산이익률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0.17%p, 0.84%p 상승한 0.56%, 1.34%를 나타냄
- 중·소형사의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0.04%p 하락한 0.31%를 기록함

14)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산이익률은 기중자산(특별계정자산 제외) 대비 누적 당기순이익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은 25개 생명보험회사임

〈그림 4〉 생명보험산업 자산이익률 추이

(단위: %)



주: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17〉 생명보험산업 자산이익률¹⁾

(단위: %)

구분	2016	2017			
	4/4	1/4	2/4	3/4	4/4
대형사	0.39	1.10	0.97	0.79	0.56
중·소형사	0.35	0.37	0.43	0.36	0.31
외국사	0.50	1.83	1.75	1.62	1.34
전체	0.39	0.97	0.90	0.77	0.59

주: 1) 자산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연 기준 환산) / 기중자산, 기중자산(특별계정자산 제외) = ((전회계연도 말 자산 + 당기 말 자산)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원수보험료〉

- 2017년 4/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8.0% 증가한 26조 4,660억 원을 시현함
 - 장기손해보험은 상해 및 질병보험과 운전자보험 등의 성장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저축성 보험의 축소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한 12조 2,616억 원을 기록함
 - 연금부문은 개인연금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이 크게 증가하여 30.7% 증가한 7조 9,655억 원을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은 특종보험과 보증보험의 성장이 둔화되고 해상보험 등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2조 2,242억 원을 기록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대인배상Ⅰ 보험료 감소세, 대인배상Ⅱ를 제외한 모든 종합보험 종목의 감소세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8% 감소한 4조 149억 원을 기록함
 - 2017년 연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연금부문과 일반손해보험의 증가로 전년 대비 4.5% 증가한 88조 3,334억 원임

〈표 18〉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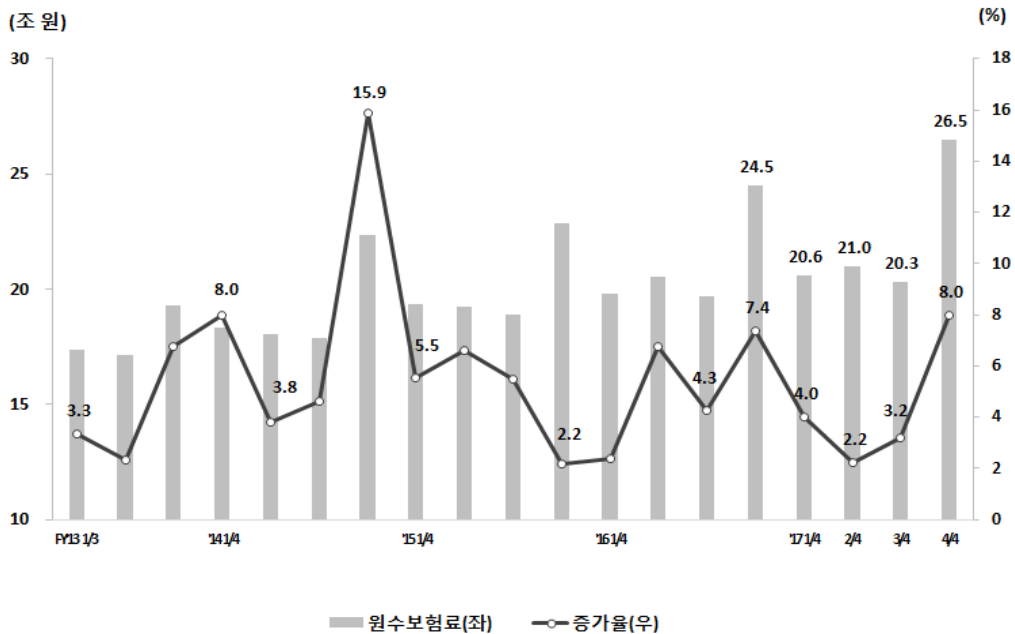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장기손해보험	12.1 (3.1)	47.8 (2.6)	12.3 (4.0)	12.2 (2.7)	12.3 (2.8)	12.3 (1.6)	49.1 (2.8)
연금부문	6.1 (21.7)	11.8 (13.8)	1.9 (-1.6)	2.1 (-6.3)	1.6 (-2.5)	8.0 (30.7)	13.5 (14.1)
자동차보험	4.2 (5.4)	16.4 (9.4)	4.2 (7.1)	4.3 (3.9)	4.3 (5.2)	4.0 (-4.8)	16.9 (2.8)
일반손해보험	2.1 (1.1)	8.5 (2.6)	2.2 (3.4)	2.4 (5.1)	2.1 (6.6)	2.2 (4.3)	8.9 (4.8)
전체	24.5 (7.4)	84.5 (5.3)	20.6 (4.0)	21.0 (2.2)	20.3 (3.2)	26.5 (8.0)	88.3 (4.5)

주: 1) 괄호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연금부문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으로 구성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 원수보험료 추이



1) 장기손해보험

- 2017년 4/4분기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상해 및 질병보험, 운전자보험 등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축성보험의 지속적인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한 12조 2,616억 원을 시현함
 - 장기저축성보험은 세제혜택 요건 강화¹⁵⁾와 보험회사의 판매부담 등으로 인한 전년동기 대비 28.6% 감소함
 - 장기상해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하고 장기질병보험은 성장세가 전분기 대비 소폭 확대되면서 9.7% 증가함
 - 장기운전자보험과 장기재물보험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각각 12.2%, 6.0% 증가함
 - 통합형보험은 3/4분기에 이어 전년동기 대비 3.0% 감소함
 - 2017년 연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49조 880억 원을 기록함
 - 이는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장기저축성보험의 감소세가 심화되었기 때문임

15)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②항에 따라 2017년 4월 1일부터 저축성보험 이자 소득 비과세요건이 일시납 1억 원, 월적립식 150만 원으로 강화됨

■ 2017년 4/4분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장기상해보험의 저성장과 장기질병보험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장기저축성보험의 초회보험료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32.7% 감소한 2,495억 원에 그침

- 비중이 가장 큰 장기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2017년 4월 저축성보험 세제혜택 요건 강화의 영향 등으로 4/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63.6% 감소함
-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 초회보험료는 각각 2.9% 증가, 1.1% 감소함
 - 장기상해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분기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함
 - 장기질병보험 초회보험료는 특약 선택이 가능한 신 실손의료보험¹⁶⁾의 판매 이후로 감소세를 지속함
- 2017년 연간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년 대비 15.0% 감소한 1조 3,480억 원을 기록함
 - 이는 장기질병보험 초회보험료가 7.9% 증가하고 장기상해보험도 성장세를 보였으나 장기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가 32.8% 감소하였기 때문임

〈표 19〉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원수 보험료	상해	37,641 (8.8)	145,874 (10.0)	38,455 (8.6)	39,141 (8.1)	39,981 (9.2)	40,478 (7.5)	158,056 (8.4)
	운전자	8,084 (11.5)	30,767 (8.6)	8,365 (13.2)	8,580 (13.3)	8,881 (15.0)	9,067 (12.2)	34,893 (13.4)
	재물	10,679 (5.1)	41,803 (5.0)	10,822 (6.1)	11,049 (6.5)	11,215 (6.3)	11,317 (6.0)	44,403 (6.2)
	질병	32,543 (11.4)	125,663 (13.6)	33,652 (11.2)	34,183 (10.7)	35,012 (9.5)	35,703 (9.7)	138,550 (10.3)
	저축성	18,682 (-20.6)	82,488 (-21.2)	18,122 (-18.5)	16,148 (-23.7)	15,648 (-23.4)	13,346 (-28.6)	63,263 (-23.3)
	통합형	13,090 (5.5)	51,105 (2.6)	13,142 (6.3)	13,100 (2.8)	12,749 (-1.3)	12,699 (-3.0)	51,690 (1.1)
	자산연계형	7 (-12.0)	28 (-39.5)	6 (-15.7)	6 (-17.9)	6 (-10.3)	6 (-11.9)	24 (-14.0)
	소계	120,725 (3.1)	477,727 (2.6)	122,565 (4.0)	122,206 (2.7)	123,492 (2.8)	122,616 (1.6)	490,880 (2.8)

16) 금융위원회(2017. 3. 31), “4월 1일부터 보험료가 약 35%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초회 보험료	상해	628 (-18.6)	2,384 (-9.6)	678 (11.1)	509 (-12.7)	677 (20.0)	646 (2.9)	2,509 (5.3)
	운전자	273 (101.6)	795 (39.4)	203 (13.3)	216 (23.5)	246 (46.4)	212 (-22.5)	876 (10.2)
	재물	325 (11.2)	1,291 (8.9)	330 (10.5)	362 (8.8)	348 (3.9)	334 (2.8)	1,373 (6.4)
	질병	608 (-6.3)	2,499 (1.2)	992 (35.4)	532 (-2.1)	570 (-7.3)	601 (-1.1)	2,696 (7.9)
	저축성	1,832 (-33.6)	8,710 (-40.6)	2,029 (-5.4)	1,201 (-45.7)	1,955 (-22.4)	667 (-63.6)	5,852 (-32.8)
	통합형	43 (394.3)	189 (178.2)	50 (801.7)	41 (-48.6)	46 (-23.9)	36 (-16.2)	173 (-8.5)
	자산연계형	0 (-)	0 (-)	0 (-)	0 (-)	0 (-)	0 (-)	0 (-)
	소계	3,708 (-19.6)	15,867 (-26.5)	4,282 (7.8)	2,861 (-27.1)	3,842 (-9.9)	2,495 (-32.7)	13,480 (-15.0)
계속 보험료	상해	37,013 (9.5)	143,490 (10.4)	37,777 (8.5)	38,633 (8.4)	39,304 (9.1)	39,832 (7.6)	155,547 (8.4)
	운전자	7,811 (9.8)	29,973 (8.0)	8,162 (13.2)	8,364 (13.1)	8,636 (14.3)	8,856 (13.4)	34,017 (13.5)
	재물	10,354 (4.9)	40,512 (4.9)	10,492 (6.0)	10,687 (6.4)	10,868 (6.4)	10,983 (6.1)	43,030 (6.2)
	질병	31,935 (11.8)	123,163 (13.9)	32,661 (10.6)	33,650 (10.9)	34,442 (9.8)	35,102 (9.9)	135,855 (10.3)
	저축성	16,850 (-18.9)	73,778 (-18.0)	16,093 (-19.9)	14,947 (-21.1)	13,692 (-23.5)	12,679 (-24.8)	57,411 (-22.2)
	통합형	13,047 (5.3)	50,916 (2.4)	13,092 (5.9)	13,059 (3.1)	12,702 (-1.1)	12,663 (-2.9)	51,517 (1.2)
	자산연계형	7 (-12.0)	28 (-39.5)	6 (-15.7)	6 (-17.9)	6 (-10.3)	6 (-11.9)	24 (-14.0)
	소계	117,018 (4.0)	461,860 (4.0)	118,283 (3.9)	119,346 (3.8)	119,650 (3.2)	120,121 (2.7)	477,400 (3.4)

주: 1) 괄호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초회보험료는 1회 납입보험료를 의미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7년 4/4분기 전체 장기손해보험 해지율은 전년동기 수준인 10.2%를 기록함
- 장기상해보험 해지율은 전년동기 대비 0.1%p 하락한 9.9%를 기록함
 -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이 3.8% 증가하였으며, 연초 보유계약액 및 신계약액은 4.0% 증가함
 - 장기저축성보험 해지율은 전년동기 대비 0.7%p 하락한 8.0%를 기록함
 -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의 감소폭(-18.7%)이 연초 보유계약액 및 신계약액 감소폭(-11.4%)보다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임
 - 장기운전자보험 해지율은 전년동기 대비 0.2%p 상승한 11.9%를 기록함
 -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이 3.9% 증가하였으나, 연초 보유계약액 및 신계약액은 2.7% 증가하였기 때문임
 - 장기재물보험 해지율은 전년동기 대비 0.1%p 상승한 13.0%를 기록함
 -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이 22.1% 증가하였으나, 연초 보유계약액 및 신계약액은 21.2% 증가하였기 때문임
 - 장기질병보험 해지율은 전년동기 대비 0.3%p 하락한 8.7%를 기록함
 -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이 10.0% 증가하였으나, 연초 보유계약액 및 신계약액도 13.8% 증가하였기 때문임

〈표 20〉 장기손해보험 해지율

(단위: %)

구분	2016	2017			
	4/4	1/4	2/4	3/4	4/4
상해	10.0	2.9	5.4	7.6	9.9
운전자	11.7	3.4	6.4	9.1	11.9
재물	12.9	3.9	7.2	10.3	13.0
질병	9.0	2.5	4.6	6.6	8.7
저축성	8.7	2.2	4.2	6.1	8.0
통합형	5.7	1.9	3.5	5.4	7.3
계	10.2	3.0	5.5	7.9	10.2

주: 1)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보유계약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연금부문

- 2017년 4/4분기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의 감소세 지속에도 퇴직연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30.7% 증가한 7조 9,653억 원을 기록함
- 개인연금은 전년동기 대비 5.0% 감소한 9,196억 원을 기록하며 감소세가 지속됨
 - 퇴직연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세가 확대되어 37.5% 증가한 7조 457억 원임
 - 2017년 연간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이 4.5% 감소한 반면 퇴직연금이 23.1%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4.1% 증가한 13조 4,764억 원을 시현함

〈표 21〉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원수보험료^{1),2)}

(단위: 억 원,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개인 연금	보험료	9,676	38,768	9,377	9,255	9,179	9,196	37,007
	증가율	(-4.5)	(-3.6)	(-4.3)	(-4.5)	(-4.4)	(-5.0)	(-4.5)
	구성비	15.9	32.8	50.1	44.4	59.1	11.5	27.5
퇴직 연금 ³⁾	보험료	51,247	79,392	9,335	11,603	6,363	70,457	97,757
	증가율	(28.4)	(24.7)	(1.2)	(-7.7)	(0.2)	(37.5)	(23.1)
	구성비	84.1	67.2	49.9	55.6	40.9	88.5	72.5
합계	보험료	60,923	118,160	18,712	20,858	15,542	79,653	134,764
	증가율	(21.7)	(13.7)	(-1.6)	(-6.3)	(-2.5)	(30.7)	(14.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구성비는 연금부문 합계 중 차지하는 비중임

3) 퇴직보험을 포함한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자동차보험

- 2017년 4/4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대인배상 I 보험료 감소, 대인배상 II를 제외한 모든 종합보험 종목의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8% 감소한 4조 149억 원을 기록함
- 대인배상 I은 전년동기 대비 5.1% 감소하면서 6,915억 원을 기록함
 - 대인배상 I 보험료는 가장 규모가 큰 개인용 대인배상 I 원수보험료가 감소세로 전환 (-2.7%)되면서 감소함

-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4.8% 감소한 3조 1,263억 원을 기록함
 - 대인배상 Ⅱ¹⁷⁾는 15.8% 증가한 반면 대물, 자차, 자손 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6.8%, 15.1%, 2.3% 감소함
- 2017년 연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2017년 하반기 대형 손해보험회사 중심의 요율 인하,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¹⁸⁾ 감소, 마일리지 보험 확산 등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한 16조 8,573억 원을 시현함

〈표 22〉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대인 I		7,288 (-4.0)	29,394 (-1.5)	7,342 (0.6)	7,525 (0.0)	7,534 (3.5)	6,915 (-5.1)
종합 보험	대인 Ⅱ	5,894 (29.9)	20,708 (27.1)	6,157 (37.0)	6,473 (29.7)	6,964 (30.7)	6,825 (15.8)
	대물	15,988 (10.8)	61,167 (15.5)	15,930 (10.9)	16,068 (4.6)	16,070 (4.0)	14,898 (-6.8)
	자차	9,116 (-5.5)	37,366 (3.0)	8,838 (-7.7)	8,801 (-7.7)	8,494 (-7.1)	7,737 (-15.1)
	자손	1,572 (-0.7)	6,135 (4.4)	1,533 (3.1)	1,574 (2.1)	1,631 (6.4)	1,537 (-2.3)
	무보험	280 (2.7)	1,102 (9.5)	276 (6.0)	287 (1.2)	290 (4.2)	267 (-4.9)
	소계	32,851 (7.8)	126,477 (12.5)	32,734 (8.5)	33,204 (4.7)	33,449 (5.4)	31,263 (-4.8)
외화표시		0 (-100.0)	1 (-98.9)	0 (-100.0)	0 (-100.0)	0 (-100.0)	0 (-100.0)
기타		2,012 (3.9)	8,181 (8.2)	2,098 (9.8)	2,266 (5.5)	2,273 (7.7)	1,970 (-2.1)
합계		42,151 (5.4)	164,053 (9.4)	42,174 (7.1)	42,995 (3.9)	43,256 (5.2)	40,149 (-4.8)

주: 1) 괄호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구분란의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이륜자동차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원수보험료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7)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장래비 및 사망 후유장애 위자료가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보험료 인상요인 발생(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 12. 27),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18)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은 2015년 4.3%, 2016년 3.9%, 2017년 3.3%로 감소세를 보임

- 2017년 4/4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0.9%p 하락한 86.9%를 나타냄
- 대인배상 I 손해율은 3.7%p 하락한 88.3%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발생손해액이 6.0% 감소한 반면 경과보험료¹⁹⁾는 2.1% 감소하였기 때문임
 - 종합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 대비 0.5%p 증가한 87.1%를 나타냈는데, 이는 발생손해액이 3.2% 증가하였으나 경과보험료는 2.7% 증가하였기 때문임
 - 대인배상Ⅱ 손해율의 경우 24.3%p 하락한 117.9%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발생손해액이 2.7% 증가하였으나 경과보험료가 23.8% 증가하였기 때문임
 - 대물배상 손해율의 경우 0.1%p 상승한 79.1%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발생손해액이 3.5% 증가하고 경과보험료가 3.4%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17년 연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대비 2.1%p 개선된 80.9%를 시현함
 - 이는 경과보험료가 전년 대비 5.4% 증가한 반면 발생손해액은 2.8% 증가에 그쳤기 때문임

〈표 23〉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

(단위: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대인 I		92.0	78.3	77.9	77.1	79.7	88.3	80.8
종합보험	대인 II	142.2	136.6	120.0	113.4	104.5	117.9	113.8
	대물	79.0	80.9	71.7	72.5	76.4	79.1	74.9
	자차	74.7	69.9	70.6	69.3	78.8	83.3	75.4
	자손	63.8	60.7	62.1	58.3	60.6	66.3	61.9
	무보험	28.8	53.7	57.4	54.1	73.5	78.0	65.9
	소계	86.6	84.7	78.9	78.1	81.5	87.1	81.4
외화표시		-3,389.1	73.0	-5,700.9	-47,606.5	-145,923.5	-	-19,014.6
기타		81.4	76.9	69.4	67.7	75.5	89.6	75.6
합계		87.8	83.0	78.0	77.5	80.9	86.9	80.9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 기간에 대한 손해율이며,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임

2) 구분란의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이륜자동차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3) 2017년 4/4분기 외화표시의 경우 경과보험료가 없어 경과손해율을 계산할 수 없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9)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의 책임기간인 보험 연도와 보험회사의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험 연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일부는 당해 사업 연도로 귀속되고 나머지는 차기 사업 연도로 이월됨. 여기서 이미 경과된 기간(보험회사의 책임이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경과보험료(Earned Premium)라고 함

4) 일반손해보험

- 2017년 4/4분기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특종보험과 보증보험의 성장이 둔화되고 해상보험 등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4.3% 증가한 2조 2,242억 원을 기록함
 - 화재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2.7% 감소한 842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해상보험은 3.4% 감소한 1,282억 원을 기록함
 - 보증보험의 경우 전분기에 이어 11.7% 증가한 4,714억 원을 기록함
 - 특종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4.2% 증가한 1조 4,317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 가운데 종합보험과 기술보험이 각각 1.9%, 6.7% 감소함²⁰⁾
 - 반면 책임보험, 상해보험, 기타특종보험이 각각 4.2%, 0.9%, 20.4% 증가함
- 2017년 연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8조 9,117억 원임

〈표 24〉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화재	보험료	865	3,011	703	710	711	842	2,965
	증가율	-3.1	-1.0	-2.3	-3.1	2.6	-2.7	-1.5
	구성비	4.1	3.5	3.2	3.0	3.4	3.8	3.5
해상	보험료	1,328	6,080	1,656	1,633	1,866	1,282	6,437
	증가율	-14.5	-14.3	9.9	-2.7	19.1	-3.4	5.9
	구성비	6.2	7.2	7.4	6.9	8.9	5.8	7.5
보증	보험료	4,221	15,909	4,166	4,294	4,262	4,714	17,435
	증가율	1.7	0.6	7.3	6.9	12.5	11.7	9.6
	구성비	19.8	18.7	18.7	18.1	20.4	21.2	20.3
특종	보험료	13,736	54,677	14,679	15,921	12,913	14,317	57,830
	증가율	5.0	5.9	4.1	7.7	7.1	4.2	5.8
	구성비	64.4	64.3	65.9	67.2	61.7	64.4	67.4
해외 원보험	보험료	1,176	5,355	1,061	1,131	1,170	1,087	4,449
	증가율	-16.7	0.9	-19.5	-14.9	-23.6	-7.6	-16.9
	구성비	5.5	6.3	4.8	4.8	5.6	4.9	5.2
합계	보험료	21,327	85,032	22,265	23,688	20,922	22,242	89,117
	증가율	1.1	2.6	3.4	5.1	6.6	4.3	4.8

주: 1) 부수사업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권원보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2)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0) 특종보험에는 기술보험, 책임보험, 상해보험, 종합보험, 권원보험, 기타특종보험 등이 포함되며, 4/4분기 원수보험료는 각각 717억 원, 2,209억 원, 4,346억 원, 3,592억 원, 136억 원, 3,316억 원임

〈시장점유율〉

- 2017년 4/4분기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 대비 국내 중·소형사의 경우만 점유율이 하락하고 나머지 그룹은 모두 상승하거나 전년동기수준을 유지함
 - 상위 4사와 전업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 대비 2.1%p와 0.1%p 상승한 70.6%와 1.8%를 기록함
 - 국내 중·소형사는 전년동기 대비 2.1%p 하락한 26.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함
 - 2017년 연간 기준으로 국내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만 하락하였으며, 나머지 그룹은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거나 전년수준을 유지함
- 허핀달지수는 전분기 대비 165포인트 상승하고, 전년동기에 비해선 169포인트 상승한 1,555을 기록함
 - 2017년 연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40포인트 상승한 1,430을 기록함

〈표 25〉 손해보험산업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¹⁾

(단위: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상위 4사 ²⁾	68.5	68.7	67.6	68.3	68.2	70.6	68.8
국내 중·소형사 ²⁾	28.1	27.4	28.3	27.5	27.4	26.0	27.2
전업사 ³⁾	1.7	1.9	2.0	2.0	2.1	1.8	2.0
외국사 ³⁾	1.7	2.0	2.1	2.2	2.3	1.7	2.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허핀달지수 ⁴⁾	1,386	1,390	1,369	1,406	1,390	1,555	1,430

주: 1)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을 의미하며,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I, II를 모두 포함함

2) 상위 4사는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 회사, 국내 중·소형사는 국내 온라인사를 포함한 8개 회사를 의미함

3) 전업사는 보증보험사, 국내·외 재보험사 및 외국계 단종보험회사이며, 2016년 3/4분기부터 (주)한국해양보증을 포함함

4)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 제곱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지수가 1,800 이상인 경우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손해율과 사업비율

- 2017년 4/4분기 손해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 대비 2.6%p 개선된 81.2%를 기록하였는데, 종목별로는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손해율이 모두 하락함
 -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발생손해액이 1.7% 감소하였으나 경과보험료가 1.4% 증가하면서, 손해율은 2.5%p 하락한 81.3%를 나타냄
 - 자동차보험의 경우 발생손해액이 0.2% 증가하였으나 경과보험료는 1.2% 증가하면서, 손해율은 0.9%p 하락한 86.9%를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 손해율은 5.9%p 개선된 71.1%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특종보험과 보증보험의 손해율이 각각 3.3%p,²¹⁾ 6.4%p²²⁾ 상승하였으나 해상보험 손해율이 141.8%p 하락²³⁾ 하였기 때문임
 - 2017년 연간 손해보험 손해율은 전년 대비 1.6%p 개선된 80.1%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비중이 가장 큰 장기손해보험이 1.6%p 하락하고 자동차보험도 2.1%p 하락한데 기인함

21) 경과보험료 6.4% 증가, 발생손해액 11.5% 증가

22) 경과보험료 3.5% 증가, 발생손해액 20.5% 증가

23) 경과보험료 13.1% 증가, 발생손해액 82.2% 감소

〈표 26〉 손해보험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¹⁾

(단위: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 해 율	장기손해보험 ²⁾	83.8	84.3	83.9	82.2	83.2	81.3	82.7
	자동차보험	87.8	83.0	78.0	77.5	80.9	86.9	80.9
	일반손해보험	77.0	64.9	60.0	61.5	67.2	71.1	65.2
	화재보험	70.5	56.5	41.1	54.0	53.3	43.3	48.0
	해상보험	168.3	73.2	42.9	81.1	69.6	26.5	55.5
	보증보험	38.7	41.9	56.6	38.2	37.1	45.1	44.1
	특종보험	68.6	67.3	66.5	65.6	73.7	71.9	69.7
	해외원보험	171.1	108.7	90.6	79.3	63.9	-54.7	158.9
	해외수재보험	110.1	69.4	44.6	62.6	72.0	79.4	65.9
	전체	83.8	81.7	79.9	78.7	80.7	81.2	80.1
사업비율		20.7	19.7	20.3	19.9	20.4	23.2	21.0
합산비율		104.5	101.4	100.3	98.6	101.0	104.4	101.1

주: 1) 손해율(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그리고 합산비율(손해율 + 사업비율)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 수치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여기서 순사업비는 지급경비(급여와 임금, 손해조사비, 모집비, 수급비 등)에서 수입경비(출재보험 수수료, 출재이익 수수료 등)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2)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을 고려한 재무손해율임

3) 재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 환급을 일부 제외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7년 4/4분기 전체 손해보험 사업비율은 전년동기 대비 2.5%p 상승한 23.2%임

- 장기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은 전년동기 대비 2.7%p 상승한 23.4%를 기록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사업비율도 각각 1.6%p, 3.1%p 증가한 19.9%, 27.9%를 기록함
- 2017년 연간 사업비율은 1.3%p 상승한 21.0%를 나타냈는데, 이는 장기손해보험 사업비율이 1.7%p 상승한 데 기인함

■ 2017년 4/4분기 합산비율은 전년동기 대비 0.1%p 하락한 104.4%를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의 합산비율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0.2%p, 0.7%p 상승한 104.7%, 106.8%를 나타내었으나, 일반손해보험은 2.9%p 하락한 99.0%를 기록함
- 2017년 연간 합산비율은 전년 대비 0.3%p 하락한 101.1%를 나타냈으며, 종목별로는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합산비율이 각각 0.1%p, 0.6%p 상승하였으나, 자동차보험 합산비율은 1.7%p 하락함

다. 판매채널

〈판매채널별 보험료 비중²⁴⁾〉

- 2017년 4/4분기 임직원, 설계사, 중개사 채널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대리점, 방카슈랑스, 공동인수 채널 비중은 하락함
 - 임직원, 설계사, 중개사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6.0%p, 0.4%p, 0.1%p 확대된 35.4%, 22.7%, 1.0%를 기록함
 - 대리점, 방카슈랑스, 공동인수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4.8%p, 1.5%p, 0.2%p 축소된 34.6%, 6.1%, 0.2%를 기록함
- 2017년 연간 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비중은 대리점(42.5%), 설계사(26.1%), 임직원(22.1%), 방카슈랑스(8.0%), 중개사(1.1%), 공동인수(0.3%) 순으로 나타남

24) 판매채널은 크게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로 구분되며, 최근 온라인 채널 등 새로운 채널도 등장하였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표 27>과 같이 판매채널을 구분하여 원수보험료 비중을 제시함

〈표 27〉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규모와 비중

(단위: 억 원,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임직원	71,997 (29.4)	167,134 (19.8)	33,475 (16.3)	36,569 (17.4)	31,348 (15.4)	93,561 (35.4)	194,953 (22.1)
설계사	54,582 (22.3)	220,203 (26.1)	56,469 (27.4)	56,465 (26.9)	56,999 (28.0)	60,202 (22.7)	230,135 (26.1)
대리점	96,694 (39.4)	365,498 (43.3)	92,836 (45.1)	94,921 (45.3)	95,675 (47.1)	91,691 (34.6)	375,123 (42.5)
중개사	2,241 (0.9)	8,047 (1.0)	2,331 (1.1)	2,689 (1.3)	2,229 (1.1)	2,533 (1.0)	9,783 (1.1)
방카슈랑스	18,727 (7.6)	80,878 (9.6)	20,015 (9.7)	18,421 (8.8)	16,345 (8.0)	16,124 (6.1)	70,904 (8.0)
공동인수	890 (0.4)	3,231 (0.4)	594 (0.3)	687 (0.3)	620 (0.3)	553 (0.2)	2,454 (0.3)
전체	245,131 (100.0)	844,991 (100.0)	205,719 (100.0)	209,752 (100.0)	203,216 (100.0)	264,664 (100.0)	883,351 (100.0)

주: 1)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하는 분기기준 원수보험료 실적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2017년 4/4분기 임직원, 전속설계사 수는 전분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교차설계사와 개인 및 법인 대리점 수는 증가함

- 임직원 수는 전분기 대비 124명 감소(-0.4%)한 3만 2,446명을 기록함
- 전속설계사가 212명 감소(-0.3%)한 7만 9,647명이며, 교차설계사 수는 890명 증가(1.1%)한 8만 1,011명임
- 전체 대리점 수는 개인 대리점 수와 법인 대리점 수의 증가로 전분기 대비 356개 증가(1.2%)한 2만 9,277개를 나타냄

〈표 28〉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2016	2017			
	4/4	1/4	2/4	3/4	4/4
임직원(명)	31,943	32,398	32,487	32,570	32,446
설계사(명)					
- 전속	81,331	80,135	79,685	79,859	79,647
- 교차	77,661	78,674	86,201	80,121	81,011
대리점(개)	29,769	29,545	29,561	28,921	29,277
- 개인	20,155	19,952	19,869	19,539	19,567
- 법인	9,614	9,593	9,692	9,382	9,710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재무성과

〈자산〉

■ 2017년 4/4분기 손해보험 총자산은 일반계정 자산이 늘어나 전분기 대비 2.9% 증가한 277조 999억 원을 나타냄

- 일반계정 자산은 전분기 대비 2.4% 늘어난 256.4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특별계정 자산은 전분기 대비 9.5% 늘어난 20.7조 원을 기록
- 2017년 연간으로는 일반계정 자산과 특별계정 자산이 각각 9.2%, 20.3% 늘어나 총자산은 10.0% 증가함

〈표 29〉 손해보험산업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자산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자산	금액	252.0	252.0	255.4	264.3	269.4	277.1	277.1
	증가율	1.9	11.5	1.3	3.5	1.9	2.9	10.0
일반계정 자산	금액	234.8	234.8	237.1	245.9	250.5	256.4	256.4
	증가율	1.3	10.5	0.9	3.7	1.9	2.4	9.2
특별계정 자산	금액	17.2	17.2	18.3	18.4	18.9	20.7	20.7
	증가율	11.9	27.7	6.5	0.6	2.5	9.5	20.3

주: 1) 분기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연간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2) 총자산 및 증가율은 IFRS의 변경된 제정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적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7년 4/4분기 손해보험 총부채는 전분기 대비 3.4% 증가한 241조 8,995억 원을 나타냈으며, 총자본은 전분기 대비 0.6% 감소한 35조 2,000억 원을 나타냄

- 총부채의 경우 책임준비금, 기타부채, 특별계정 부채가 각각 전분기 대비 1.7%, 2.1%, 22.7% 증가함
- 총자본의 경우 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이 각각 전분기 대비 6.8%, 1.2%, 15.2% 증가한 반면,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각각 3.4%, 11.7% 감소함
- 2017년 연간기준으로는 총부채가 10.2%, 총자본이 8.4% 증가함

〈표 30〉 손해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자산	금액	252.0	252.0	255.4	264.3	269.4	277.1	277.1
	증가율	(1.9)	(11.5)	(1.3)	(3.5)	(1.9)	(2.9)	(10.0)
총부채	금액	219.5	219.5	222.7	229.4	233.9	241.9	241.9
	증가율	(3.8)	(11.6)	(1.4)	(3.0)	(2.0)	(3.4)	(10.2)
책임준비금	금액	186.9	186.9	190.7	195.7	199.9	203.3	203.3
	증가율	(2.6)	(10.6)	(2.0)	(2.6)	(2.1)	(1.7)	(8.8)
기타부채	금액	14.4	14.4	13.8	15.0	15.2	15.6	15.6
	증가율	(1.2)	(8.5)	(-4.6)	(9.2)	(1.4)	(2.1)	(7.8)
특별계정부채	금액	18.2	18.2	18.3	18.7	18.8	23.1	23.1
	증가율	(21.5)	(64.1)	(0.1)	(2.3)	(0.7)	(22.7)	(26.6)
총자본	금액	32.5	32.5	32.6	34.9	35.4	35.2	35.2
	증가율	(-9.3)	(10.8)	(0.5)	(7.0)	(1.5)	(-0.6)	(8.4)
자본금	금액	2.8	2.8	2.8	2.8	2.8	3.0	3.0
	증가율	(4.8)	(15.0)	(-0.6)	(2.2)	(0.1)	(6.8)	(8.5)
자본잉여금	금액	3.1	3.1	3.1	3.1	3.1	3.0	3.0
	증가율	(11.2)	(14.7)	(1.0)	(0.0)	(0.0)	(-3.4)	(-2.4)
이익잉여금	금액	22.1	22.1	22.2	23.5	24.5	24.8	24.8
	증가율	(1.8)	(13.5)	(0.7)	(5.8)	(4.0)	(1.2)	(12.1)
자본조정	금액	-1.4	-1.4	-1.4	-1.4	-1.4	-1.6	-1.6
	증가율	(-1.2)	(7.6)	(1.1)	(0.5)	(0.0)	(15.2)	(17.1)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금액	5.8	5.8	5.9	6.8	6.4	5.6	5.6
	증가율	(-41.7)	(-2.2)	(0.4)	(15.9)	(-6.4)	(-11.7)	(-3.9)

주: 1) 분기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연간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2) 총자산 및 증가율은 IFRS의 변경된 계정을 기준으로 계산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총수익 · 총비용〉

■ 2017년 4/4분기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A)은 전년동기 대비 28.5% 감소한 3,125억 원
흑자를 기록함

○ 책임준비금 전입액을 감안한 보험영업 적자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570억 원 감소한 1조
195억 원을 기록함

- 투자영업 이익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341억 원 감소한 1조 6,633억 원을 나타냄
- 한편,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7개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B)은 전년동기 대비 1.2% 감소한 2,612억 원의 흑자를 기록함
 - 연간 기준 당기순이익(C)은 전년동기 대비 25.3% 증가한 3조 1,777억 원 흑자를 기록함

■ 2017년 연간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A)은 전년 대비 11.0% 증가한 3조 8,527억 원 흑자를 기록함

- 2017년 연간 보험영업 적자규모가 전년 대비 2,053억 원 감소한 1조 8,410억 원을 기록하였고, 투자영업 이익규모는 전년 대비 4,316억 원 증가한 7조 1,855억 원을 기록함

〈표 31〉 손해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¹⁾

(단위: 십억 원,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수익	보험영업	19,139	74,598	18,897	19,046	19,442	19,369	76,755
	투자영업	1,866	9,781	4,404	1,680	2,170	3,516	11,770
	영업외	2,386	3,671	608	338	340	2,170	3,456
	소계	23,390	88,049	23,909	21,064	21,952	25,056	91,980
총비용	보험영업 ²⁾	20,215	76,644	19,218	19,095	19,894	20,389	78,596
	투자영업	168	3,027	2,452	-96	375	1,853	4,584
	영업외	2,376	3,878	681	321	360	2,275	3,637
	소계	22,760	83,549	22,352	19,319	20,630	24,516	86,817
수지차	보험영업	-1,076	-2,046	-321	-48	-452	-1,020	-1,841
	투자영업	1,697	6,754	1,951	1,776	1,795	1,663	7,186
	영업외	10	-208	-74	17	-20	-104	-181
	소계	631	4,500	1,557	1,744	1,323	540	5,163
법인세		193	1,031	354	408	321	226	1,310
당기순이익(A) ³⁾		438	3,469	1,202	1,336	1,001	313	3,853
		(8.4)	(28.8)	(32.6)	(18.9)	(0.1)	(-28.5)	(11.0)
당기순이익(B) ⁴⁾		264	2,536	1,069	1,069	779	261	3,178
		(40.0)	(32.8)	(57.0)	(32.2)	(-0.5)	(-1.2)	(25.3)
연간 기준 당기순이익(C) ⁵⁾		2,536	2,536	4,276	4,275	3,889	3,178	3,178
		(32.8)	(32.8)	(57.0)	(43.5)	(28.4)	(25.3)	(25.3)

주: 1) 기간별 수치는 특별계정을 제외한 실적이고, () 안은 전년동기 대비(분기) 증가율임

2) 책임준비금 전입액을 포함함

3)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포함한 전체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임. 표에 있는 수지차는 이에 해당함

4)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7개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임

5)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7개 손해보험회사의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값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운용〉

■ 2017년 4/4분기 손해보험산업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0.23%p 하락한 3.38%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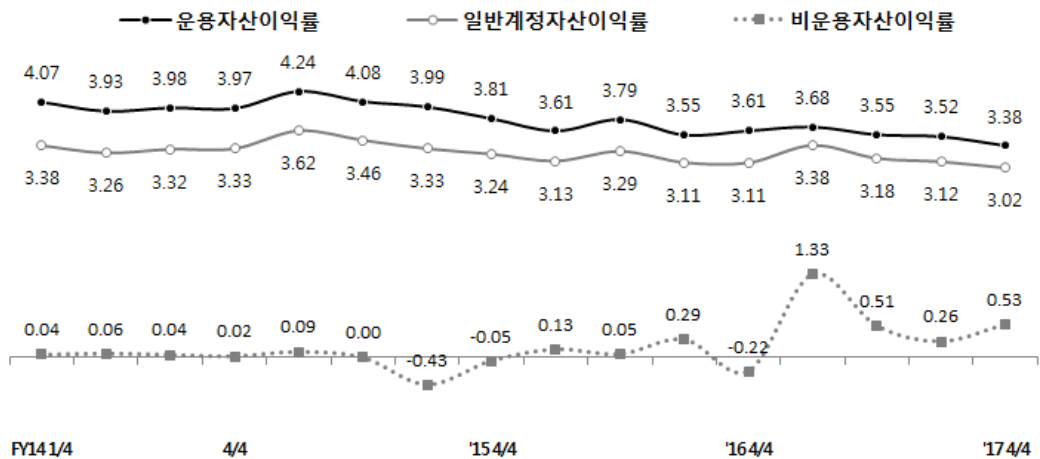
○ 현금과 예금의 이익률이 3.08%p 하락한 -0.66%를 기록하였으며, 유가증권 이익률도 0.37%p 하락한 3.17%를 기록함

- 유가증권 구성항목 중 당기손익인식증권 이익률이 0.19%p 상승한 1.77%를 기록하였으며,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은 각각 0.41%p, 0.12%p 하락한 3.31%, 2.84%를 기록함

○ 대출채권 이익률은 0.02%p 하락한 4.07%를 나타냈으며, 부동산 이익률은 3.00%p 상승한 5.65%를 기록함

〈그림 6〉 자산운용 이익률 추이^{1),2)}

(단위: %)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이익률과 비운용자산이익률을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손익) × 연 기준 환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7년 4/4분기 일반계정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은 유가증권 57.38%, 대출채권 25.47%, 현금과 예금 2.66%, 부동산 2.35% 순으로 나타남²⁵⁾

○ 유가증권과 대출채권 비중이 각각 전년동기 대비 0.17%p, 0.80%p 상승하였으며, 현금과 예금, 부동산 비중은 0.29%p, 0.42%p 하락함

〈표 32〉 손해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및 이익률

(단위: %, 억 원)

구분	2016		2017							
	4/4		1/4		2/4		3/4		4/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0	3.11	100.00	3.38	100.00	3.18	100.00	3.12	100.00	3.02
운용자산 계	87.60	3.61	87.55	3.68	87.88	3.55	88.12	3.52	87.86	3.38
현금과 예금	2.95	2.42	2.59	-4.98	2.72	-0.26	2.60	0.73	2.66	-0.66
유가증권	57.21	3.54	57.08	3.27	57.81	3.21	58.23	3.23	57.38	3.17
○ 당기손익인식증권	2.93	1.58	2.74	1.54	2.80	1.98	2.41	1.82	2.25	1.77
- 주식	0.03	26.61	0.03	0.35	0.03	18.30	0.03	9.35	0.03	13.70
- 채권 등	1.13	1.44	0.90	2.41	0.82	3.13	0.99	2.36	0.75	2.36
- 수익증권	1.77	1.16	1.81	1.05	1.95	1.09	1.38	1.30	1.48	1.22
○ 매도가능증권	49.02	3.72	48.42	3.42	48.84	3.35	48.97	3.36	47.95	3.31
- 주식	2.64	5.05	2.85	5.99	3.04	5.00	3.10	4.49	3.09	3.52
- 채권 등	39.35	3.78	38.35	3.20	38.51	3.07	38.29	3.08	37.15	3.07
- 수익증권	7.03	2.85	7.22	3.62	7.30	4.19	7.58	4.44	7.71	4.45
○ 만기보유증권	4.33	2.96	4.96	2.95	5.23	2.92	5.91	2.85	6.20	2.84
- 채권 등	4.33	2.96	4.96	2.95	5.23	2.92	5.91	2.85	6.20	2.84
- 수익증권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0.93	4.38	0.97	1.98	0.94	1.40	0.94	2.54	0.98	2.17
대출채권	24.67	4.09	25.22	3.97	24.85	4.08	24.86	4.14	25.47	4.07
부동산	2.77	2.65	2.66	18.78	2.50	10.15	2.44	7.06	2.35	5.65
비운용자산	12.40	-0.22	12.45	1.33	12.12	0.51	11.88	0.26	12.14	0.53
일반계정자산 규모	2,348,346		2,370,617		2,459,025		2,505,021		2,564,354	
일반계정자산 비중	(93.19)		(92.84)		(93.04)		(93.00)		(92.54)	
총자산 규모	2,520,053		2,553,526		2,643,087		2,693,553		2,770,999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 기준 환산

2) 이익률에 해당하는 이익은 분기별 누계실적 기준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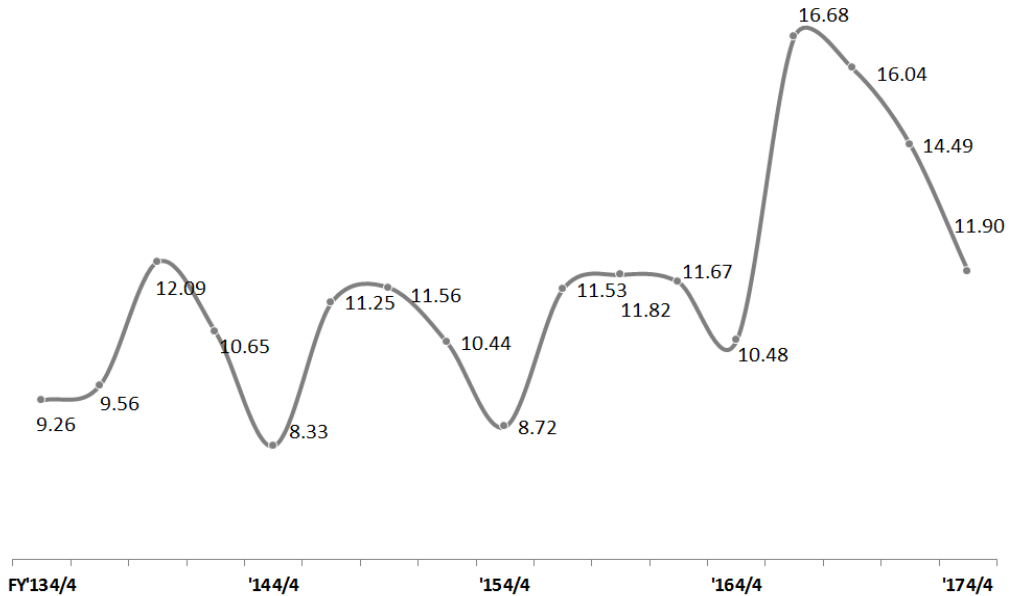
25) 일반계정자산은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으로 구분되며, 해당 수치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본이익률(ROE)²⁶⁾〉

- 2017년 4/4분기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1.42%p 상승한 11.9%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의 총자본(〈표 30〉 참조)은 전년동기 대비 0.6% 감소하였으나 연간기준 당기순이익(C)(〈표 31〉 참조)은 전년동기 대비 25.3% 증가했기 때문임

〈그림 7〉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 추이

(단위: %)



주: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7년 4/4분기 손해보험회사 규모별 자본이익률의 경우 대형사와 중·소형사는 전년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외국사와 전업사는 하락함
-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0.96%p, 4.41%p 상승한 11.46%와 14.81%를 기록함
- 외국사와 전업사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1.49%p와 5.16%p 하락한 8.23%와 6.04%를 기록함

26)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산이익률은 기중자본 대비 당기순이익(R_t / E_t^o)을 의미하며, 분석 대상은 17개 회사임

〈표 33〉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¹⁾

(단위: %)

구분	2016	2017			
	4/4	1/4	2/4	3/4	4/4
대형사	10.50	17.25	15.61	14.12	11.46
중·소형사	10.40	15.01	18.33	16.65	14.81
외국사	9.72	8.87	10.45	10.49	8.23
전업사	11.20	17.00	19.96	14.57	6.04
전체	10.48	16.68	16.04	14.49	11.90

주: 1)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연 기준 환산)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년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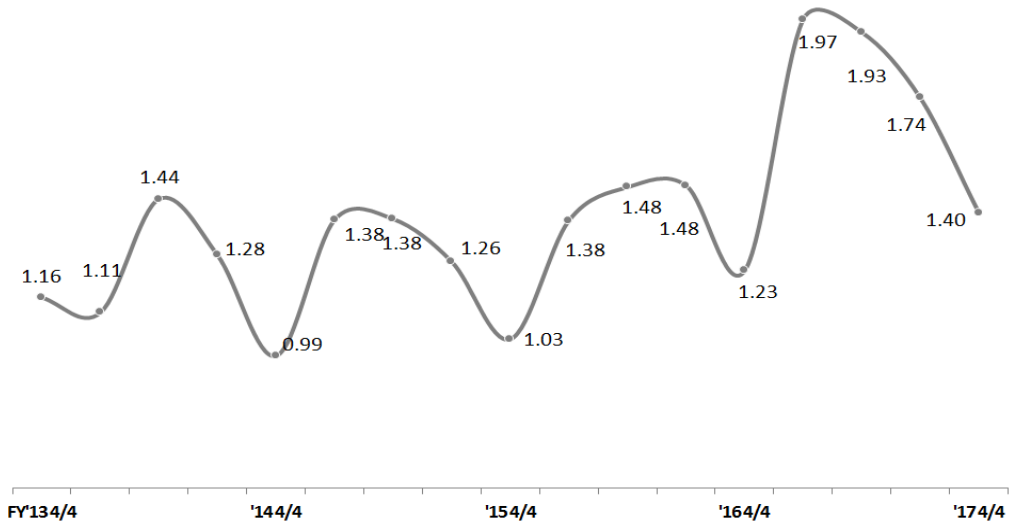
〈자산이익률(ROA)²⁷⁾〉

- 2017년 4/4분기 손해보험산업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0.17%p 상승한 1.40%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 총자산(〈표 30〉 참조)은 전년동기 대비 2.9% 증가하였으며, 연간 기준 당기 순이익(C)(〈표 31〉 참조)은 전년동기 대비 25.3% 증가했기 때문임

27)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산이익률은 기중자본 대비 당기순이익(R_t / A_t^o)을 의미하며, 분석 대상은 17개 회사임

〈그림 8〉 손해보험산업 자산이익률 추이

(단위: %)



주: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7년 4/4분기 손해보험회사 규모별 자산이익률의 경우 대형사, 중·소형사는 전년동기 대비 상승한 반면, 외국사와 전업사는 하락함
- 대형사, 중·소형사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0.13%p, 0.34%p 상승한 1.48%, 1.15%를 기록함
- 외국사와 전업사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0.83%p, 1.02%p 하락한 3.32%, 1.47%를 기록함

〈표 34〉 손해보험산업 자산이익률¹⁾

(단위: %)

구분	2016	2017			
	4/4	1/4	2/4	3/4	4/4
대형사	1.35	2.24	2.07	1.87	1.48
중·소형사	0.81	1.14	1.42	1.28	1.15
외국사	4.15	3.67	4.40	4.40	3.32
전업사	2.49	4.09	5.06	3.67	1.47
전체	1.23	1.97	1.93	1.74	1.40

주: 1) 자산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연 기준 환산) / 기중자산, 기중자산 = ((전년도 말 자산 + 당기 말 자산)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Ⅲ. 해외보험 동향

- 미국, 영국의 생명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였고, 중국의 생명보험 수입 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
 - 2017년 3/4분기 미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¹⁾는 유니버설보험은 정체, 정기보험(1%)은 증가하고, 변액유니버설보험(-9%), 종신보험(-4%)이 감소하여 전년동기 대비 2% 감소함
 - 2017년 4/4분기 영국의 신규보험료²⁾는 투자 및 저축성보험(76.2%)은 크게 증가하고, 보장성보험(-6.0%), 연금 상품(-38.7%)이 감소하여 전년동기 대비 16.5% 감소함
 - 2017년 4/4분기 중국 인보험³⁾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5.4%)은 감소세로, 건강보험(31.7%)은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상해보험(19.1%)이 증가세를 유지하며 전년동기 대비 2.4% 증가함
- 미국, 중국의 손해보험시장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손해보험시장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소폭 감소함
 - 2017년 3/4분기 미국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4.2% 증가하였으나, 총보험 영업이익은 164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고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32.6% 감소함
 - FY2017 3/4분기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0.5% 감소함
 - 2017년 4/4분기 중국 손해보험 수입보험료⁴⁾는 전년동기 대비 10.6% 증가함

1) 미국 보험시장의 규모는 신규 연납화보험료를 기준으로 집계되는데 연납화보험료는 일시납보험료의 10%와 정기납보험료의 합계임(연납화보험료(Annualized Premium) = 일시납보험료 × 10% + 정기납보험료)

2) 신규보험료는 보험료 납입 방법별로 정기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합계로 계산함

3) 중국의 인보험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며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함

4) 중국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가 아닌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1. 미국⁵⁾

가. 생명보험

- 2017년 3/4분기 생명보험 신규보험료⁶⁾는 변액유니버설보험, 종신보험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함(〈표 1〉 참조)
 - 유니버설보험⁷⁾ 판매는 저금리 영향으로 감소했으나 전년동기 대비 8% 증가한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Indexed UL)⁸⁾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 변액유니버설보험⁹⁾은 절반 이상의 보험회사에서 판매가 감소, 전년동기 대비 9% 감소함
 - 정기보험¹⁰⁾은 전체 보험회사 가운데 48%에서 판매가 증가하여 전년동기 대비 1% 증가함
 - 종신보험은 2014년 1/4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여 전년동기 대비 4% 감소함
- 2017년 3/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신규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축소, 정기보험은 확대되었고, 유니버설보험과 종신보험은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함
 - 변액유니버설보험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1%p 감소한 5%를 나타낸 반면 정기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1%p 증가한 22%를 기록함
 - 유니버설보험과 종신보험 비중은 전년동기와 동일한 각각 37%, 36%로 나타남

5) 미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6) 미국 보험시장의 규모는 신규 연납화보험료를 기준으로 집계되는데 연납화보험료는 일시납보험료의 10%와 정기납보험료의 합계임(연납화보험료(Annualized Premium) = 일시납보험료 × 10% + 정기납보험료)

7) 해약환급금으로부터 사업비를 공제하고, 사망률과 현재 이율로 계산한 해약환급금에 따라 보험료가 유연한 생명보험임

8) 인덱스 지수와 연결된 유니버설보험으로 주가지수가 상승하면 해약환급금이 증가하지만 주가지수가 하락하여도 최저 보증금은 보증되는 상품임

9) 특별 계정에서 운영되는 투자 성과에 따라 해약환급금 규모가 변경되는 보험으로 보험료 납입 및 적립금 인출이 자유로운 보험임

10) 특정 연령까지 혹은 특정 기간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임

〈표 1〉 미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증가율 및 비중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3/4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유니버설	-4	-2	37	6	0	37	6	2	0	37
변액유니버설	-12	-10	6	-9	-11	6	-3	5	-9	5
정기	2	2	21	-1	1	21	2	3	1	22
종신	6	9	36	11	9	36	8	2	-4	36
계	0	2	100	5	3	100	5	3	-2	100
연납화보험료	2,729	2,646		3,075	10,981		2,648	2,775	2,591	

주: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LIMRA(2017, 11), *U.S. Retail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나. 연금보험

- 2017년 3/4분기 개인연금 신규보험료의 경우 변액연금과 정액연금 모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기 대비 12.7% 감소한 468억 달러임(〈표 2〉 참고)
 - 개인연금 신규보험료가 분기별 500억 달러를 하회한 것은 2002년 이후 15년만에 처음임
 - 변액연금¹¹⁾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15.8% 감소한 218억 달러를 기록함
 - 변액연금은 미국 노동부가 2017년 6월 적용한 ‘Fiduciary Rule’¹²⁾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 정액연금¹³⁾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9.7% 감소한 250억 달러를 기록함

〈표 2〉 미국 개인연금보험 종목별 신규보험료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3/4
변액연금	보험료	26.9	25.9	25.3	104.7	24.4	24.7	21.8
	증가율	-25.3	-21.3	-20.2	-21.3	-8.3	-8.2	-15.8
	비중	46.1	48.3	49.6	47.2	46.9	45.8	46.6
정액연금	보험료	31.5	27.9	25.7	117.4	27.6	29.2	25.0
	증가율	30.2	0.0	-13.5	13.1	-14.6	-7.3	-9.7
	비중	53.9	51.7	50.4	52.8	53.1	54.2	53.4
합계	보험료	58.4	53.6	51.0	221.9	52.0	53.9	46.8
	증가율	-3.0	-11.6	-16.9	-6.2	-11.7	-7.7	-12.7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LIMRA(2017. 11), U.S. Individual Annuities

11) 변액연금 상품을 일부라도 포함한 모든 보험 상품을 일컬음

12) 미국 노동부가 2016년 6월 부분적으로 시행한 규정으로, 고령층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상품에 대해 자문과 판매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의무를 강화한 조치임

13) 최저보증 이율이 보장되는 독립 상품으로 거치연금(Deferred Annuity), 즉시연금(Immediate Annuity), 구조적 지급연금(Structured Settlements Annuity) 등이 있음

다. 소득보상보험

- 2017년 3/4분기 소득보상보험¹⁴⁾ 신규보험료는 Guaranteed Renewable¹⁵⁾과 Non-cancellable¹⁶⁾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기 대비 8.5% 증가한 1억 5,221만 달러를 기록함(〈표 3〉 참고)
- Guaranteed Renewable은 전년동기 대비 10.3% 증가한 5,418만 달러임
- Non-cancellable은 9,803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함

〈표 3〉 미국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

(단위: 천 건, 백만 달러, %)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3/4
계약 건수	Guaranteed Renewable	건수	85.3	82.4	116.0	377.6	115.3	89.8	93.0
		증가율	7.2	10.2	0.7	-0.2	22.8	5.3	12.9
		구성비	68.6	65.4	72.1	69.4	75.7	70.1	67.1
	Non-cancellable	건수	39.1	43.6	44.8	166.7	37.0	38.3	45.6
		증가율	9.4	-11.0	-8.8	-0.5	-5.5	-2.0	4.6
		구성비	31.4	34.6	27.9	30.6	24.3	29.9	32.9
	전체	건수	124.4	126.0	160.8	544.3	152.3	128.2	138.6
		증가율	7.9	1.8	-2.2	-0.3	14.4	3.0	10.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규 보험료	Guaranteed Renewable	보험료	53.0	49.1	69.8	227.3	81.3	56.4	54.2
		증가율	0.1	17.5	1.0	-0.2	46.9	6.3	10.3
		구성비	39.8	35.0	43.7	40.3	51.6	40.4	35.6
	Non-cancellable	보험료	80.3	91.2	89.9	336.9	76.3	83.0	98.0
		증가율	3.6	-6.9	-3.0	0.5	1.0	3.4	7.5
		구성비	60.2	65.0	56.3	59.7	48.4	59.6	64.4
	전체	보험료	133.3	140.3	159.7	564.2	157.6	139.4	152.2
		증가율	2.2	0.4	-1.3	0.2	20.4	4.6	8.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LIMRA(2018, 2),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Sales

14)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업불능이 되었을 경우 소득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임

15)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16) Non-cancell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또는 급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라. 손해보험

- 2017년 3/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4.2% 증가한 1,45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발생손해액은 1,173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함(〈표 4〉 참고)
 - 원수손해율은 80.9%로 전년동기 대비 상승함
- 손해보험산업의 2017년 3/4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32.6% 감소한 69억 달러임
 - 2017년 하반기 발생한 허리케인 Harvey, Irma, Maria의 영향으로 총보험영업이익 적자는 164억 달러로 크게 증가함
 - 총투자영업이익은 이자 및 배당수익과 실현자본이익의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78.3% 증가한 약 218억 달러를 기록함
 - 이자 및 배당수익은 12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8.4% 증가함
 - 실현자본이익은 대규모 단일거래를 통한 실현이익의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734.1% 증가한 98억 달러임
- 2017년 3/4분기 합산비율은 전년동기 99.0%에서 11.7%p 상승한 110.7%, 자기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 5.9%에서 2.1%p 하락한 3.8%를 나타냄

〈표 4〉 미국 손해보험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¹⁾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3/4
원수보험료	금액	134,530	139,196	124,402	528,221	135,379	140,215	145,006
	증가율	3.0	2.3	2.4	2.7	4.0	4.2	4.2
발생손해액	금액	96,683	96,143	98,399	378,277	93,462	100,979	117,291
	증가율	8.1	8.3	9.2	8.0	7.4	4.4	22.0
원수손해율		71.9	69.1	79.1	71.6	69.0	72.0	80.9
보험영업이익	금액	-3,475	72	-2,032	-2,447	-4	-3,602	-15,970
	증가율	816.9	-98.2	-168.9	-121.3	-100.1	3.7	-22,280.6
계약자 배당금	금액	265	279	1,002	2,302	725	288	416
	증가율	2.3	2.6	-20.3	-8.5	-4.1	8.7	49.1
총보험영업이익	금액	-3,740	-208	-3,034	-4,749	-728	-3,891	-16,387
	증가율	486.2	-105.5	-279.2	-153.1	-132.3	4.0	7,778.4
이자 및 배당수익	금액	11,241	11,030	13,305	46,341	11,805	11,610	11,959
	증가율	-4.2	-3.8	7.5	-1.9	8.4	3.3	8.4
실현자본이익	금액	2,156	1,176	1,700	7,314	2,558	1,062	9,809
	증가율	-38.2	73.2	216.0	-22.0	12.1	-50.7	734.1
총투자영업이익	금액	13,397	12,206	15,005	53,654	14,363	12,672	21,768
	증가율	-12.0	0.5	16.2	-5.2	9.1	-5.4	78.3
세전영업이익 ²⁾	금액	7,909	11,213	10,145	42,616	5,409	8,393	-3,635
	증가율	-34.4	-28.4	-29.2	-26.1	-60.1	6.1	-132.4
당기순이익 ³⁾	금액	8,389	10,209	10,789	42,609	7,733	7,588	6,885
	증가율	-34.9	-22.1	-14.9	-25.0	-42.2	-9.5	-32.6
자기자본 (Surplus) ⁴⁾	금액	680,543	688,181	700,931	700,931	709,034	716,969	719,428
	증가율	1.1	3.5	4.0	4.0	4.8	5.4	4.5
지급준비금	금액	589,492	594,458	597,175	597,175	592,798	598,666	622,050
	증가율	1.8	2.3	2.4	2.4	1.2	1.6	4.6
자기자본이익률 ⁵⁾		4.9	5.9	6.2	6.1	4.4	4.2	3.8
합산비율		102.0	99.0	104.1	100.7	99.6	101.9	110.7

주: 1)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2) 세전영업이익 = 총보험영업이익 + 이자 및 배당수익 + 기타이익

3) 당기순이익 = 세전영업이익 + 실현자본이익 + 세금

4)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살펴보는 지표로 사용되며, 보험계약자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값을 의미함

5) 자기자본(Surplus)에 대한 이익률로 Rate of return on average surplus로 표기함

자료: ISO(2018, 1), Property/Casualty Insurance Results: Nine-Months 2017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며, 본고는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건강보험이 존재하지 않아 민영건강보험이 발달해 있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와 의료공급조직(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등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건강보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영 건강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정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 생명보험마케팅 연구단체(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 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손해보험산업 분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를 중심으로 작성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참여 회사 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 기관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83개사	80%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62개사	97%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9개사	-	LIMRA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2. 영국¹⁷⁾

가. 생명보험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 2017년 4/4분기 생명보험 신규보험료¹⁸⁾는 전년동기 대비 16.5% 감소한 154억 3,092만 파운드를 기록함

-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6.0% 감소한 2억 6,384만 파운드임
- 투자 및 저축성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76.2% 증가한 34억 6,167만 파운드를 기록함
 - ISA 상품 신규보험료는 13억 3,834만 파운드로 전체 생명보험 신규보험료의 8.7%를 차지함
- 연금 상품¹⁹⁾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38.7% 감소한 83억 4,555만 파운드임
 - 순수개인형연금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52.7% 증가한 51억 7,435만 파운드임
 - 단체개인형연금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19.9% 감소한 20억 8,066만 파운드임
 - 퇴직연금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85.7% 감소한 10억 9,054만 파운드임
- 퇴직소득보험²⁰⁾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28.2% 증가한 33억 5,987만 파운드임

17) 영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18) 신규보험료는 보험료 납입 방법별로 정기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합계로 계산함

19) 연금 상품은 근로자와 연금사업자 간 개인계약(Personal Contract-based)인 개인연금 상품과 사용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퇴직연금 상품으로 구분되며, 개인연금 상품은 또 다시 개인의 보험료 부담형태에 따라 순수개인형(Individual Pensions)과 단체개인형(Work-based Pensions)으로 구분됨. 순수개인형연금 상품은 보험료를 전액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며, 세부적으로 Personal Pensions,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s, SIPPs(Self-Invested Personal Pensions) 등의 상품이 있음. 단체개인형연금 상품은 보험료를 사용자가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보조하는 방식이며, 세부적으로 Group Personal Pensions,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s, Group SIPPs 등의 상품이 있음. 퇴직연금(Trust-based Pensions) 상품은 신탁에 근거한 연금 상품으로 Defined Benefits, Defined Contributions, Group AVCs(Additional Voluntary Contributions), TIPs(Trustee Investment Plans), Buyouts 등이 포함됨

20) 퇴직소득(Retirement Income)보험 상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금을 활용하여 소득흐름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일시납 상품만 있으며 종신연금(Pension Annuities), 소득인출(Income Drawdown) 상품으로 구분됨

〈표 5〉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

상품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보장성보험 (Protection)	금액	280.6	1,183.9	271.1	289.1	247.6	263.8	1,071.7
	증가율	-3.0	1.0	-6.8	-10.7	-14.3	-6.0	-9.5
	구성비	1.5	1.6	1.9	1.8	1.6	1.7	1.8
투자 및 저축성보험 (Investments & Saving)	금액	1,964.3	8,183.9	3,412.8	3,934.0	3,507.5	3,461.7	14,316.0
	증가율	-9.2	0.2	64.3	84.1	74.9	76.2	74.9
	구성비	10.6	11.1	24.5	24.6	22.7	22.4	23.5
투자형 (Investment)	금액	1,230.1	4,941.5	1,165.7	1,090.1	1,174.7	1,201.9	4,632.4
	증가율	2.2	5.3	-4.6	-13.9	-4.0	-2.3	-6.3
	구성비	6.7	6.7	8.4	6.8	7.6	7.8	7.6
역외영업 (Offshore)	금액	728.2	3,214.6	845.4	955.5	871.0	916.8	3,588.8
	증가율	-23.7	-6.9	-0.4	10.6	12.6	25.9	11.6
	구성비	3.9	4.3	6.1	6.0	5.6	5.9	5.9
ISA	금액	-	-	1,397.6	1,884.7	1,457.1	1,338.3	6,077.8
	증가율	-	-	-	-	-	-	-
	구성비	-	-	10.0	11.8	9.4	8.7	10.0
연금 상품 (Pension)	금액	13,613.0	53,795.7	7,207.3	8,262.8	8,289.3	8,345.5	32,104.8
	증가율	-13.4	-7.0	-30.2	-58.4	-17.1	-38.7	-40.3
	구성비	73.7	72.8	51.7	51.7	53.6	54.1	52.8
순수개인형 (Individual)	금액	3,389.4	12,452.1	4,505.4	4,654.8	4,658.2	5,174.3	18,992.8
	증가율	2.5	-6.9	40.8	55.7	62.1	52.7	52.5
	구성비	18.3	16.8	32.3	29.1	30.1	33.5	31.2
단체개인형 (Work-Based)	금액	2,598.0	9,321.9	2,494.4	3,230.2	3,390.2	2,080.7	11,195.4
	증가율	-22.1	-2.1	3.5	31.8	81.9	-19.9	20.1
	구성비	14.1	12.6	17.9	20.2	21.9	13.5	18.4
퇴직연금 (Trust-based)	금액	7,625.5	32,021.6	207.4	377.7	241.0	1,090.5	1,916.6
	증가율	-16.1	-8.4	-95.6	-97.4	-95.4	-85.7	-94.0
	구성비	41.3	43.3	1.5	2.4	1.6	7.1	3.2
퇴직소득보험 (Retirement Income)	금액	2,621.5	10,774.8	3,056.9	3,501.9	3,429.4	3,359.9	13,348.1
	증가율	2.5	10.9	25.9	21.5	20.6	28.2	23.9
	구성비	14.2	14.6	21.9	21.9	22.2	21.8	21.9
전체	금액	18,479.4	73,938.4	13,948.1	15,987.8	15,473.8	15,430.9	60,840.6
	증가율	-10.9	-3.9	-7.7	-36.6	2.2	-16.5	-17.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2017년부터 투자 및 저축성보험 상품 통계에 ISA 실적이 집계됨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모집형태별 신규보험료〉

- 2017년 정기납 신규보험료 기준 모집형태별 비중은 독립 자문(Independent Advice)²¹⁾이 가장 높았고, 제한적 자문(Restricted Advice),²²⁾ 無자문(Non-advised)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정기납 판매 중 독립자문 채널 판매 비중은 전년 대비 8.2%p 증가한 73.1%를 기록하였음
 - 종목별로는 개인연금(76.7%), 보장성보험(68.1%), 퇴직연금(59.0%), 투자 및 저축보험(0.1%) 순임
 - 정기납 신규보험료 중 제한적 자문 채널 비중은 전년 대비 0.8%p 감소한 15.3%를 기록하였음
 - 종목별로는 투자 및 저축보험(28.9), 퇴직연금(18.3%), 보장성보험(16.9%), 개인연금(15.4%) 순으로 나타남
 - 無자문 채널의 정기납 신규보험 판매비중은 전년 대비 7.3%p 감소한 11.6%로 나타났음
 - 종목별로는 투자 및 저축보험(71.0%), 퇴직연금(22.6%), 보장성보험(15.1%), 개인연금(7.8%) 순임
- 2017년 일시납 신규보험료 기준 모집형태별 비중은 독립 자문, 無자문, 제한적 자문 순으로 나타남
 - 일시납 신규보험료 중 독립 자문 채널 비중은 전년 대비 3.1%p 증가한 71.0%임
 - 종목별로는 개인연금의 독립자문 채널을 통한 모집 비중이 85.4%로 가장 높으며, 퇴직연금(71.0%), 투자 및 저축보험(70.4%), 퇴직소득보험(55.1%) 순임
 - 無자문 채널의 일시납 신규보험 판매비중은 21.4%로 전년 대비 4.4%p 감소함
 - 종목별로는 퇴직소득보험과, 퇴직연금의 경우 無자문 채널을 통한 모집 비중이 각각 33.6%, 27.8%로 나타남
 - 투자 및 저축보험(3.9%), 개인연금(6.2%)의 경우 無자문 채널을 통한 모집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

21) 독립적 자문(Independent Advice)은 상품공급업자에게 구속받지 않고 특정 시장의 전체 상품을 포괄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22) 제한적 자문(Restricted Advice)은 복수의 상품공급업자 상품을 적합성 원칙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 일시납 신규보험료 중 제한적 자문 채널의 판매 비중은 전년 대비 1.3%p 증가한 7.6%임
 - 종목별로 투자 및 저축보험의 제한적 자문 채널 모집 비중이 25.7%로 가장 높으며, 퇴직소득보험(11.3%), 개인연금(8.4%), 퇴직연금(1.2%) 순임

〈표 6〉 2017년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

(단위: %)

구분	독립 자문 (Independent Advice)				제한적 자문 ¹⁾ (Restricted Advice)				無자문 ²⁾ (Non-advised)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투자 및 저축보험	0.1	0.1	73.8	70.4	11.9	28.9	23.4	25.7	88.0	71.0	2.8	3.9
개인연금	76.2	76.7	84.9	85.4	17.4	15.4	7.4	8.4	6.5	7.8	7.8	6.2
퇴직연금	24.2	59.0	61.8	71.0	9.9	18.3	0.8	1.2	65.9	22.6	37.4	27.8
보장성보험	66.9	68.1	91.8	-	18.6	16.9	1.3	-	14.5	15.1	6.9	-
퇴직소득보험	-	-	49.1	55.1	-	-	11.4	11.3	-	-	39.5	33.6
기타	81.3	62.9	58.2	60.0	4.1	8.6	11.2	1.3	14.6	28.4	30.6	38.7
전체 ³⁾	64.9	73.1	67.9	71.0	16.1	15.3	6.3	7.6	18.9	11.6	25.8	21.4

주: 1) 독립중개인(WoM), 단일 전속(Single Tied)과 다중 전속(Multi Tied) 설계사 포함

2) 보험회사의 직접 판매와 제3자 판매를 포함하며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대상으로 함

3) 각 채널별 신규보험료를 합산하여 재계산함

4) 기타는 채널별 상품구분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2017년 4/4분기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신규보험 판매액은 전년동기 대비 30.1% 감소한 1억 5,422만 파운드를 기록함

- 방카슈랑스를 통한 정기납 보험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9.4% 감소한 1,219파운드로 전체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판매의 7.9%를 차지함
 - 종목별로 투자 및 저축보험 판매가 33.1% 증가하고 개인연금 판매가 40.9% 감소함
- 방카슈랑스를 통한 일시납 보험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31.4% 감소한 1억 4,203만 파운드이며 방카슈랑스 채널의 92.1%를 차지함
 - 모든 종목에서 감소를 보이며 투자 및 저축보험이 26.9%, 역외영업이 29.2%, 퇴직 소득보험이 60.4% 감소함

〈표 7〉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방카슈랑스 판매

(단위: 백만 파운드, %)

구분		정기납						일시납					
		2016	2017					2016	2017				
		연간	1/4	2/4	3/4	4/4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투자및저축보험	금액	0.6	0.1	0.2	0.2	0.3	0.8	486.5	104.4	94.8	96.0	73.8	369.0
	증가율	13.4	-13.3	33.7	13.0	33.1	118.4	3.6	-20.3	-27.4	-22.6	-26.9	-24.2
개인연금	금액	13.0	2.6	3.2	3.0	1.7	10.5	86.0	25.8	33.6	13.1	14.8	87.3
	증가율	-24.2	-38.4	-1.1	12.7	-40.9	80.6	37.1	-4.1	42.2	-22.5	-20.7	1.4
퇴직연금	금액	0.0	-	-	-	-	-	0.0	-	-	-	-	-
	증가율	-100.0	-	-	-	-	-	-99.5	-100.0	0.0	-100.0	0.0	-100.0
역외영업	금액	0.2	0.0	0.0	0.0	0.0	0.1	218.3	53.5	70.4	71.6	45.4	241.0
	증가율	40.8	-21.9	-36.9	-45.2	-36.1	64.2	-27.5	14.9	38.0	26.8	-29.2	10.4
보장성보험	금액	44.9	10.8	10.5	9.8	10.2	41.3	12.8	0.0	0.0	0.0	0.0	0.0
	증가율	-14.3	-6.8	-6.2	-16.8	-1.1	92.0	-19.2	-100.0	-100.0	-100.0	-100.0	-100.0
퇴직소득보험 ¹⁾	금액	-	-	-	-	-	-	71.9	5.3	7.4	9.6	8.1	30.4
	증가율	-	-	-	-	-	-	133.4	-36.8	-56.4	-63.2	-60.4	-57.7
전체	금액	58.8	13.6	13.9	13.0	12.2	52.7	875.7	189.0	206.3	190.3	142.0	727.7
	증가율	-16.9	-15.3	-4.9	-11.3	-9.4	89.6	-0.8	-12.7	-8.2	-16.4	-31.4	-16.9

주: 1) 별도 취합된 퇴직소득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를 합침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의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연간자료만 발표)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8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전체 신규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개인보장성 보험과 단체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투자 및 저축성보험에는 투자형(Investments), 역외영업(Offshore Business), ISA 상품 포함됨
 - 퇴직소득보험(Retirement Income)은 퇴직자의 연금재원이 분배되는 단계의 보험으로서 종신연금(Pension Annuities)과 소득인출(Income Drawdown)로 구분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Investment & Savings	투자 및 저축성보험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Individual Pensions	순수개인형연금
Work-based Pensions	단체개인형연금
Trust-based Pensions	퇴직연금
Retirement Income	퇴직소득보험

3. 일본²³⁾

가. 손해보험²⁴⁾

〈원수보험료〉

- FY2017 3/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0.5% 감소한 2조 2,229억 엔으로 집계됨
 - 화재보험, 해상보험, 운송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0.5%, 7.2%, 1.3% 증가한 3,745억 엔, 461억 엔, 159억 엔을 기록함
 - 자동차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0.4% 증가한 1조 134억 엔으로 나타났으나, 자동차배상책임 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10.3% 감소한 2,325억 엔으로 집계됨
 - 상해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3.9% 감소한 2,245억 엔을 나타냈으며 특종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5.2% 증가한 3,159억 엔을 기록함

23) 일본 보험산업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24) 일부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아 2017년 9월부터 일본 생명보험협회가 생명보험 통계 발표를 지연하고 있어서 본고에서는 손해보험만을 기술함

〈표 8〉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엔, %)

구분 ^{2),3)}		FY2016			FY2017		
		3/4	4/4	연간	1/4	2/4	3/4
화재	보험료	3,727	3,546	14,122	3,460	3,578	3,745
	증가율	0.4	4.7	-11.3	0.7	4.9	0.5
	구성비	16.7	15.9	15.7	14.7	16.0	16.8
해상	보험료	430	480	1,907	543	467	461
	증가율	-18.3	-6.7	-12.7	1.5	0.9	7.2
	구성비	1.9	2.1	2.1	2.3	2.1	2.1
운송	보험료	157	162	641	173	154	159
	증가율	-2.5	-2.4	-2.0	0.7	2.8	1.3
	구성비	0.7	0.7	0.7	0.7	0.7	0.7
자동차	보험료	10,096	10,152	40,528	10,467	10,026	10,134
	증가율	1.1	1.4	1.5	1.2	0.9	0.4
	구성비	45.2	45.4	45.0	44.4	44.8	45.6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료	2,592	2,732	10,423	2,611	2,415	2,325
	증가율	-8.1	10.0	2.1	0.6	-3.5	-10.3
	구성비	11.6	12.2	11.6	11.1	10.8	10.5
상해	보험료	2,337	2,198	9,865	2,724	2,331	2,245
	증가율	-2.7	-1.7	-1.3	-2.8	-7.8	-3.9
	구성비	10.5	9.8	10.9	11.6	10.4	10.1
특종	보험료	3,002	3,083	12,615	3,581	3,426	3,159
	증가율	6.5	7.0	7.2	8.3	6.3	5.2
	구성비	13.4	13.8	14.0	15.2	15.3	14.2
합계	보험료	22,342	22,353	90,101	23,559	22,398	22,229
	증가율	-0.4	3.1	-0.6	1.6	0.8	-0.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일본의 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3)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기준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 기준임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지급률〉

■ FY2017 3/4분기 손해보험 지급률은 55.6%로 전분기보다 6.9%p 상승함

-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0.5% 감소한 2조 2,229억 엔을 기록함
-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 대비 3.3% 증가한 1조 2,364억 엔을 기록함

〈표 9〉 일본 손해보험 지급률

(단위: 억 엔, %)

구분		FY2016			FY2017		
		2/4	3/4	4/4	1/4	2/4	3/4
원수보험료	금액	22,215	22,342	22,353	23,559	22,398	22,229
	증가율 ¹⁾	-5.5	1.2	3.1	1.6	0.8	-0.5
지급보험금	금액	11,586	11,964	12,396	11,125	10,912	12,364
	증가율	4.1	-6.0	6.5	-19.3	-5.8	3.3
지급률 ²⁾		52.2	53.6	55.5	47.2	48.7	55.6

주: 1) 전년동기 대비 증가

2)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원수보험료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자산운용〉

■ FY2017 3/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전분기 32조 3,052억 엔에서 32조 7,554억 엔으로 증가함

- 운용자산 중 현금 및 예금, 단기자금, 매입금전채권, 대출금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 6.5%, 0.5%, 0.6%, 5.3%에서 5.9%, 0.0%, 0.2%, 5.2%로 하락함
- 반면 금전신탁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0.7%에서 0.9%로 상승하였으며, 총자산 대비 환매조건부채권, 부동산의 비중은 각각 전분기와 같은 0.3%, 2.8%임
- 유가증권의 경우 국채 및 기타증권을 제외한 기타 유가증권의 증가로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75.5%에서 76.9%로 상승함
 - 국채, 지방채, 회사채, 주식, 외화증권, 기타증권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9%, 1.0%, 8.0%, 24.6%, 26.6%, 0.8%로 집계됨

〈표 10〉 일본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¹⁾

(단위: 억 엔, %)

구분 ²⁾	FY2016				FY2017					
	3/4		4/4		1/4		2/4		3/4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현금 및 예금	19,288	6.2	17,112	5.4	19,061	6.0	21,070	6.5	19,176	5.9
단기자금	150	0.0	2,368	0.8	1,358	0.4	1,695	0.5	0	0.0
환매조건부채권	1,420	0.5	970	0.3	870	0.3	1,020	0.3	870	0.3
매입금전채권	1,036	0.3	895	0.3	2,266	0.7	1,809	0.6	788	0.2
금전신탁	2,011	0.6	2,228	0.7	2,217	0.7	2,327	0.7	2,831	0.9
유가증권	234,717	75.0	237,793	75.4	237,852	75.2	243,931	75.5	251,851	76.9
- 국채	55,364	17.7	53,627	17.0	52,342	16.5	52,494	16.2	52,053	15.9
- 지방채	3,144	1.0	3,095	1.0	3,045	1.0	3,061	0.9	3,214	1.0
- 회사채	26,447	8.4	26,572	8.4	26,520	8.4	26,041	8.1	26,076	8.0
- 주식	72,105	23.0	70,694	22.4	71,820	22.7	75,402	23.3	80,470	24.6
- 외화증권	75,108	24.0	81,133	25.7	81,484	25.8	84,132	26.0	87,278	26.6
- 기타증권	2,549	0.8	2,672	0.8	2,641	0.8	2,801	0.9	2,759	0.8
대출금	19,561	6.2	18,870	6.0	18,118	5.7	16,998	5.3	17,154	5.2
부동산	9,352	3.0	9,373	3.0	9,279	2.9	9,179	2.8	9,114	2.8
운용자산	287,536	91.9	289,609	91.8	291,021	92.0	298,031	92.3	301,784	92.1
비운용자산 ³⁾	25,475	8.1	25,970	8.2	25,247	8.0	25,021	7.7	25,769	7.9
총자산	313,013	100.0	315,579	100.0	316,269	100.0	323,052	100.0	327,554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누적 잔액, 전분기 대비 증가율로서,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전분기 대비 증가율

3) 비운용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을 말함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http://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http://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규가입금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險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 현황(主要資産運用状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險会社資金運用状況一覽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은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성보험과 단체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성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險)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險)으로, 단체성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險),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險), 재형보험(財形保險),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險), 의료보장보험(医療保障保險),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險)으로 분류함
 - 단체성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기타로 분류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險)	특종보험

4. 중국²⁵⁾

가. 총괄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

- 2017년 4/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는 6,12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5.7% 증가함
 - 인보험 및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모두 둔화됨
 - 한편, 2017년 전체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한 3조 6,581억 위안으로 나타남
- 2017년 4/4분기 전체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 대비 3.3% 증가한 2,854억 위안임
 -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1.8% 감소하였으나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8.2% 증가함
 - 한편, 2017년 전체 지급보험금은 1조 1,181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함
- 2017년 4/4분기 사업비는 전년동기 대비 3.0% 증가한 1,246억 위안으로 집계됨
 - 한편, 2017년 연간 사업비는 전년 대비 10.1% 증가한 4,288억 위안으로 나타남

25) 중국 보험산업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産保險)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중국 보험산업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표 11〉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수입보험료	금액	5,791	30,959	15,866	7,274	7,317	6,124	36,581
	증가율 ²⁾	10.5	27.5	32.4	6.4	15.1	5.7	18.2
인보험	금액	3,437	22,235	13,464	4,824	4,939	3,519	26,746
	증가율	8.8	36.5	37.0	2.9	15.2	2.4	20.3
손해보험	금액	2,354	8,724	2,402	2,450	2,378	2,604	9,835
	증가율	13.0	9.1	11.5	14.1	14.9	10.6	12.7
지급보험금	금액	2,762	10,513	3,305	2,480	2,542	2,854	11,181
	증가율	14.4	21.2	14.3	4.6	2.1	3.3	6.4
인보험	금액	1,358	5,787	2,170	1,321	1,269	1,333	6,093
	증가율	22.1	29.2	19.5	3.1	-4.7	-1.8	5.3
손해보험	금액	1,405	4,726	1,135	1,159	1,272	1,520	5,087
	증가율	7.9	12.7	5.5	6.4	10.1	8.2	7.6
사업비	금액	1,210	3,896	986	1,048	1,008	1,246	4,288
	증가율	17.1	16.7	17.6	12.6	9.9	3.0	10.1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전년동기 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자산운용〉

■ 2017년 4/4분기 총자산은 전분기 대비 1.0% 증가한 16조 7,489억 위안으로 나타남

○ 이 중 운용자산은 14조 9,206억 위안으로 전분기 대비 1.9% 증가하였고, 비운용자산은 전분기 대비 5.5% 감소한 1조 8,283억 위안임

■ 운용자산 중 예치금, 주식은 전분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채권, 기타 자산은 전분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예치금, 주식은 전분기 대비 각각 4.2%, 2.5% 감소한 1조 9,274억 위안, 1조 8,354억 위안을 기록함

- 예치금, 주식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5%, 11.0%로 전분기에 비해 0.6%p, 0.4%p 하락함

○ 채권, 기타 자산은 전분기 대비 각각 0.7%, 6.6% 증가한 5조 1,613억 위안, 5조 9,966억 위안을 기록함

- 채권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8%로 전분기에 비해 0.1%p 하락하였으나 기타 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33.9%에서 35.8%로 상승함

〈표 12〉 중국 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1),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운용자산계	금액	133,911	133,911	140,736	144,999	146,472	149,206	149,206
	증가율 ³⁾	4.4	19.8	5.1	3.0	1.0	1.9	11.4
	구성비	88.6	88.6	87.0	88.3	88.3	89.1	89.1
예치금	금액	24,844	24,844	23,605	21,593	20,113	19,274	19,274
	증가율	8.2	2.0	-5.0	-8.5	-6.9	-4.2	-22.4
	구성비	16.4	16.4	14.6	13.1	12.1	11.5	11.5
채권	금액	43,050	43,050	46,433	49,654	51,269	51,613	51,613
	증가율	-0.9	12.0	7.9	6.9	3.3	0.7	19.9
	구성비	28.5	28.5	28.7	30.2	30.9	30.8	30.8
주식 ⁴⁾	금액	17,788	17,788	17,922	17,900	18,832	18,354	18,354
	증가율	-2.7	4.8	0.8	-0.1	5.2	-2.5	3.2
	구성비	11.8	11.8	11.1	10.9	11.4	11.0	11.0
기타 자산 ⁵⁾	금액	48,228	48,228	52,776	55,852	56,257	59,966	59,966
	증가율	10.6	50.6	9.4	5.8	0.7	6.6	24.3
	구성비	31.9	31.9	32.6	34.0	33.9	35.8	35.8
비운용자산계 ⁶⁾	금액	17,258	17,258	21,079	19,306	19,353	18,283	18,283
	증가율	-4.3	46.2	22.1	-8.4	0.2	-5.5	5.9
	구성비	11.4	11.4	13.0	11.7	11.7	10.9	10.9
총자산	금액	151,169	151,169	161,815	164,304	165,824	167,489	167,489
	증가율	3.3	22.3	7.0	1.5	0.9	1.0	10.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말잔액 기준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전분기 대비

4) 주식은 주식형 펀드를 포함함

5) 기타 자산은 부동산, 인프라시설 자산 등이 있음

6) 비운용자산은 미수금, 장기주식투자, 유무형 자산 등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나. 인보험²⁶⁾

〈수입보험료〉

- 2017년 4/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3,51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2.4% 증가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인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도 크게 둔화됨
 - 2017년 4/4분기 유니버설보험 판매 급감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감소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²⁷⁾
 - 한편, 2017년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2조 6,74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0.3% 증가함
- 2017년 4/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건강보험과 상해보험 수입보험료가 증가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5.4% 감소한 2,515억 위안을 나타냄
 -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31.7%, 19.1% 증가한 806억 위안, 198억 위안을 기록함
 - 한편, 2017년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전년 대비 23.0%, 8.6%, 20.2% 증가한 2조 1,456억 위안, 4,389억 위안, 901억 위안을 기록함

26) 중국의 인보험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며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함. 중국의 생명보험은 크게 전통형 상품과 투자형 상품으로 구분되어 있음. 배당금이 없는 정기보험, 종신보험, 양로보험, 연금보험은 전통형 상품으로 통칭되며 투자형 상품은 배당형 상품, 투자연계형 상품, 유니버설 상품 등이 해당됨. 중국의 건강보험은 한국과 유사하며 의료보험, 질병보험, 소득보장보험, 간병보험 등이 있음

27) 中国经济网(2018. 1), “去年寿险原保费增速降16个百分点”

〈표 13〉 인보험 수입보험료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인보험	보험료	3,437	22,235	13,464	4,824	4,939	3,519	26,746
	증가율 ²⁾	8.8	36.5	37.0	2.9	15.2	2.4	20.3
생명보험	보험료	2,658	17,442	11,631	3,578	3,731	2,515	21,456
	증가율	8.7	31.7	37.5	8.4	23.4	-5.4	23.0
건강보험	보험료	612	4,042	1,600	1,016	967	806	4,389
	증가율	6.7	67.7	36.9	-14.7	-9.7	31.7	8.6
상해보험	보험료	166	750	233	230	241	198	901
	증가율	20.8	18.0	18.3	18.6	24.8	19.1	20.2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전년동기 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 2017년 4/4분기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1,333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1.8% 감소함

○ 생명보험 지급보험금은 862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13.2% 감소하였으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지급보험금은 각각 410억 위안, 61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30.8%, 18.8% 증가함

○ 한편, 2017년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6,09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함

〈표 14〉 인보험 지급보험금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인보험	보험금	1,358	5,787	2,170	1,321	1,269	1,333	6,093
	증가율 ²⁾	22.1	29.2	19.5	3.1	-4.7	-1.8	5.3
생명보험	보험금	992	4,603	1,837	1,006	871	862	4,575
	증가율	20.7	29.1	19.0	-2.4	-15.9	-13.2	-0.6
건강보험	보험금	314	1,001	284	263	338	410	1,295
	증가율	27.1	31.2	24.9	25.2	35.2	30.8	29.4
상해보험	보험금	52	183	49	53	61	61	224
	증가율	21.3	20.5	11.2	29.0	30.6	18.8	22.2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전년동기 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률〉

- 2017년 4/4분기 인보험 지급률은 전분기 25.7%에서 37.9%로 상승함
 -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지급률은 각각 34.3%, 50.9%, 30.9%로 집계됨
 - 한편, 2017년 인보험 지급률은 22.8%로 2016년에 비해 3.2%p 하락함

〈표 15〉 인보험 지급률¹⁾

(단위: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인보험	39.5	26.0	16.1	27.4	25.7	37.9	22.8
생명보험	37.3	26.4	15.8	28.1	23.3	34.3	21.3
건강보험	51.2	24.8	17.8	25.9	34.9	50.9	29.5
상해보험	31.0	24.4	21.1	22.9	25.2	30.9	24.8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7년 4/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17년 3/4분기에 비해 하락한 반면,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상승함
 -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88.9%로 전분기에 비해 2.6%p 하락하였으나,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 8.5%에서 11.1%로 상승함
 - 한편,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²⁸⁾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1.2%p 하락한 55.8%로 나타났으며,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Evergrande Life, AIA China, ICBC-AXA Life임

28)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는 Pingan Life, China Life, CPIC Life, New China Life, Taiping Life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0.9%, 18.3%, 6.1%, 5.7%, 4.8%임(2017년 4/4분기 기준)

〈표 16〉 생명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2)}

(단위: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인보험	중국계	상위 5사	50.2	48.4	54.8	55.3	57.0	55.8	52.2
		중·소형사 ³⁾	41.4	45.2	39.3	36.9	34.5	33.1	40.3
		소계	91.6	93.6	94.0	92.2	91.5	88.9	92.6
	외국계		8.4	6.4	6.0	7.8	8.5	11.1	7.4

주: 1) 시장 점유율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중·소형사는 상위 5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다. 손해보험

〈수입보험료²⁹⁾〉

■ 2017년 4/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2,60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10.6% 증가함

○ 한편, 2017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9,83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함

〈표 17〉 손해보험 수입보험료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보험	보험료	2,354	8,724	2,402	2,450	2,378	2,604	9,835
	증가율 ²⁾	13.0	9.1	11.5	14.1	14.9	10.6	12.7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전년동기 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29) 중국은 원수보험료가 아니고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손해보험의 보험료를 발표하고 있음

〈지급보험금〉

- 2017년 4/4분기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1,52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8.2% 증가함
- 한편, 2017년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5,08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함

〈표 18〉 손해보험 지급보험금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보험	보험금	1,405	4,726	1,135	1,159	1,272	1,520	5,087
	증가율 ²⁾	7.9	12.7	5.5	6.4	10.1	8.2	7.6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전년동기 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률〉

- 2017년 4/4분기 손해보험 지급률은 전분기 53.5%에서 58.4%로 상승함
- 한편, 2017년 손해보험 지급률은 51.7%로 2016년에 비해 2.5%p 하락함

〈표 19〉 손해보험 지급률¹⁾

(단위: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보험	59.7	54.2	47.3	47.3	53.5	58.4	51.7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7년 4/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17년 3/4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한 데 반해,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는 소폭 하락함
-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0.1%p 상승한 98.0%로 나타났으나,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 2.1%에서 2.0%로 하락함

- 한편, 중국계 손해보험회사 상위 3사³⁰⁾의 시장점유율은 63.6%로 전분기에 비해 0.1%p 상승하였으며, 외국계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AXA Tianping, Groupama AVIC, Liberty Insurance임

〈표 20〉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2)}

(단위: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 보험	중국계	상위 3사	62.1	63.1	63.9	63.0	63.5	63.6	63.5
		중·소형사 ³⁾	35.8	34.9	34.3	35.0	34.4	34.5	34.6
		소계	97.9	98.0	98.2	98.0	97.9	98.0	98.0
	외국계		2.1	2.0	1.8	2.0	2.1	2.0	2.0

주: 1) 시장점유율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중·소형사는 상위 5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30) 중국계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PICC P&C, Ping An P&C, CIPC P&C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3.1%, 20.5%, 9.9%임(2017년 4/4분기 기준)

라. 연금보험³¹⁾

■ 2017년 4/4분기 연금보험회사의 수탁보험료는 30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17.5% 증가하였으며, 누적 운용보험료는 6,246억 위안으로 전분기 대비 4.8% 증가함

○ 한편, 2017년 연금보험회사의 수탁보험료는 1,10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7.0% 증가함

〈표 21〉 중국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및 자산 운용 현황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수탁보험료 ²⁾	금액	260	942	272	289	236	306	1,103
	증가율 ²⁾	27.2	7.8	3.0	35.0	15.7	17.5	17.0
누적 운용보험료	금액	5,167	5,167	5,394	5,647	5,958	6,246	6,246
	증가율 ³⁾	6.4	23.9	4.4	4.7	5.5	4.8	20.9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수탁보험료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임

3) 전분기 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31) 이는 2004년 5월 기업연금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연금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기업연금보험을 의미하며, 현재 기업연금보험을 취급하는 연금보험회사는 Taiping Pension, Ping An Annuity, China Life pension, Changjiang Pension, Taikang Pension 등이 있음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産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주요 경영실적 등 경영지표 분석을 위해 보험산업경영 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를 사용함
 - 또한,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와 손해보험회사 수입보험료현황표(財産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를 활용해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시도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보험연감>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을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생명보험은 투자형 상품인 배당형 상품, 투자연계형 상품, 유니버설 상품과 저축성 위주의 전통형 상품으로 분류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産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신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다를 수 있음

부록. 통계표

〈부록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1/4	2/4	3/4	4/4
국내총생산 성장률		2.9	3.4	2.6	2.4	2.9	2.7	3.8	2.8
경상수지 ³⁾		26,961	27,040	22,564	22,678	19,203	16,452	25,570	17,235
수출 ⁴⁾		118,984	127,575	128,614	136,775	139,317	143,113	148,863	146,089
수입 ⁴⁾		88,775	94,400	100,430	109,447	112,010	113,552	114,113	117,819
실업률		4.3	3.8	3.6	3.2	4.3	3.8	3.4	3.2
금리	국고채(3년)	1.53	1.42	1.26	1.55	1.67	1.68	1.77	2.10
	회사채(3년)	2.01	1.88	1.67	1.99	2.15	2.21	2.31	2.65
소비자물가지수 ⁵⁾		100.59	100.78	100.97	101.54	102.66	102.71	103.31	103.05
환율	원/달러	1,201.44	1,163.30	1,121.37	1,157.37	1,154.28	1,129.43	1,132.24	1,105.72
	원/엔화	1,042.81	1,076.07	1,095.01	1,058.43	1,015.23	1,017.32	1,020.43	979.11
KOSPI		1,926.92	1979.91	2,026.89	2,012.29	2,094.94	2,279.26	2,385.43	2,497.37
외환보유고		360,825	360,752	368,590	361,701	375,302	380,568	384,674	389,267

주: 1) 환율, 주가지수는 분기평균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10년 연쇄가격 기준임

3)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 수지를 모두 합한 값임

4) 상품 수출 및 수입을 의미함

5) 2015=100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부록 표 2〉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단위: 억 원, %)

구분		2016	2017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수입보험료	214,279 (-13.2)	54,189 (-5.0)	48,844 (-8.8)	47,178 (-9.9)	46,058 (-10.2)	196,269 (-8.4)
	초회보험료 ²⁾	34,489 (-44.5)	10,219 (-11.6)	5,001 (-41.5)	4,037 (-48.7)	3,513 (-46.0)	22,770 (-34.0)
	계속보험료	179,790 (-2.6)	43,970 (-3.3)	43,844 (-2.6)	43,141 (-3.0)	42,545 (-5.0)	173,500 (-3.5)
사망	수입보험료	386,607 (7.3)	99,001 (2.6)	100,051 (4.4)	99,955 (3.3)	99,875 (2.5)	398,882 (3.2)
	초회보험료	19,126 (-5.7)	3,897 (-47.8)	3,574 (-15.9)	2,940 (-28.0)	2,257 (-32.1)	12,668 (-33.8)
	계속보험료	367,480 (8.1)	95,103 (6.8)	96,477 (5.3)	97,015 (4.6)	97,618 (3.7)	386,214 (5.1)
생사 혼합	수입보험료	228,294 (6.8)	58,554 (-11.9)	50,646 (-9.6)	44,188 (-21.8)	38,246 (-22.4)	191,634 (-16.1)
	초회보험료	55,353 (28.2)	16,753 (-24.9)	10,786 (-17.4)	5,678 (-54.3)	3,014 (-60.1)	36,231 (-34.5)
	계속보험료	172,941 (1.4)	41,801 (-5.2)	39,860 (7.3)	38,510 (-2.7)	35,232 (-15.6)	155,403 (-10.1)
변액 보험	수입보험료	194,062 (-6.0)	49,794 (3.2)	47,414 (-1.3)	50,063 (0.6)	48,966 (2.0)	196,237 (1.1)
	초회보험료	12,815 (-0.1)	5,455 (-15.5)	2,972 (-13.3)	5,893 (34.6)	5,243 (-11.2)	19,563 (52.7)
	계속보험료	181,247 (-6.4)	44,339 (-3.8)	44,443 (-2.2)	44,169 (-2.7)	43,723 (-1.4)	176,674 (-2.5)
개 인 계	수입보험료	1,023,242 (-0.4)	261,538 (-2.5)	246,956 (-2.6)	241,383 (-5.5)	233,145 (-5.3)	983,022 (-3.9)
	초회보험료	121,784 (-12.0)	36,325 (-16.5)	22,332 (-21.6)	18,548 (-35.5)	14,027 (-33.4)	91,232 (-25.1)
	계속보험료	901,458 (1.4)	225,214 (0.2)	224,623 (-0.2)	222,835 (-1.7)	219,118 (-2.6)	891,790 (-1.1)
일반 단체	수입보험료	7,619 (-1.5)	2,149 (1.4)	1,923 (1.1)	1,798 (0.2)	1,780 (-1.3)	7,649 (0.4)
	초회보험료	1,375 (7.4)	598 (8.4)	350 (14.5)	250 (-3.1)	231 (-11.0)	1,430 (3.9)
	계속보험료	6,243 (-3.3)	1,551 (-1.1)	1,573 (-1.5)	1,547 (0.7)	1,548 (0.3)	6,219 (-0.4)
퇴직 연금	수입보험료	167,252 (22.1)	22,326 (13.6)	25,112 (-9.8)	14,135 (-11.8)	87,491 (-15.7)	149,064 (-10.9)
	초회보험료	31,542 (-27.4)	4,949 (12.5)	5,357 (5.2)	2,236 (-32.1)	16,641 (-11.3)	29,184 (-7.5)
	계속보험료	135,710 (45.1)	17,378 (14.0)	19,755 (-13.2)	11,898 (-6.5)	70,849 (-16.6)	119,880 (-11.7)
단 체 계 ³⁾	수입보험료	174,871 (20.8)	24,475 (12.4)	27,035 (-9.1)	15,932 (-10.6)	89,270 (-15.4)	156,713 (-10.4)
	초회보험료	32,917 (-26.4)	5,547 (12.0)	5,707 (5.7)	2,487 (-30.0)	16,873 (-11.3)	30,613 (-7.0)
	계속보험료	141,954 (41.9)	18,928 (12.6)	21,328 (-12.4)	13,446 (-5.8)	72,397 (-16.3)	126,099 (-11.2)
합계	수입보험료	1,198,112 (2.2)	286,014 (-1.4)	273,991 (-3.3)	257,315 (-5.8)	322,415 (-8.3)	1,139,735 (-4.9)
	초회보험료	154,701 (-15.5)	41,872 (-13.6)	28,039 (-17.2)	21,035 (-34.9)	30,899 (-22.9)	121,845 (-21.2)
	계속보험료	1,043,411 (5.5)	244,142 (1.1)	245,951 (-1.4)	236,281 (-2.0)	291,516 (-6.4)	1,017,890 (-2.4)

주: 1) 괄호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1회 납입 보험료를 의미함

3) 단체보험에는 일반단체보험,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2년 이후 퇴직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퇴직연금 의무 가입의 실시로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에 포함시켜 작성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 · 지급보험금 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1),2)}

(단위: 억 원,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보험	지급보험금	40,896	152,904	1,674	39,617	42,609	42,254	166,153
	증가율	7.2	7.6	12.5	6.5	12.9	3.3	8.7
	지급률	79.7	71.4	76.9	81.1	90.3	91.7	84.7
사망 보험	지급보험금	47,027	186,024	50,858	48,433	53,507	54,142	206,940
	증가율	5.8	6.8	8.0	5.6	16.2	15.1	11.2
	지급률	48.3	48.1	51.4	48.4	53.5	54.2	51.9
생사 혼합 보험	지급보험금	33,525	128,539	39,617	35,953	34,506	32,115	142,191
	증가율	21.5	9.2	24.4	14.3	8.8	-4.2	10.6
	지급률	68.0	56.3	67.7	71.0	78.1	84.0	74.2
변액 보험	지급보험금	34,358	136,299	37,489	36,414	38,209	38,138	150,250
	증가율	11.4	4.3	25.7	3.8	3.1	11.0	10.2
	지급률	71.6	70.2	75.3	76.8	76.3	77.9	76.6
개인 보험계	지급보험금	155,806	603,766	169,637	160,417	168,830	166,649	665,533
	증가율	10.5	6.9	16.4	7.2	10.7	7.0	10.2
	지급률	63.3	59.0	64.9	65.0	69.9	71.5	67.7
일반 단체	지급보험금	1,897	8,269	1,930	1,949	1,981	1,808	7,668
	증가율	-11.2	-6.6	-16.7	-4.0	-2.2	-4.7	-7.3
	지급률	105.2	108.5	89.8	101.4	110.2	101.6	100.2
퇴직 연금	지급보험금	48,822	104,799	27,192	23,224	16,805	53,954	121,174
	증가율	12.6	8.9	25.8	33.2	-0.7	10.5	15.6
	지급률	47.1	62.7	121.8	92.5	118.9	61.7	81.3
단체 보험계	지급보험금	50,720	113,068	29,121	25,173	18,786	55,762	128,842
	증가율	11.4	7.6	21.7	29.3	-0.9	9.9	14.0
	지급률	48.1	64.7	119.0	93.1	117.9	62.5	82.2
전체	지급보험금	206,526	716,834	198,759	185,589	187,616	222,411	794,375
	증가율	10.7	7.0	17.1	9.8	9.4	7.7	10.8
	지급률	58.7	59.8	69.5	67.7	72.9	69.0	69.7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된 실적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 · 사업비 증가율 및 사업비율^{1),2),3),4)}

(단위: 억 원,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보험	사업비	6,070	24,695	7,547	7,113	7,238	7,544	29,442
	증가율	-19.0	-18.9	17.1	14.0	21.8	24.3	19.2
	사업비율	11.8	11.5	13.9	14.6	15.3	16.4	15.0
사망 보험	사업비	29,970	112,460	27,840	27,706	28,842	31,374	115,763
	증가율	5.4	6.3	1.9	1.7	3.3	4.7	2.9
	사업비율	30.8	29.1	28.1	27.7	28.9	31.4	29.0
생사 혼합 보험	사업비	3,321	13,863	4,266	3,954	3,899	3,424	15,543
	증가율	-15.6	-12.3	14.6	15.3	14.9	3.1	12.1
	사업비율	6.7	6.1	7.3	7.8	8.8	9.0	8.1
개인 보험계	사업비	39,361	151,018	39,653	38,773	39,979	42,343	160,748
	증가율	-1.2	-0.7	5.8	5.1	7.3	7.6	6.4
	사업비율	16.0	14.8	15.2	15.7	16.6	18.2	16.4
단체 보험계	사업비	1,068	4,071	996	964	1,021	1,112	4,094
	증가율	0.7	2.2	3.4	-3.8	-1.5	4.1	0.6
	사업비율	1.0	2.3	4.1	3.6	6.4	1.2	2.6
전체	사업비	40,428	155,090	40,649	39,738	41,000	43,455	164,842
	증가율	-1.2	-0.6	5.7	4.8	7.1	7.5	6.3
	사업비율	11.5	12.9	14.2	14.5	15.9	13.5	14.5

주: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율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퇴직연금에 포함된 실적임

4)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5〉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비중¹⁾

(단위: 억 원, %)

구분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화재	보험료	865	3,011	703	710	711	842	2,965
	증가율	-3.1	-1.0	-2.3	-3.1	2.6	-2.7	-1.5
	구성비	0.4	0.4	0.3	0.3	0.3	0.3	0.3
해상	보험료	1,328	6,080	1,656	1,633	1,866	1,282	6,437
	증가율	-14.5	-14.3	9.9	-2.7	19.1	-3.4	5.9
	구성비	0.5	0.7	0.8	0.8	0.9	0.5	0.7
자동차	보험료	42,151	164,053	42,174	42,995	43,256	40,149	168,573
	증가율	5.4	9.4	7.1	3.9	5.2	-4.8	2.8
	구성비	17.2	19.4	20.5	20.5	21.3	15.2	19.1
보증	보험료	4,221	15,909	4,166	4,294	4,262	4,714	17,435
	증가율	1.7	0.6	7.3	6.9	12.5	11.7	9.6
	구성비	1.7	1.9	2.0	2.0	2.1	1.8	2.0
특종 ²⁾	보험료	13,736	54,677	14,679	15,921	12,913	14,317	57,830
	증가율	5.0	5.9	4.1	7.7	7.1	4.2	5.8
	구성비	5.6	6.5	7.1	7.6	6.4	5.4	6.5
해외 원보험	보험료	1,176	5,355	1,061	1,131	1,170	1,087	4,449
	증가율	-16.7	0.9	-19.5	-14.9	-23.6	-7.6	-16.9
	구성비	0.5	0.6	0.5	0.5	0.6	0.4	0.5
장기 손해	보험료	120,725	477,727	122,565	122,206	123,492	122,616	490,880
	증가율	3.1	2.6	4.0	2.7	2.8	1.6	2.8
	구성비	49.3	56.5	59.6	58.3	60.8	46.3	55.6
개인 연금	보험료	9,676	38,768	9,377	9,255	9,179	9,196	37,007
	증가율	-4.5	-3.6	-4.3	-4.5	-4.4	-5.0	-4.5
	구성비	3.9	4.6	4.6	4.4	4.5	3.5	4.2
퇴직 연금	보험료	51,247	79,392	9,335	11,603	6,363	70,457	97,757
	증가율	28.4	24.7	1.2	-7.7	0.2	37.5	23.1
	구성비	20.9	9.4	4.5	5.5	3.1	26.6	11.1
계	보험료	245,126	844,972	205,715	209,748	203,212	264,660	883,334
	증가율	7.4	5.3	4.0	2.2	3.2	8.0	4.5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분기) 증가율임

2)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고 부수사업 원수보험료는 제외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1),2)}

(단위: %)

구분		2016	2017			
		4/4	1/4	2/4	3/4	4/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70.5	41.1	54.0	53.3	43.3
	사업비율	40.4	49.1	46.5	43.5	48.5
	합산비율	110.9	90.2	100.5	96.8	91.9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168.3	42.9	81.1	69.6	26.5
	사업비율	41.0	32.1	27.9	29.3	47.3
	합산비율	209.3	75.0	109.1	98.9	73.9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38.7	56.6	38.2	37.1	45.1
	사업비율	21.0	15.7	18.1	16.3	20.3
	합산비율	59.8	72.3	56.3	53.4	65.5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68.6	66.5	65.6	73.7	71.9
	사업비율	20.9	19.1	17.2	18.1	23.5
	합산비율	89.5	85.6	82.8	91.9	95.3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171.1	90.6	79.3	63.9	-54.7
	사업비율	73.5	62.4	50.7	53.5	-61.2
	합산비율	244.6	153.0	130.1	117.4	-116.0
해외수재	경과손해율	110.1	44.6	62.6	72.0	79.4
	사업비율	27.9	32.1	29.8	28.5	28.7
	합산비율	138.0	76.7	92.4	100.5	108.2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87.8	78.0	77.5	80.9	86.9
	사업비율	18.3	18.7	18.6	18.2	19.9
	합산비율	106.1	96.7	96.0	99.1	106.8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³⁾	83.8	83.9	82.2	83.2	81.3
	사업비율	20.7	20.4	20.1	20.8	23.4
	합산비율	104.5	104.2	102.3	104.1	104.7
전체	경과손해율	83.8	79.9	78.7	80.7	81.2
	사업비율	20.7	20.3	19.9	20.4	23.2
	합산비율	104.5	100.3	98.6	101.0	104.4

주: 1)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 수치임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3) 경과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 조사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 · 윤성훈 · 이선주 2017.2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 · 채원영 2017.2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 · 강성호 · 마지혜 2017.3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 강성호 · 김동겸 2017.3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 · 최장훈 · 김유미 2017.4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 · 정인영 2017.5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 이해은 2017.8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 · 박지윤 2017.8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 · 이규성 2017.9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2017-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 · 류건식 · 김동겸 2017.12
2017-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 송윤아 · 이소양 2017.12
2017-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최장훈 · 이태열 · 김미화 2017.12
2017-19	연금세제 효과연구 / 정원석 · 이선주 2017.12
2017-20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최창희 · 한성원 2017.12
2017-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김세중 · 김유미 2017.12
2017-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 지홍민 2017.12
2018-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백영화 · 박정희 2018.1
2018-2	건강생활서비스 공 · 사 협력 방안 / 조용운 · 오승연 · 김동겸 2018.2
2018-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 / 류건식 · 강성호 · 이상우 2018.2
2018-4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 조영현 · 이해은 2018.2
2018-5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 김석영 · 김세영 · 이선주 2018.2
2018-6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 조재린 · 정성희 2018.3
2018-7	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현황과 시사점 / 전용식 · 이해은 2018.3

- 2018-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오승연 · 김석영 · 이선주 2018.4
 2018-9 주요국 공 · 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 정성희 · 이태열 · 김유미 2018.4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종협·황진태·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2016.11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6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④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익·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량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 준·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장동식·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 2015-7 일반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 2018-1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 김세환 2018.2

■ 연차보고서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8.1

■ 영문발간물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7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7
제 6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 KIRI,	2015.11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 KIRI,	2016.2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 KIRI,	2016.6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6/ KIRI,	2016.9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 KIRI, 2016.12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 KIRI, 2017.2
제2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 KIRI, 2017.5
제2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 KIRI, 2017.9
제2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 KIRI, 2017.11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김동겸 2011.3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7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 · 이태열 2017.7

■ Insurance Business Report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영문연차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9080 팩스 : (02) 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080 / pgc0703@kiri.or.kr)

『보험동향』 2018년 봄호 (통권 85호)

발행일	2018년 4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등 록	2016년 10월 7일(등록번호 영등포 바 00140)
주 소	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연락처	대표전화 /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ISSN 1228-310X

정가 10,000원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71)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